

# 소상공인 서점 지원 정책 효과 분석

##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중심으로

2023-06

수시연구

The Effects of Small Business Bookstore Support Policy

- Focusing on the designating a type of business  
suitable for livelihood

이용관  
이승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 소상공인 서점 지원 정책 효과 분석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중심으로

The Effects of Small Business Bookstore Support Policy  
- Focusing on the designating a type of business suitable for livelihood

이용관·이승희





## 연구 책임

---

이용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 공동 연구

---

이승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소상공인 서점 지원 정책 효과 분석



## 연구 개요





# 1. 서론

##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 소상공인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신규 진출 및 확장을 제한하는 서점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2024년 종료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 지정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책 정보가 필요한 상황임
  - 도서 유통 시장에서 특정 대상의 영업권을 보호하는 정책은 다양한 참여자들의 이해와 직접 연계되어 있고, 정책 목적상 시장에 양면적 효과를 창출하므로 단편적인 조사나 의견 수렴만으로는 유용한 정책 정보를 창출하는 것이 제한됨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의를 기반으로 한 제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목적 달성 여부를 넘어 출판 시장 및 도서 유통 시장의 빠른 변화를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도 필요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소상공인 서점의 경영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관련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음
  - 서점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배경이 된 대기업 서점의 출점이 중소형 서점의 영업권을 제한하는가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영세 서점의 경쟁력 향상 및 보호라는 정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함
  - 도서 유통 환경 변화와 다양한 주체들의 관계를 고려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나. 연구 범위 및 방법

- 시간적 범위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2019. 10. 18. ~ 2024. 10. 17.)을 기본으로 하되 효과 분석에 사용하는 자료의 시간적 범위는 2013년부터 향후 2년 까지(2025년)임
- 공간적 범위는 국내 도서 유통 시장과 정책을 다루기 때문에 연구 대상을 국내로 한정하되 오프라인 서점의 출·폐점을 고려하여 시군구 단위 모든 지역으로 함
- 대상적 범위는 매장, 매대 등 물리적 공간에서 도서 등 인쇄·출판된 간행물을 갖추

고 이를 상품으로 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서점업)으로 함

- 물리적 공간에서 도서를 여타 업종·품목과 단순 병행하여 판매하는 융·복합형 서점은 제외함
- 대규모 자본 또는 유통망에 의지하지 않고 경영자의 취향대로 운영되는 소위 독립 서점, 인터넷상에서 운영되는 서점인 온라인 서점, 도서를 재판매 하는 중고 서점은 포함함

- 내용적 범위는 5가지로 구분되는데, ▲ 서점업 현황 및 정책 정리,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서점 유형별 인식 파악 및 제도 적용 대상 분류, ▲ 대형 서점 출점이 소매 서점 수와 고용에 미친 영향 분석, ▲ 소비자 조사 기반 대형 서점 출·폐점 효과 분석, ▲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여부 검토 방향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선 방향 제언임
- 연구는 문헌 연구 및 자료 분석,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및 관련 전문가 자문 회의, 데이터 기반 효과성 분석, 소비자 조사 기반 효과성 분석 등의 연구 방법론을 활용하고 연구 결과의 정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연구 결과의 검토 과정을 거침

## 2. 서점업 및 지원 정책 현황

### 가. 서점업 현황

- 2021년 기준 전국 서점 수는 2,528개로, 2011년 이후 격년마다 7~9%씩 감소하다가, 2017년 8.6% 증가, 소규모 서점들이 급격히 증가한 2021년 9% 증가함

〈표 1〉 전국 서점 수 변화(2011~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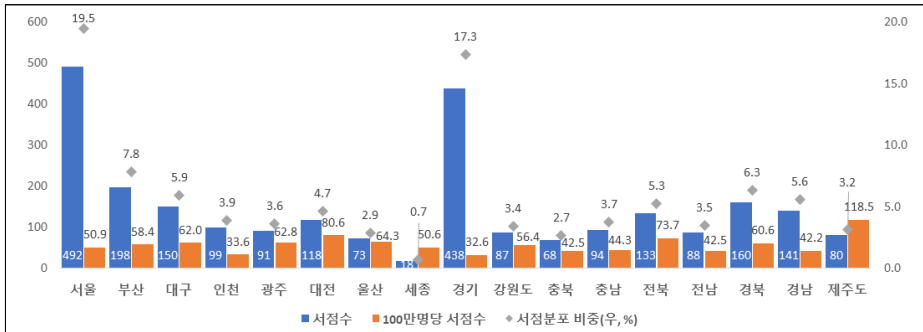
년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서점 개수	2,577개	2,331개	2,165개	2,351개	2,320개	2,528개
증감률	-9.5%	-9.5%	-7.1%	+8.6%	-1.3%	+9%

주: 2021년 서점 수 증가는 모집단 서점 수집 방법과 서점 수록 기준의 변화, 코로나 상황에서도 나타난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서점 개점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자료: 한국서점조합연합회(2022), 「2022 한국서점편람」

- 오프라인 서점에 비해 온라인 서점은 빠르게 성장, 대형 서점 매장 수도 빠르게 증가함
- 서점의 약 37%가 서울·경기에 집중, 인구 당 서점 수는 제주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1] 지역별 서점 수 현황(2021년 기준)



자료: 한국서점조합연합회(2022). 「2022 한국서점편람」 재구성

- 대형 서점은 인구 밀도 높은 대도시에, 독립 서점은 수도권과 이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음

## 나. 서점업 지원 정책 현황

- (보호 정책: 생계형 적합업종) 서점업은 2019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5년간 대기업의 진입(사업 인수, 개시, 확장)이 제한됨으로써 중소형 서점의 영업권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서점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소상공인 서점에 대한 보호와 출판·도서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후생의 법익이 충돌할 수 있는 사안임
  - 2024년 서점업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둔 시점에 제도로 인한 효과와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 및 지속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2〉 서점업 관련 대기업 규제 정책 변화 과정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시행일	2013. 3.	2016. 3.	2019. 10. 18.~
대기업 규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진입 자제</li> <li>• 기존 서점 학습 참고서 판매 부수 동결</li> <li>• 신규 진입 시 학습 참고서 판매 금지(1년 6개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진입 자제</li> <li>• 신규 진입 시 학습 참고서 판매 금지(1년 6개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출점 연 1개 허용</li> <li>• 신규 진입 시 학습 참고서 판매 금지(3년)</li> </ul>
법적 효력	권고	권고	강제

- (가격 정책: 도서정가제)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서정가제는 모든 도서를 정가의 10%까지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마일리지 적립 등의 간접 할인을 5%까지 허용하여 최대 15%까지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도서정가제 개정으로 법적으로는 서점들이 유형에 관계없이 공정 경쟁이 가능한 구조가 되었으나, 유통 단계에서 서점 간 도서 공급가의 차이가 존재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대기업 체인 서점과 중소형 서점 등 서점 간 불균형이 발생하기도 함
- (지원 정책)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서점 관련 협·단체는 지원 사업을 운영함
  - (중앙 정부) 지역 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5차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2022~2026)>을 통해 노후 지역 서점 시설 개선, 북콘서트, 독서 모임 등 문화 활동 개최 지원, 지자체 지역 서점 활성화 조례 제정 표준 조례안 제안 등을 추진함
  - (지방 자치 단체) 광역 자치 단체 17곳 모두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이며, 지역 서점 인증제를 통해 실제 해당 지역의 지역 서점을 인증하여, 인증 받은 서점을 대상으로 공공 기관 우선 구매 권장, 도서 구매 캐시백, 문화 활동 지원 등의 지원 사업을 하고 있음
  - (협·단체)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작가회의 등 서점 관련 협·단체 및 기관에서는 서점의 문화 활동 지원비와 서점주 활동비 지원 등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민 문학을 진흥하고 지역 문화 거점으로서의 서점을 지원함

### 3.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의견 조사와 적용 대상 분류

#### 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의견 조사

- 대기업 진출 제한의 제도적 영향과 규제 방식에 대한 서점별 인식 차이가 존재함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에 대한 영향은 중형 서점은 긍정적으로, 대형 서점은 부정적으로 인식했으며, 독립 서점은 직접적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식함
  - 필요한 지원 정책 수요는 공통적으로 신규 서점 진입 지원, 물류 유통 지원에 대한 수요가 있었으며, 이 밖에 독립 서점은 문화 프로그램 지원 다양화, 대형 서점은 출점 제한 기간 유동성에 대한 수요가 있었음
- 소비자 후생 관련, ‘공간적 문화 인프라’라는 공통된 인식, 차별화된 서점의 역할
  - 서점이 소비자 후생에 기여하는 바로는 먼저 책을 만나는 공간이라는 ‘공간적 문화 인프라’로서 기여한다는 인식이 공통적이었으며, 서점별로 소비자 후생에 대한 기여 및 서점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 차별성이 있었음

〈표 3〉 심층 인터뷰 결과 정리

세부 구분	중형 서점	독립 서점	대형 서점
제도 영향	• 긍정적 영향(위협 요인 차단)	• 직접적 영향 크지 않음	• 부정적(출점 기회 제한)
위협 요인	• 학령인구 수 감소 • 대기업 진입 • 온라인 서점 • 체인 서점 • 중고 서점	• 융·복합 서점 • 중고 서점	• 독서 인구 급감 • 온라인 서점
정책 수요	(유용)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유지 필요	(유용) • 지역 서점 인증제 • 책방 운영 지원금 • 지역 화폐 캐시백 • 도서관 우선 구매	
	(필요) • 신규 서점 진입 지원 • 생활 문화 시설 지원 • 유통 디지털 전환 및 유통망 개선 • 지원 금액 형평성 제고	(필요) • 안정적인 유통 지원 • 온라인 서점 공급량 차이 완화 • 문화 프로그램 지원 다양화	(필요) • 출점 제한 기간 유동성 부여 • 지역 서점 물류 유통 지원
소비자 후생	• 공간적 문화 인프라 • 편의성 • 거시적인 사회 트렌드 파악	• 공간적 문화 인프라 • 책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 • 도서의 관점 다양성	• 공간적 문화 인프라

세부 구분	중형 서점	독립 서점	대형 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서 문화 활성화</li> <li>지역 문화 향상 및 격차 완화</li> </ul>	
시장 전망	• 신규 진입 침체기	• 독립 서점 증가 예상	• 신규 출점 제한적

## 나. 서점 유형과 지원 제도의 영향 범위

- 서점 지원 정책 대상 식별을 위한 서점 유형 분류 필요
  - 서점 유형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등 서점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는 서점의 유형 분류를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었음
  - 가장 일반적인 분류 기준인 서점의 규모에 따른 분류(대형 서점/중형 서점/독립 서점) 외에 사업체의 성격에 따른 분류와 취급 서적을 중심으로 하는 분류 기준을 우선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의가 있었음
  - 서점은 취급하는 도서의 종류 및 비중에 따라 서점의 형태 및 영업 방식 등이 달라지므로, 이에 따라 필요한 지원 정책 수요도 차별화될 수 있음

〈표 4〉 사업체 규모 및 성격에 따른 서점 유형 분류

기업 규모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체 성격					
개인 법인	개인 사업자			← 중소형 서점 →	
				←참고서 주력 서점→	
				← 독립 서점 →	
회사 법인	단독 사업체			← 중소형 서점 →	
				←참고서 주력 서점→	
				← 독립 서점 →	
회사 법인	본사· 지사 (체인)	대기업 오프라인 서점 (교보문고/영풍문고)	중소기업 오프라인 서점 (아크앤북/아람북스 등)		
		대기업 온라인 서점 (교보문고/영풍문고)	중소기업 온라인 서점 (예스24/알라딘 등)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한 보호가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서점 유형은 중소형 서점과 독립 서점이며, 특히 참고서 판매 비중이 높은 서점이 제도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음

〈표 5〉 서점 유형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 영향 범위

서점·기업 규모 취급 서적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 직접적 영향 대	
		대형 서점 (대기업·중소기업)	중형 서점 (소기업)
참고서 중심	-	참고서 중심 종합 서점	참고서 주력 서점
		(효과) 대기업 진입 제한 참고서 판매 제한 (위협) 대기업 변형 진입	(효과) 대기업 진입 제한 참고서 판매 제한 (위협) 대기업 변형 진입
단행본 중심	교보문고/영풍문고 - (위협) 신규 진입 제한 및 참고서 판매 제한	단행본 중심 종합 서점	독립 서점
		(효과) 대기업 진입 제한 (위협) 융·복합 서점 진입	(효과) 대기업 진입 제한 (위협) 융·복합 서점 진입

〈표 6〉 서점 유형별 지원 제도 수혜 범위

서점·기업 규모 지원 제도	대형 서점 (대기업·중소기업)	중소형 서점 (소기업)	독립 서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X	O	△
도서정가제	O	O	O
우선 구매 제도	X	O	O
문화 행사 지원	X	△	O

#### 4. 대형 서점 출점이 소매 서점 수와 고용에 미친 영향

- 전국 사업체 조사 8개년도(2014~2021년) 자료와 대형 서점 출·폐점 자료를 사용하여, 대형 서점 출점이 소매 서점 수와 고용에 미친 영향을 고정효과 모형으로 분석함
  - 대형 서점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소상공인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해 출점 및 판매 제한을 받고 있는 교보문고와 영풍문고(이하 대기업 서점)가 포함되며, 서점업으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프라인에서 도서를 판매하는 전국 체인을 보유한 알라딘과 yes24(이하 중고 서점)도 포함하여 분석함
- 대기업 서점 출점은 소매 서점 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중고 서점은

출점은 소매 서점 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대기업 서점의 출점은 소매 서점 종사자 수를 증대시키고, 중고 서점의 출점은 소매 서점 종사자 수, 특히 비임금 근로자 수를 크게 감소시킴
  - 대형 서점 출점이 임금 근로자를 증가시키는 것은 대기업 서점이 출점하면서 고용한 임금 근로자가 종사자 수에 포함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임
  - 대형 서점의 출점으로 소매 서점의 비임금 근로자 수가 감소되는 경향은 대형 서점의 출점으로 중소형 소매 서점의 비용 절감 필요가 커지면서 이들 서점의 규모가 축소되었다는 것을 보여 줌

(표 7) 대형 서점 출점이 소매 서점 수와 고용에 미친 영향 종합

		소매 서점 수		종사자 수				
		전체	2인 이상	전체	상용	임시·일용	자영	무급 가족
t기 대기업 서점 (ref. =0)	1개	+	-	+	+	+	+	-
	2개	+	+	+	+	+	+	+
	3개	-	-*	+	+	+	+	+
	4개	-	-	+	+	+	+	+
t-1기 대기업 서점 (ref. =0)	1개	-	+	-	-	+	-	-
	2개	+	+	+	-	-	+	+
	3개	+	+	+	+	-	+	-
	4개	+	+	-	-	+	+	-
t기 중고 서점 (ref. =0)	1개	+	-	-	+	+	-	-*
	2개	-**	-**	-**	-	-	-**	-**
	3개	-***	-**	-***	-***	-***	-**	-***
t-1기 중고 서점 (ref. =0)	1개	-	-	-	+	-**	-	-
	2개	-	-	-	+	-	-	-*
	3개	-	-	-	-	+	-	-**

주: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내며, 6개년도 250개 시군구 단위 1,500개 표본을 고정효과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임. 소매 서점 수는 해당 연도 신규 대기업 서점 출점 수를 제외한 값이며 전체는 종사상 지위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종사자를 제외한 값임

- 대형 서점 출점이 소매 서점 수와 종사자 수를 줄였으며, 생존해 있는 소매 서점은 더 영세해졌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결과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영세 소매 서점의 영업권 보호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제도 적용 대상과 방식을 미시적으로 재설계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 줌

## 5. 대형 서점 출·폐점이 소비자에게 미친 영향

### 가. 조사 개요

- 대기업 서점의 출·폐점이 소비자의 도서 구매 및 독서 환경 등 소비자 후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소비자가 도서를 구매할 때 대기업 서점과 지역 서점에 대한 수요가 차별성을 가지는지를 검토하고자 대기업 서점이 출·폐점한 인근 5km 이내 지역의 소비자(도서 구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함

〈표 8〉 조사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조사 대상	최근 1년 이내(2022년~2023년) 출점 및 폐점한 대기업 서점으로부터 5km 이내 반경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 중 오프라인 서점에서 지난 1년 7개월간 도서를 한 번이라도 구매한 경험이 있는 만 14세~69세 남녀	
조사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A: 서점 수 만 명당 3.3개(2개 시 합산 인구수 200만, 서점 수 60개)</li> <li>- 지역 B: 서점 수 만 명당 2.3개(2개 시 합산 인구수 102만, 서점 수 45개)</li> <li>- 지역 C: 서점 수 만 명당 2개(1개 시 인구수 34만, 서점 수 17개)</li> </ul>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자기 기입식 조사	
조사 기간	2023. 8. 1.~8. 10.(10일간)	
규모 설정	대기업 서점 출·폐점 지역 주민 400+ $\alpha$ 명 - 출점: 200+ $\alpha$ - 폐점: 200+ $\alpha$	▶ 응답 결과 - 지역 A(2022년 하반기 출점) 263명 - 지역 B(2023년 상반기 폐점) 254명 - 지역 C(2022년 상반기 폐점) 37명
조사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및 1년 전 도서 구입 현황</li> <li>- 지역 내 대기업 서점 출점·폐점에 대한 의견</li> <li>- 서점 이용 행태 및 독서 현황</li> </ul>	
조사 절차	조사 설계, 조사 수행 회의, 대상 추출, 조사 진행, 검증, 조사 처리 순으로 진행	

## 나. 도서 구입 형태 관점

- 소비자 도서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대기업 서점의 출·폐점의 소비자 도서 구입 형태에 미친 영향을 지역 기반 이질성 고정효과 모형으로 분석함

### 1) 실제 도서 구입량 기반

- 대기업 서점 폐점 지역에서 대기업 서점 도서 구입 비중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반면 중소형 서점의 비중은 증가하며, 일반도서 구입 비중은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학습 참고서 구입 비중은 증가함
- 대기업 서점의 출점 효과는 시장 상황, 지역, 행동 변화의 시차 등으로 인해 영향력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대기업 서점의 출점 제한과 학습 참고서 판매 제한이 중소 서점 영업권을 보호하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나 그 크기는 작을 수 있음을 보여 줌

〈표 9〉 실제 구입량 기반 서점 유형별 도서 구입 비중 변화

	온·오프라인 서점		오프라인 서점 유형별				도서 유형별	
	오프라인 서점	온라인 서점	대기업 서점	중소형 서점	독립 서점	중고 서점	일반도서	학습 참고서
출점 지역	+	-	-	-	+	+	+	-
폐점 지역	-	+	- **	+ **	-	+	- *	+ *

주: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내며, 대기업 서점 출·폐점 지역 거주 소비자들의 서점 유형별 실제 도서 구입 비중 변화를 고정효과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임

### 2) 가상 도서 구입량 기반

- 대기업 서점의 출·폐점으로 도서 구입 비중이 오프라인 서점에서는 감소하고 온라인 서점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 대기업 서점의 출점이 다른 유형의 오프라인 서점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을 두고 나타남
- 출점과 폐점 효과를 동시에 고려할 때 대기업 서점의 신규 출점보다는 폐점 또는 폐점한 이후 인근 지역에 재출점하는 이동이 오프라인 서점 생태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줌

〈표 10〉 가상 구입량 기반 서점 유형별 도서 구입 비중 변화

	출점 지역			폐점 지역		
	대기업 오프라인 서점	대기업 서점 외 오프라인 서점	온라인 서점	대기업 오프라인 서점	대기업 서점 외 오프라인 서점	온라인 서점
2기간 (현재 -과거 구입 비중)	+	+	-	- ***	+	+ ***
2기간 (미래 -현재 구입 비중)	-	- ***	+ ***	- ***	- ***	+ ***
3기간 (미래-현재 -과거 구입 비중)	+	+	-	- ***	+	+ ***

주: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내며, 대기업 서점 출·폐점 지역 거주 소비자들의 서점 유형별 가상 도서 구입 비중 변화를 고정효과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임

#### 다. 소비자 후생 관점

- 소비자의 도서 및 문화 인프라 이용은 대기업 서점 출점 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음
  - 대기업 서점 출점은 서점 접근성 개선과 구입 도서의 다양성 향상에 영향을 주 나 폐점은 온라인 서점 이용 횟수 증가에 영향을 미침
- 오프라인 서점 생태계 측면에서 대기업 서점의 폐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지역 내 서점 유형별 역할과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 줌

## 6. 결론 및 제언

### 가. 제도 검토 방향

- 대기업 서점의 출점을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중소형 서점의 영업권 보호에 기여하나 그 효과성은 도서 유통·소비 시장 상황과 맞물리면서 축소되고 있음
- 생계형 적합업종의 대상과 적용 방식 재설계를 통해 오프라인 서점의 사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음

- 오프라인 서점 생태계와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봤을 때, 대기업 서점의 폐점 또는 폐점한 후 인근 지역에 재출점하는 지역 내 서점 이동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소비자의 도서 구입 행태 변화를 봤을 때, 오프라인 서점의 보호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규모별 오프라인 서점 간의 경쟁보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형 간 경쟁, 시간과 중고 서적 판매 유형 간 경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나. 정책 개선 방향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중소형 서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서점 진입 제한으로 생긴 기회를 중소형 서점이 아닌 제도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가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함(생계형 적합업종 세부 적용 방식 개선)
- 대기업 서점의 출점은 해당 지역의 도서 구입 및 도서 이용의 다양성에 기여하는 바, 각 유형의 서점이 판매 도서 유형 및 서비스를 차별화하고 지역에서 경영 활동을 지속하면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중소형 서점 보호 제도에 대한 인식과 접근 방식의 전환이 필요함
- 중소형 서점에 투입될 수 있는 정책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이들 서점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원 정책의 효과성·효율성 제고가 수반되어야 함
- 출판 산업 및 도서 유통 시장 경쟁력 강화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정보 생산, 관리, 활용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출판 유통 통합 전산망의 상용화와 함께 이를 기반으로 사업체 패널을 관리하고 조사하는 추진 체계를 구축하면 정책 정보를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임
  - 지역 등 공간 기준을 활용해 출판 산업, 서점업에 대한 조사와 소비자의 도서 이용 실태 조사(국민 독서 실태 조사, 도서관 대출 정보 등)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면 도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산업 및 정책 정보를 생산할 수 있을 것임

---

# 목차

<b>제1장 서론</b> .....	<b>1</b>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목적	5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6
1. 연구 범위	6
2. 연구 방법	8
<b>제2장 서점업 및 지원 정책 현황</b> .....	<b>9</b>
제1절 서점업 현황	11
1. 일반 현황	11
2. 지역별 현황	14
제2절 서점업 지원 정책 현황	17
1. 보호 정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17
2. 가격 정책: 도서정가제	20
3. 지원 정책	22
<b>제3장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의견 조사와 적용 대상 분류</b> .....	<b>27</b>
제1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의견 조사	29
1. 조사 개요	29
2. 조사 결과	30
3. 소결	42
제2절 제도적 영향에 따른 서점 유형 분류	45
1. 서점 유형 분류	45
2. 서점 유형별 제도 적용 범위 및 영향	47

<b>제4장 대형 서점 출점이 소매 서점 수와 고용에 미친 영향 .....</b>	<b>49</b>
제1절 분석 개요	51
1. 분석 목적	51
2. 분석 모형 및 방법	52
제2절 자료 및 기초 통계량	54
1. 기초 자료	54
2. 대형 서점 자료	57
제3절 분석 결과	59
1. 대형 서점 출점이 소매 서점 수에 미친 영향	59
2. 대형 서점 출점이 소매 서점 종사자 수에 미친 영향	63
제4절 소결	69
<b>제5장 대형 서점 출·폐점이 소비자에게 미친 영향 .....</b>	<b>73</b>
제1절 분석 개요	75
1. 분석 목적	75
2. 분석 자료	76
3. 기초 통계량	79
제2절 분석 결과	83
1. 대기업 서점 출·폐점 후 도서 구입 행태 변화	83
2. 대기업 서점 출·폐점 후 소비자 후생 변화	91
3. 서점 유형별 수요 차별성	93
제3절 소결	97
1. 도서 구입 행태 관점	97
2. 소비자 후생 관점	99
3. 한계점	100
<b>제6장 결론 및 제언 .....</b>	<b>101</b>
제1절 제도 검토 방향	103
제2절 정책 개선 방향	106

참고 문헌 / 109

ABSTRACT / 111

부록 서점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이용자 설문 조사지 / 115

---

# 표 목차

〈표 2-1〉 전국 서점 수 변화	11
〈표 2-2〉 전국 서점 세부 유형 비중(2021년 기준)	12
〈표 2-3〉 출판 유통 사업체 매출액 및 종사자 수 추이	12
〈표 2-4〉 오프라인 서점 현황(2021년 기준)	13
〈표 2-5〉 대형 서점 매장 수 추이	13
〈표 2-6〉 독립 서점 매장 수 추이	14
〈표 2-7〉 대형 서점 및 독립 서점 지역별 분포	15
〈표 2-8〉 중소기업 적합업종 vs.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세부 사항 비교	18
〈표 2-9〉 서점업 관련 대기업 규제 정책 변화 과정	19
〈표 2-10〉 서점업(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기업 규모 분류 기준	19
〈표 2-11〉 지역 서점 조례 현황 및 주요 내용 비교	23
〈표 2-12〉 지역 서점 활성화 조례 제정으로 인한 지원 제도 사례	24
〈표 3-1〉 심층 인터뷰 대상 구성	29
〈표 3-2〉 심층 인터뷰 결과 정리	44
〈표 3-3〉 매장 및 체인 유무에 따른 서점 유형 분류 기준	45
〈표 3-4〉 사업체 성격에 따른 서점 유형 분류	46
〈표 3-5〉 취급 서적 매출 비중에 따른 서점 유형 분류	47
〈표 3-6〉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에 따른 직접적 영향(보호) 범위	48
〈표 3-7〉 서점 유형별 지원 제도 직접적 수혜 범위	48
〈표 4-1〉 종속 변수 기초 통계량	56
〈표 4-2〉 설명 변수 기초 통계량	57
〈표 4-3〉 대형 서점 연도별 점포 추이	58
〈표 4-4〉 지역별·연도별 대형 체인 서점 수	58
〈표 4-5〉 소매 서점 수 분석 결과	60
〈표 4-6〉 2인 이상 소매 서점 수 분석 결과	62
〈표 4-7〉 총종사자 수 분석 결과	64
〈표 4-8〉 임금 근로자 수 분석 결과	66



〈표 4-9〉 비임금 근로자 수 분석 결과	68
〈표 4-10〉 대형 서점 출점이 소매 서점 수와 고용에 미친 영향 종합	70
〈표 5-1〉 조사 대상 및 규모 설정	77
〈표 5-2〉 조사 항목	78
〈표 5-3〉 응답자 특성	79
〈표 5-4〉 대기업 서점 출·폐점 지역 응답자 특성 비교	80
〈표 5-5〉 도서 구입 행태 변화	81
〈표 5-6〉 독서 및 도서 대출 행태	82
〈표 5-7〉 온·오프라인 서점 도서 구입 비중 변화	85
〈표 5-8〉 오프라인 서점 유형별 도서 구입 비중 변화	85
〈표 5-9〉 오프라인 서점 도서 유형별 도서 구입 비중 변화	86
〈표 5-10〉 서점 유형별 가상 도서 구입량 비중 변화	87
〈표 5-11〉 온·오프라인 서점 도서 구입 비중 변화(2기간-이용 여부 비교례)	88
〈표 5-12〉 온·오프라인 서점 도서 구입 비중 변화(2기간-이용 여부 고려)	89
〈표 5-13〉 온·오프라인 서점 도서 구입 비중 변화(3기간)	90
〈표 5-14〉 대기업 서점 출·폐점 이전 대비 도서 및 문화 인프라 이용량 변화	91
〈표 5-15〉 대기업 서점 출·폐점의 도서 구매 및 독서 환경 영향 비교	91
〈표 5-16〉 서점 유형별 소비자 후생 요인	94
〈표 5-17〉 대기업 서점 대비 중소형 서점 가치	94
〈표 5-18〉 대기업 서점 출·폐점 시 중소형 서점 이용 변화	95
〈표 5-19〉 출점 지역·폐점 지역별 서점 유형별 필요성 인식	96
〈표 5-20〉 실제 구입량 기반 서점 유형별 도서 구입 비중 변화	97
〈표 5-21〉 가상 구입량 기반 서점 유형별 도서 구입 비중 변화	98

---

#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수행 방법 및 과정	8
[그림 2-1] 지역별 서점 수 현황(2021년 기준)	14
[그림 2-2] 학생 대비 서점 비중	16
[그림 2-3] 도서 공급률(공급가) 일반 현황	21
[그림 2-4] 지역 서점 인증제 활용도	24
[그림 5-1] 조사 절차	78
[그림 5-2] 대기업 서점 출·폐점 지역별 소비자 후생 영향 순위	92
[그림 5-3] 오프라인 서점 이용 선호도	95

소상공인 서점 지원 정책 효과 분석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 1. 연구 배경

서점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90% 이상이 소상공인에 해당되어, 서점업의 평균 매출, 영업 이익, 종사자 임금 등은 전반적으로 영세한 실정이다. 그동안 온라인 서점의 도서 판매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형 서점의 출점은 오프라인 도서 구입 수요를 흡수해 주변 중소형 서점의 매출 감소와 폐업을 유발한다는 우려가 확대되었다.

이에 정부는 영세한 서점을 보호하기 위해 서점업을 2013년 3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했으며 2016년 3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였다. 2019년 2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기간이 만료되면서 2019년 10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sup>1)</sup>해 지정 기간 5년 동 대기업의 출점 제한을 통해 소상공인 서점 영업권을 보호하고 있다.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권고 사항은 대기업의 경우, 학습 참고서 판매 부수 동결(기존 서점) 및 판매 금지(1년 6개월간), 해당 산업에 대한 대기업 신규 진입 자제였으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대기업의 사업 인수·개시 및 확장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 및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대기업의 신규 서점은 연 1개씩 출점이 허용되고 신규 출점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영세 소상공인 서점의 주요 취급 서적이 학습 참고서임을 감안하여 36개월 동안 초·중·고 학습 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도록 하게 하였다. 또한 전문 중견 기업 서점(1개사)의 경우는 출점 수를 제한하지 않으나 신규 출점 시에는 36개월 동안 학습 참고서를 판매하지 않도록 하였다.

다만, 생계형 적합업종과 유사한 취지를 가진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는 중소기업의 퇴출을 막는 효과는 있지만 경쟁력 제고엔 한계가 있어 산업 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론

---

1) 서점업은 생계형 적합업종 제1호로 지정(2019. 10. 4.)되어 공고 후 5년간(2019. 10. 18.(금) ~ 2024. 10. 17.(목)) 보호받게 되었다. 보호 대상은 영세 소상공인 서점으로 매장, 매대 등 물리적 공간에서 서적(도서) 등 인쇄·출판된 간행물을 갖추어 놓고 이를 상품으로 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이다.

이 제기되고 있다(김민호, 2022; 이진국, 2015). 특히 대기업 시장 진출 제한은 해당 산업 경쟁력 및 소비자 후생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sup>2)</sup>에서 제도의 지정·유지·폐지 여부 등의 판단을 위해서는 제도의 효과성 등 심층적인 정책 평가 결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점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당시 상황을 보면 심의를 위해 실태조사<sup>3)</sup>와 전문가 및 소비자 의견 수렴 방식을 취했는데, 이는 서점업 관련 체계적인 정보 부족, 정부, 지자체, 협·단체에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 서점업 지원 정책의 혼재 등으로 대기업 서점의 출점 또는 출점 제한이 중소형 서점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제도 도입 이후에도 이에 대한 평가는 주로 실태 조사를 통한 서점의 성과 추이 파악 또는 산학연 관계자를 중심으로 한 의견 수렴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대기업 서점 출점은 주변 중소형 서점의 도서 구매 수요를 이동시키는 등의 영향을 주지만, 해당 지역의 도서 판매 서비스가 개선되면서 구매력이 증대되고, 서점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sup>4)</sup> 또한 도서 유통 시장에서는 독서 인구 감소와 오프라인 서점 유지비용(인건비, 임대료) 상승 등으로 더 이상의 대기업 서점의 출점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되고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2024년 종료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지정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정책 정보가 필요하다. 도서 유통 시장에서 특정 대상을 영업권을 보호하는 정책은 다양한 참여자들의 이해와 직접 연계되어 있고, 정책 목적상 시장에 양면적 효과를 창출하므로 단편적인 조사나 의견 수렴만으로는 유용한 정책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또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협의를 기반으로 한 제도가 유지되기 위

2)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시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2019. 10. 3.)를 보면, 최근 대기업 서점의 급격한 사업 확장과 이에 따른 인근 소상공인 서점의 매출 감소 및 폐업 증가 등 소상공인의 취약성을 고려해 안정적인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했지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출판 산업, 융·복합형 신산업의 성장 저해 등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외 사항을 두고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허용키로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대기업 진출이 중소형 서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카드 데이터를 활용해 조사한 결과(2019. 7.~8.) 대기업 점포별 인근(4km) 평균 중소 사업체 수는 출점 전 17.85개, 출점 후~18개월 16.64개, 출점 18개월 후 14.07개로 줄어든고, 중소 사업체의 월평균 매출액은 동기간 각각 3.1백만 원, 2.8백만 원, 2.7백만 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벤처부, 2019. 10. 3.).

4) 제조업 및 다른 서비스업과 달리 서점업은 문화적 속성이 있기에 서점업의 영업권을 보호하는 제도는 서점업의 경영 활동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독서 및 여가 활동, 문화적 다양성에도 미친다. 즉, 문화적 속성을 지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에 대한 규제적 성격의 제도를 다룰 때는 보다 다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해서는 제도의 목적 달성 여부를 넘어 출판 시장 및 도서 유통 시장의 빠른 변화를 반영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소상공인 서점 지원 정책 중 소상공인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신규 진출 및 확장을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관련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점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배경이 된 대기업 서점의 출점이 중소형 서점의 영업권을 제한하는가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영세 서점의 경쟁력 향상 및 보호라는 정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로써 내년에 논의될 서점업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핵심 정책 정보를 제공한다.

경제·사회·기술의 변화와 함께 코로나 19로 인한 소비 행태계의 변화는 출판 및 도서 유통 환경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도서 유통 시장에 새로운 기회와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도서 유통 환경 변화와 다양한 주체들의 관계를 고려해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 1. 연구 범위

#### 가. 시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2019. 10. 18. ~ 2024. 10. 17.)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정부는 영세한 서점의 보호하기 위해 서점업을 2013년 3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했다는 점에서 대기업 서점의 출점이 서점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13년 자료부터 사용한다. 또한 향후 소비자들의 독서 구입 형태가 제도 개선 방안 도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소비자 조사에서는 향후 2년 까지(2025년) 시간적 범위를 확장한다.

공간적 범위는 국내 도서 유통 시장과 정책을 다루기 때문에 국내로 한정한다. 도서 유통 시장에는 오프라인 서점과 함께 온라인 서점을 같이 고려한다. 실질적인 대기업 서점 출점은 일정 규모 도서 구입 수요가 있는 지역으로 한정되나, 그 외 지역의 중소형 서점의 운영 현황이 비교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시군구 단위 모든 지역을 연구 범위로 한다.

#### 나. 대상적 범위

본 연구에서 있어 핵심적인 범위는 서점업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영향을 받는 대상을 식별하는 것이다. 분석에 있어 핵심 대상은 매장, 매대 등 물리적 공간에서 도서 등 인쇄·출판된 간행물을 갖추고 이를 상품으로 하여 소비자에 판매하는 소매업(서점업)으로 표준 산업 분류상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47611)으로 구분된다. 대규모 자본 또는 큰 유통망에 의지하지 않고 경영자의 취향대로 운영되는 소위 독립 서점은 포함된다. 다만 문구와 일부 학습 참고서 판매를 겸하거나 모객 등을 위해 물리적 공간에서



도서를 여타 업종·품목과 단순 병행하여 판매하는 업종, 소위 융·복합형 서점(매장 서적 비중 50% 이하 등)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유형은 일부 도서를 소비자에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지만 생계형 적합업종 예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본격적으로 고려하지는 않는다. 다음으로 인터넷상에서 운영되는 서점인 온라인 서점은 모두 포함하는데 표준산업분류상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으로 구분된다. 표준 산업 분류상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이 아닌 중고 도서를 판매하기에 기타 중고 상품 소매업(49869)으로 분류되는 중고 서점은 도서 구입 수요를 지역에서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끝으로 각종 서적, 정기간행물, 잡지 등 인쇄 기록물을 임대하는 사업체인 서적 임대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 내용적 범위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크게 5가지로 나뉜다. 2장에서는 서점업 현황 및 정책을 정리한다. 현황 정리를 통해 서점업을 분류하고 도서 유통 시장의 현황을 파악한다. 서점업 정책 현황을 유형화하고 서점업 보호 정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범위와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제도 효과성 분석을 위한 가설을 설정한다.

3장에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서점 유형별 인식을 파악하고 제도 적용 대상을 분류한다. 이해 관계자를 통해 확보한 서점 운영상 위협 요인 및 경쟁 관계 등에 대한 정보는 분석 모형 설정, 제도 적용 대상과 범위 파악, 제도 개선 사항 발굴에 활용한다.

4장에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의 「전국 사업체 조사」 자료와 대형 서점(대기업 서점, 중고 서점) 출·폐점 현황 자료를 연계해 대형 서점 출점이 소매 서점 수와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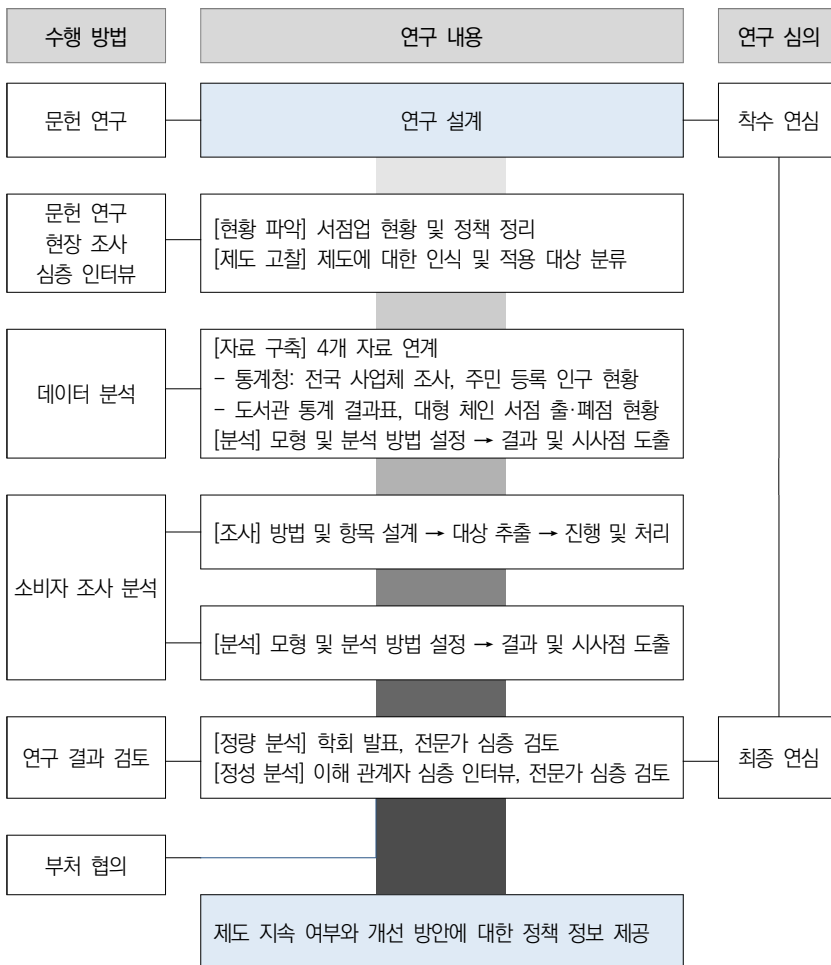
5장에서는 서점 관점에서 분석한 4장의 결과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관점에서 대형 서점의 출·폐점 효과를 분석한다. 최근 1년 내 대기업 서점이 출·폐점한 지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현재와 1년 전 도서 구입 현황, 지역 내 대기업 서점의 출·폐점에 대한 의견, 서점 이용 행태 및 독서 현황을 파악해 소비자 관점에서 대기업 서점 출·폐점의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대기업 출·폐점이 도서 구매 수요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향후 도서 구입 수요는 어떻게 될 것인지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끝으로, 6장에서는 이상의 논의에서 도출한 결과를 정리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여부 검토 방향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정책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 2. 연구 방법

연구는 문헌 연구 및 자료 분석, 이해 관계자 심층 인터뷰 및 관련 전문가 자문 회의, 데이터 기반 효과성 분석, 소비자 조사 기반 효과성 분석 등의 연구 방법론을 활용하고 연구 결과의 정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연구 결과 검토 과정을 거쳤다.

[그림 1-1] 연구의 수행 방법 및 과정



소상공인 서점 지원 정책 효과 분석

제2장

## 서점업 및 지원 정책 분석



# 제1절 서점업 현황

## 1. 일반 현황

전국의 서점 수는 2021년 기준 2,528개로, 서점 수의 변화 추이는 <표 2-1>과 같다. 2011년 2,577개로 집계된 이후 격년마다 7~9%씩 감소하다가,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이후인 2017년 8.6% 증가, 소규모 서점들이 급격히 증가한 2021년 9%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표 2-1> 전국 서점 수 변화

연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서점 개수	2,577개	2,331개	2,165개	2,351개	2,320개	2,528개
증감률	-9.5%	-9.5%	-7.1%	+8.6%	-1.3%	+9%

주: 2021년 서점 수 증가는 모집단 서점 수집 방법과 서점 수록 기준의 변화, 코로나 상황에서도 나타난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서점 개점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자료: 한국서점조합연합회(2022). 「2022 한국서점편람」.

2021년 기준 전체 오프라인 서점의 90.6%는 개인 사업체이며, 소매 전업 서점이 89.2%, 도·소매 겸업 서점이 10.8%이다. 서점 형태의 체인 서점 여부는 단일 점포가 97.2%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서점 유형은 종합 서점 62.9%, 전문 서점 34%, 서점 외 겸업하는 경우가 3.1%이다. 취급하는 도서의 분야별 비율은 초중고 학습 참고서가 34.1%로 가장 높았고, 일반 단행본이 28.9%, 특정 분야 및 기타가 18.6%, 아동(전집, 단행본)이 11.8%, 대학 교재·수험서가 4.8%, 잡지 1.8% 순이었다(한국출판산업진흥원, 2022b).

〈표 2-2〉 전국 서점 세부 유형 비중(2021년 기준)

서점 유형	서점 세부 유형	비중
종합 서점	종합 서적 판매(학습지 및 참고서 판매 포함)	51.1%
	종합 서적 판매(학습지 및 참고서 미판매)	11.8%
전문 서점	종교서 전문 판매	11.8%
	초중고 학습 참고서 위주 판매	10.4%
	아동서 전문 판매	4.5%
	대학 교재/수험서 위주 취급/판매	2.1%
	그 외 특정 분야 전문 판매	5.2%
서점 겸업	도서 이외 상품 판매 위주	2.9%
	그 외 기타 겸업 형태	0.3%

자료: 한국출판산업진흥원(2023). 「2022 출판산업 실태조사」.

2022 출판 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오프라인 서점(대형 서점, 중소형 서점 포함)의 매출액 규모는 약 1조 4,155억 원이며, 온라인 서점은 약 2조 3,234억 원이다. 오프라인 서점의 매출 규모가 지난 5년간 큰 변화가 없던 반면 온라인 서점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6년 대비 60% 가까이 매출 규모가 성장했다. 종사자 규모는 2021년 기준 오프라인 서점이 7,414명, 온라인 서점이 5,047명으로 조사되었다.

〈표 2-3〉 출판 유통 사업체 매출액 및 종사자 수 추이

(단위: 백만 원, 명)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매출액	도매·총판	839,664	791,275	789,652	788,913	707,750	1,041,298
	오프라인 서점	1,384,241	1,308,984	1,269,198	1,258,213	1,162,578	1,415,517
	온라인 서점	1,369,698	1,484,595	1,566,285	1,614,892	1,904,318	2,323,392
	전체	3,595,619	3,586,871	3,627,153	3,664,037	3,776,666	4,782,228
종사자 수	도매·총판	2,823	2,684	2,681	2,675	2,648	3,265
	오프라인 서점	6,328	6,153	6,117	6,083	6,028	7,414
	온라인 서점	3,086	3,162	3,175	3,189	3,269	5,047
	전체	7,203,475	7,185,741	7,266,279	7,340,021	7,565,277	9,580,182

자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2023b). 「2022 출판산업 실태조사」

2022 출판 산업 실태 조사(714개 표본)에 따르면 오프라인 서점은 50평 미만의 소형 서점 비중이 가장 높으며, 전체 서점의 매장 평균 면적은 334.1m<sup>2</sup>(약 101.2평)이다. 서점별 매출액 규모는 대부분 5억 원 미만에 집중되어 영세한 사업체 비중이 높은 산업임

을 알 수 있다. 특히 지역 서점은 연 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인 지역 서점이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한국출판산업진흥원, 2022a). 종사자 규모가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서점은 92%로 오프라인 서점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표 2-4〉 오프라인 서점 현황(2021년 기준)

서점 유형		사례 수	매장 규모	사례 수	매출액 규모	사례 수	종사자 규모	사례 수
종합 서점	소형 서점 (50평 미만)	305 (43%)	50평 미만	519 (73%)	1억 원 미만	222 (31%)	1~2인	566 (79%)
	중대형 서점 (50평 이상)	144 (20%)	100평 미만	125 (18%)	5억 원 미만	318 (44%)	3~4인	90 (13%)
학습 참고서 주력 서점		85 (12%)	200평 미만	37 (5%)	10억 원 미만	98 (14%)	5~9인	45 (6%)
기타 분야 전문 서점		180 (25%)	200평 이상	33 (4%)	10억 원 이상	76 (11%)	10인 이상	13 (2%)

주: 714개 표본에 대한 각 오프라인 서점 유형별(서점 유형별 매장 규모별, 매출 규모별, 종사자 규모별) 비중을 나타냄  
 자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2023b). 「2022 출판산업 실태조사」

대형 서점의 매장 수는 2014년 51개에서 2021년 139개까지 증가, 연평균 15.4% 증가율을 보였다. 2014년과 2021년 교보문고 수는 각각 13개, 37개로 연평균 16.1%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영풍문고는 19개, 44개로 연평균 12.7% 증가하였다. 최근 8년간 알라딘은 19개에서 51개 매장 수가 증가했으며, 2014년 오프라인 매장이 없던 예스24는 2021년 현재 7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표 2-5〉 대형 서점 매장 수 추이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교보문고	13	17	27	32	34	35	36	37
영풍문고	19	20	25	33	41	44	45	44
알라딘	19	21	29	39	42	45	45	51
예스24	0	1	3	6	6	8	7	7
합계	51	59	84	110	123	132	133	139

주: 매장 수 환산은 교내 운영 중인 대형 서점을 제외한 수치로 각 연도 기간과 상관없이 영업한 서점을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서점조합연합회(2022). 「2022 한국서점편람」. 주요 서점 출·폐점 정보

독립 서점 매장 수는 2015년 97개에서 2022년 815개까지 증가, 연평균 35.5% 증가율을 보였다. 독립 서점 매장 수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누점 등록 대비 폐점 비율도 2015년 4%에서 2022년 21%로 증가했다.

〈표 2-6〉 독립 서점 매장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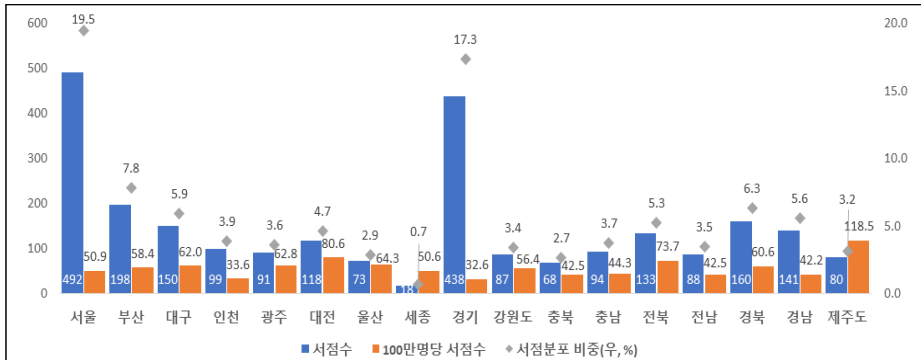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운영 중 독립 서점 수	97	180	283	416	551	634	745	815
누적 휴·폐점 수 (A)	4	6	25	50	99	127	181	216
누적 등록 수 (B)	101	186	308	466	650	761	926	1,031
A/B(%)	4.0	3.2	8.1	10.7	15.2	16.7	19.5	21.0

자료: 동네책장(2023). 「동네서점 트렌드 보고서」.

## 2. 지역별 현황

2021년 기준 지역별 서점 수를 살펴보면, 전체 서점 수의 약 37%가 서울·경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인구 100만 명당 서점 수는 제주가 118개(인구수 675천 명), 전북이 73.73개(인구수 1,804천 명)로 가장 많고, 인천이 33.64개(인구수 2,943 명), 경기도가 32.62개(인구수 13,427천 명)로 가장 적다.

〈그림 2-1〉 지역별 서점 수 현황(2021년 기준)



자료: 한국서점조합연합회(2022). 「2022 한국서점편람」 재구성

대형 서점은 주로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 중심으로 입점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 대형 서점의 약 58.1%가 입점해 있다. 인구가 적고, 인구 밀도가 낮은 강원도와 제주 지역에는 대형 서점이 한 개도 입점해 있지 않으며, 세종은 1개, 울산, 충북, 경북 지역에도 2개씩만 입점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독립 서점은 수도권과 이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에 약 59.5%의 독립 서점이 분포해 있으며, 대기업 서점이 없는 강원과 제주 지역은 상대적으로 독립 서점의 비중이 높으며, 울산은 독립 서점 수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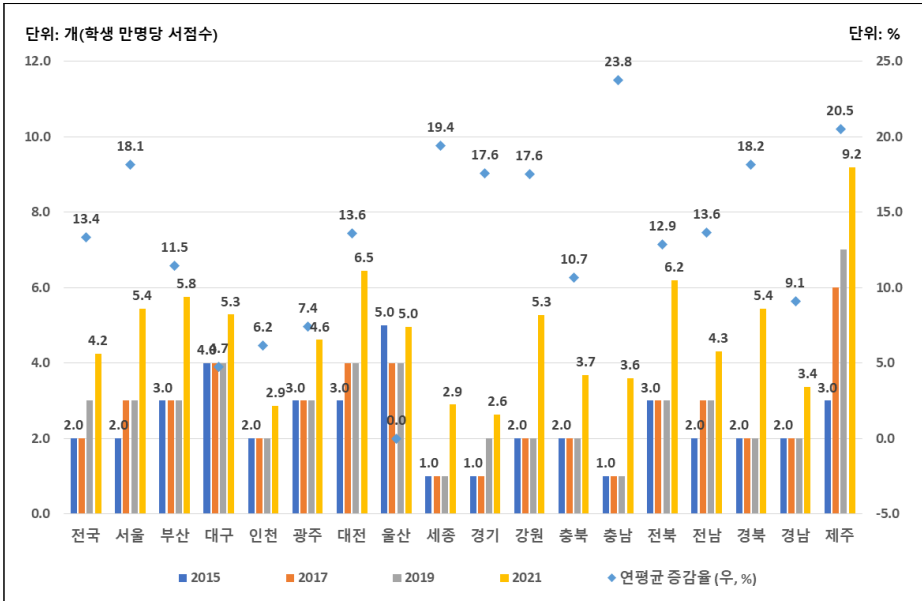
〈표 2-7〉 대형 서점 및 독립 서점 지역별 분포

	대형 서점						독립 서점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에스24	합계	비중	합계	비중
서울	17	13	19	2	51	35.7	248	30.4
부산	4	5	4	2	15	10.5	38	4.7
대구	2	1	3	1	7	4.9	29	3.6
인천	2	2	4	0	8	5.6	102	12.5
광주	1	1	2	0	4	2.8	18	2.2
대전	1	2	2	0	5	3.5	22	2.7
울산	1	0	1	0	2	1.4	5	0.6
세종	1	0	0	0	1	0.7	7	0.9
경기	7	10	14	1	32	22.4	135	16.6
강원	0	0	0	0	0	0.0	30	3.7
충북	0	1	1	1	3	2.1	14	1.7
충남	1	0	1	0	2	1.4	17	2.1
전북	2	0	1	0	3	2.1	31	3.8
전남	0	3	0	0	3	2.1	18	2.2
경북	0	2	0	0	2	1.4	26	3.2
경남	1	1	3	0	5	3.5	24	2.9
제주	0	0	0	0	0	0.0	51	6.3
계	40	41	55	7	143	100.0	815	100.0

자료: 각 대형 서점 홈페이지에 명시된 지점 위치 기반 환산('23년 8월 기준), 동네책장(2023), 「동네서점 트렌드 보고서」, ('22년 12월 기준)

2022 출판 산업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서점의 주요 고객층 1위는 청소년(중고생)으로, 46.8%를 차지한다. 이후 중장년 30.5%, 청년(대학생, 취업 준비생) 14.6%, 어린이(유아동, 초등학생) 19.0%, 노인 6.2%순이다. 서점의 주요 고객이 청소년인 이유는 초중고 학습 참고서가 서점의 주요 상품군(34.1%)이기 때문이다(한국출판산업진흥원, 2022b). 그러나 학령인구 수가 감소함에 따라 학생 대비 서점 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인구수가 적은 지역일수록 가파른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2-2] 학생 대비 서점 비중



주: 서점은 2021년 기타 서점, 프랜차이즈, 대학 구내 서점 포함함 전국 서점 집계/학생 수는 유치원·초등·중등·고등 집계  
 자료: 한국서점조합연합회(2022), 「2022 한국서점편람」.

## 제2절 서점업 지원 정책 현황

### 1. 보호정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정부는 1979년 고유 업종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특정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신규 시장 진입을 금지해 오다 2006년 이를 폐지하였다. 제도 폐지 이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대기업 계열사는 총 477개 증가하였는데, 이 중 80% 이상은 소규모 영세 소상공인이 영위해 온 사업 영역으로, 대기업의 진출이 소상공인의 시장 매출과 점유율 하락, 경영 환경 악화를 야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sup>5)</sup>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은 주로 자본이나 기술보다 단순 노무 투입이 많아 부가가치 창출이 낮고, 소규모 사업체의 점유율이 높으며 진입 장벽이 낮은 '생계형' 업종으로, 정부에서는 대부분 가족 구성원이 중심인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함으로써 가계 부채 및 실업 문제, 저소득층 증가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국가 재정 부담 및 사회적 비용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법 제도 마련을 추진해 왔다.

2006년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법률에 따라 동반성장 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논의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 분야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규제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을 사회적·경제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맥락 속에 2018년 6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은 영세 소상공인의 자생력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존권을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서점업(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의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5)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은 “제조업 및 농림어업, 건설업 분야는 90개(18.9%) 증가한 반면, 생계형 소상공인이 주로 영위하는 분야에서는 387개(81.1%)가 증가하여 대부분 소상공인 사업 영역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을 제정 이유로 들고 있다.

법률」에 의해 2013년 3월 소상공인 지역 서점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되었다. 이로 인해 대기업은 3년간 서점업에 새로 진입하지 않도록 권고되었고, 기존의 대기업 서점들은 학습 참고서 판매 부수를 확장하지 못하고 동결되었으며, 신규 지점을 출점하는 경우라도 1년 6개월간은 학습 참고서를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 2016년 3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간 종료 후 서점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되었다. 대기업의 신규 진입 자제 및 대기업이 신규 진입하는 경우 1년 6개월간 학습 참고서 판매 금지 규제가 동일하게 규정되었다. 2019년 2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기간 만료 후, 서점업은 2019년 10월 4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생계형 적합업종 제1호로 지정되어 10월 18일부터 5년간(2024년 10월 17일 까지) 대기업의 진입이 규제됨으로써 중소형 서점의 영업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표 2-8〉 중소기업 적합업종 vs.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세부 사항 비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상생협력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생계형 적합업종법)
시행 기간		• 2011년 9월~현재	• 2019년 10월~현재
제도 취지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합리적 역할 분담	• 영세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보호 대상		• 중소기업 형태의 사업 영위가 적합한 업종	•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
운영 체계	주체	• 동반추(민간) 합의·의결	• 동반추(민간) 추천 정부 지정·고시 및 보호
	지정	• 당사자 합의 도출	•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 위원회 심의 의결 → 중기벤처부 장관 고시
	기간	• 한시적(3년 + 3년 이내) - 권고 기간 및 회수는 합의로 운영	• 5년(지정 기간 후 재심의 가능)
대기업 참여 제한		• 진입 자제, 확장 자제, 사업 축소, 사업 이양(철수) (업종별 특성 반영)	• 인수·개시 또는 확장 금지 (소비자 후생, 관련 산업에의 영향 등을 고려 예외적 사업 승인 가능)
이행 강제력		• 미이행 시 공표(동반 성장 위원회) - 단, 2회 이상 미이행 시 사업 조정 신청, 사업 조정 심의 후 미이행 시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내 벌금 부과 가능)	• 위반 시 벌칙 - 2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 원 이내 벌금 부과 • 시정 명령 → 공표 → (위반 지속 시) 이행 강제금 부과·징수 - 위반 관련 매출액 5% 이내

〈표 2-9〉 서점업 관련 대기업 규제 정책 변화 과정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시행일	2013. 3.	2016. 3.	2019. 10. 18.~
대기업 규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진입 자제</li> <li>• 기존 서점 학습 참고서 판매 부수 동결</li> <li>• 신규 진입 시 학습 참고서 판매 금지(1년 6개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진입 자제</li> <li>• 신규 진입 시 학습 참고서 판매 금지(1년 6개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출점 연 1개 허용</li> <li>• 신규 진입 시 학습 참고서 판매 금지(3년)</li> </ul>
법적 효력	권고	권고	강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는 실태 조사, 전문가소비자 의견 수렴, 대-소상공인의 상호 협의 결과, 동반 성장 위원회의 추천 의견 등을 종합하여 심의하게 되는데, 서점업의 경우, 소상공인이 약 90%에 달하는 소상공인 중심의 업종으로, 사업체의 평균 매출, 영업이익, 종사자 임금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영세했으며, 대기업 서점의 급격한 사업 확장과 이에 따른 인근 소상공인 서점의 매출 감소 및 폐업이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관철되었다. 따라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공고 후 5년(2019.10.18. ~ 2024.10.17)간 영세 소상공인 서점은 보호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게 되었다. 영세 소상공인 서점이란, 매장, 매대 등 물리적 공간에서 서적(도서) 등 인쇄·출판된 간행물을 갖추어 놓고 이를 상품으로 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업을 지칭한다.<sup>6)</sup>

〈표 2-10〉 서점업(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기업 규모 분류 기준

구분	연간 매출액 규모
대기업	연간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인 기업
중소기업	연간 매출액 1,000억 원 미만인 기업
소기업	중소기업 중 연간 매출액 50억 원 미만인 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기업

규제로 인해 대기업은 서점업과 관련한 사업 인수, 개시 및 확장이 금지되었다. 다만, 대기업의 신규 서점은 1년에 1개씩만 출점이 허용되며, 기존 서점이 폐점한 후 동일 사·

6)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이나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로, 도소매,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기업을 말한다.

근구 또는 반경 2km 이내의 인근 지역으로 이전 출점하는 경우는 신규 출점으로 보지 않는다. 또, 영세 소상공인 서점의 주요 취급 서적이 학습 참고서임을 감안하여<sup>7)</sup>, 신규 출점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3년간 초·중·고 학습 참고서 판매가 금지된다. 전문 중견 기업 서점의 경우에는 출점 수가 제한되지는 않으나, 신규 출점 시에는 대기업과 동일하게 3년간 학습 참고서를 판매할 수 없다.

카페 등 타 업종과의 융·복합형 서점은 서점으로 보지 않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사업장의 6개월 평균 매출 중 서적 등의 매출 비중이 50% 미만이고 서적 등의 판매 면적이 1,000㎡ 미만이며, 학습 참고서를 취급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규제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 위반 매출의 5% 이내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의 경제적 주체로서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법되었으나, 특정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는 해당 산업의 사업자 간 경쟁 동기를 축소하여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이로 인한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서점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소상공인 서점에 대한 보호와 출판·도서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후생의 법익이 충돌할 수 있는 사안으로, 2024년 서점업 지정 기간 만료를 앞둔 시점에 제도로 인한 효과와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 및 지속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 가격 정책: 도서정가제

도서정가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도서 할인율을 제한하여 무분별한 도서 할인 판매를 방지하고 지역 내 소규모 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또한, 서점의 임의적인 할인으로 도서 가격 경쟁이 과열되어 고급 서적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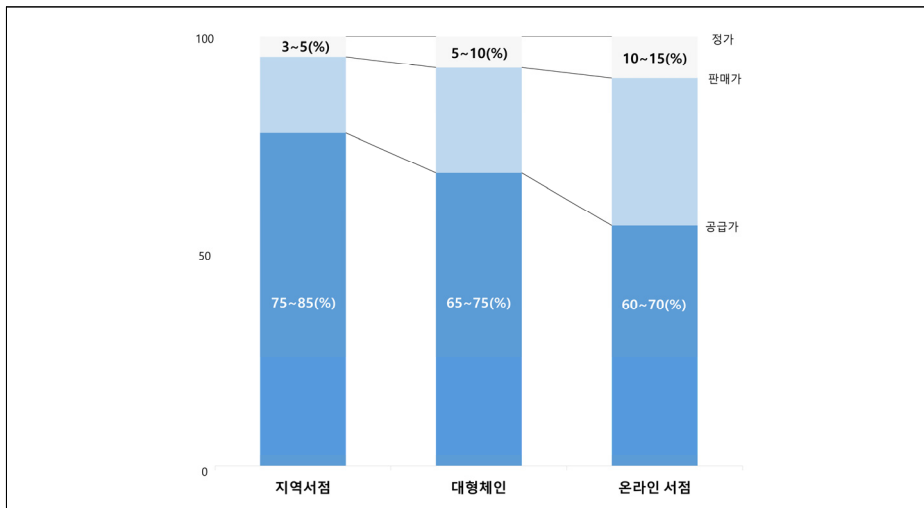
2003년 2월 「출판 및 인쇄 진흥법」에 따라 처음으로 법정 의무화되었으며, 온라인

7) 2022년 지역 서점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역 서점의 도서 분야별 연평균 비치 비율은 학습 참고서(37.4%)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일반 단행본(34.4%), 유·아동 도서(10.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1년, 2022년 판매 유형별 매출 비율을 보면 2021년에는 학습 참고서 43.5%, 일반 단행본 43.2% 순으로, 2022년에는 일반 단행본 43.6%, 학습 참고서 43% 순으로 나타났다(한국출판산업진흥원, 2023a).

서점은 출간 1년 이내의 신간 도서를 10%를 할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온라인 서점으로 이동하여 오프라인 서점 폐점이 늘자, 2007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의해 신간 도서의 범위가 18개월 이내로 수정되었으며,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신간 도서 10% 할인을 할 수 있게 바뀌었다. 이후 2014년 11월 신간뿐 아니라 모든 도서를 정가의 10%까지 할인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 11월 21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서정가제는 10% 가격 할인에 마일리지 적립 등의 간접 할인을 5%까지 허용하여 최대 15%까지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서정가제의 개정으로 법적으로는 서점들이 유형에 관계없이 공정 경쟁이 가능한 구조가 되었으나, 도매업과 서점과의 관계에서 도서를 공급가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대기업 체인서점과 중소형 서점 등 서점 간 불균형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온라인 서점은 출판사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책을 받아오기 때문에 15% 할인을 적용해도 이윤이 보장되지만 일반 서점은 도매상을 거치며 공급가가 오르기 때문에 할인을 적용하면 이윤이 남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 따르면, 2014년 도서정가제의 개정 이후 온라인서점은 10% 할인 + 5% 마일리지, 대형 체인서점은 5% 마일리지, 지역 서점은 3~5% 마일리지를 평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림 2-3] 도서 공급률(공급가) 일반 현황



자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자료

### 3. 지원 정책

#### 가. 중앙정부 지원 정책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23년 4월 제5차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2022~2026)을 통해 4대 전략 12개 과제를 발표했다. 전략2 ‘어디에나 있는 책’은 지역의 출판 산업 발전을 위한 내용으로, 지역 서점 경쟁력 강화, 출판 유통 고도화, 지역 출판 활성화를 세부 과제로 두고 있다. 지역 서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추진 내용으로는, 지역 서점이 문화 공간으로 기능하고 책 경험 공간을 고도화하기 위한 노후 지역 서점 시설 개선 지원이 포함되었다. 또, 지역 내 독서 문화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북 콘서트, 독서 모임 등 문화 활동 개최를 지원한다. 지자체의 지역 서점 활성화 조례 제정을 독려하기 위한 표준 조례안을 제안하고, 도서관의 지역 서점 우선 구매 독려 및 도서관-지역 서점 협력 프로젝트 등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서점 포털사이트 ‘서점ON’의 활성화를 통해 전자 출판 DB, 대한출판문화협회 납본 도서 DB 등과 연계 및 지역 서점 통합 전산망을 구축, 지역 서점 양서 유통 확산 및 신간 유통 도서의 품질 향상을 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출판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두고 있다.

#### 나. 지방정부 지원 정책

서점은 책이라는 상품을 파는 동시에 문화적·교육적인 공간이기에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 서점 감소와 운영의 어려움 해소 등을 위한 개입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역 서점 진흥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지역 서점 지역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 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 것은 서울시(2016.7)가 최초이며 이후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되어 현재는 모든 광역 자치 단체에서 시행 중이다. 조례는 지역 서점 진흥 목적, 지역 서점의 정의와 범위, 지역 서점 위원회 설치, 소상공인 지역 서점 우대정책, 지역 서점 지원 계획, 지원 사업, 지역 서점 우선 구매 정책, 지역 서점 인증제 등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한 조항 등으로 구성된다. 지방 자치 단체들은 지역 서점 활성화 조례 제정을 통해 소상공인 우선 지원, 지역 서점 인증제 등 다양한 지역 서점 지원 사업 운영 중이며, 지자체마다 등록 기준이나 구매 방식, 운영 중인 지원 사업 등이 다르다.



〈표 2-11〉 지역 서점 조례 현황 및 주요 내용 비교

구분	제정일	정의		소상공인 우선	지원 사업 명시	위원회 설치	우선 구매 제도	인증제	도서 정가제 정착
		매장	규모/기간						
서울	16.07.14	○	중소기업	○	○	○	○ (21.03)		
부산	16.09.21	○		○	○	○			
경기	16.11.08	○	중소기업, 1년 이상	○	○	○ (19.08)	○	○ (23.08)	○
인천	16.12.30	○	소상공인	○	○	○			
광주	17.01.01	○	6개월 이상		○	○	○	○ (23.02)	○
전북	17.04.14	○			○	○ (22.11)	○		
대구	17.08.19	○	10인 미만 중소형 서점		○	○	○ (19.12)		
경북	17.09.18	○		○	○				
전남	17.11.02	○	소상공인	○	○	○	○ (20.10)	○ (20.10)	
제주	18.04.04	○	소기업	○	○	○	○		
울산	18.11.08	○		○	○	○		○	
충남	19.07.10	○	소상공인, 1년 이상	○	○	○	○ (20.10)	○ (21.03)	
대전	19.10.18	○		○	○	○	○ (20.10)		
경남	21.05.03	○	소상공인	○	○	○	○		
충북	21.02.10	○	소기업	○	○	○	○	○	
강원	20.12.31	○	소상공인	○	○	○	○	○	○
세종	21.09.24	○	소상공인	○			○		

자료: 이용관(2022b), 지역 서점 진흥 정책 효과 분석, 재가공

조례에서 규정하는 주요 지원 제도 중 하나는 지역 서점 우선 구매 제도이다. 지역 서점 우선 구매 제도는 도서관 등과 같은 공공 기관에서 도서를 구매할 때 해당 지역의 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하는 제도이다. 2014년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의 개정으로 공공 기관의 도서 구입 시에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면서 지역 서점도 도서관에 도서를 납품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지역 서점은 수익성이 개선되고 지역 서점과 공공 기관은 상생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이용관, 2021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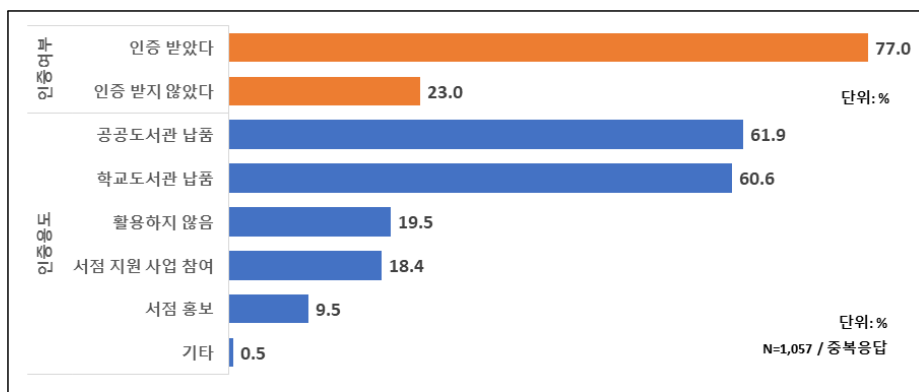
지역 서점 인증제는 조례를 통한 지원 사업 등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로, 실제로는 영업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를 가려내기 위한 인증 제도이다. 실제 해당 지역에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지,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인지, 다른 업종과 겸업하는 경우더라도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 도서 판매 매출인지 등의 요건을 확인한다. 인증을 받은 서점을 대상으로 공공 기관 우선 구매 권장, 도서 구매 캐시백, 문화 활동 지원 등의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2022 지역 서점 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서점의 약 77%가 지역 서점 인증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인증서의 용도는 공공 도서관 납품(61.9%), 학교 도서관 납품(60.6%) 등 우선 구매에 주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2〉 지역 서점 활성화 조례 제정으로 인한 지원 제도 사례

구분	소상공인 우선 지원	지역 서점 인증제
목적	- 지역 서점의 경쟁력 강화 지원	- 지역 서점의 경쟁력 강화 지원
보호 대상	- 소상공인 중에서 지역 서점 운영에 전념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 제공	- 지역 내 주소와 방문 매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서점 - ▲지역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서점,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서점,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 ▲다른 업종과 겸업하지 않으며, 겸업하는 경우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 도서 판매를 통한 금액인 서점
지원 내용	- 지역 서점의 임대료 지원, 인건비 지원, 서점 운영자들의 직업 훈련 및 교육 지원, 도서 구매를 위한 자금 지원 등	- 인증서점 도서 구매 캐시백 지원 사업(공주시), 학교·공공 기관 도서 우선 구매 권장(광주시), 인증서점 문화 활동 지원(경기도) 등 다양한 지원 사업 운영
근거 법	- 지방 자치 단체 조례 제정	- 지방 자치 단체 조례 제정

〈그림 2-4〉 지역 서점 인증제 활용도



자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2023a). 「2022 지역 서점 실태 조사」

#### 다. 협단체 지원 정책

서점업 관련 협단체에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작가회의는 〈작가와 함께 하는 작은 서점 지원〉 사업을 통해 문학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필요한 중소형 서점(문학 거점 서점)과 문학 작가에게 사업비를 지원하고, 지역민 문학 진흥 및 일자리 창출, 작은 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서점조합연합회의 〈오늘의 서점〉 사업은 중소형 서점의 저자 초청 강연회, 독서 토론회, 독서 모임, 책 읽어주기, 시 낭송, 북 콘서트, 원데이 클래스 등 문화 활동 지원비와 서점주 활동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 서점 역할 강화를 통한 지역 주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 서점의 경영 역량 강화를 꾀하고 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서점조합연합회의 〈심야 책방〉 사업은 지원금을 통해 전국의 서점들이 정규 개점 시간을 연장해 서점 영업 종료 후 각 서점마다 이벤트를 진행하여 독자들을 초대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지역 서점에 관심을 갖고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독자들이 지역 서점을 문화 복합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소상공인 서점 지원 정책 효과 분석

제3장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의견 조사와 적용 대상 분류



# 제1절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의견 조사

## 1. 조사 개요

서점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각 유형별 서점 간 의견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통해 서점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심층 인터뷰는 총 9회에 걸쳐 서점의 규모에 따라 일차적으로 분류한 중형 서점, 독립 서점, 대형 서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제도의 직접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중형 서점을 중점으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독립 서점, 제도로 인해 규제를 적용받는 대형 서점의 의견까지 청취하고자 했으며, 자문 내용에 대한 집단별 대표성을 일정 수준 담보할 수 있는 협회 및 단체<sup>8)</sup>를 포함했다. 심층 인터뷰 대상 구성은 <표 3-1>과 같이 정리했다.

<표 3-1> 심층 인터뷰 대상 구성

구분	지역	서점 운영 기간	회의 일자	표기
중형 서점	서울	29년	23.06.23	A
	서울	21년	23.06.16	B
	경기	30년	23.06.22	C
	경기	8년	23.09.07	D
	경기	5년	23.09.08	E
	대전	28년	23.09.07	F
	충남	20년	23.09.07	G
	충북	31년	23.06.19	H
	경북	16년	23.06.19	I

8)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전국 서점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지역별 서점 조합이 연합한 단체로, 중형 서점, 독립 서점 및 학교 앞 서점을 포함하여 약 2,000여 개 서점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한국서점인협의회는 전국 40여 개 중형 지역 서점의 연합으로, 지역 거점 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전국동네책방네트워크는 전국 130여 개 서점이 가입되어 있으며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는 동네 책방들의 느슨한 형태의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단체이다.

구분	지역	서점 운영 기간	회의 일자	표기
독립 서점	경기	7년	23.06.01	J
	대구	11년	23.08.29	K
	대전	12년	23.09.08	L
	강원	5년	23.06.07	M
	전북	6년	23.06.05	N
대형 서점	전국 체인	-	23.07.12	O
	전국 체인	-	23.08.17	P
협·단체	전국 대상	-	23.06.23	A
	전국 대상	-	23.06.16	B
	전국 대상	-	23.06.19	H
	전국 대상	-	23.06.01	J
	전국 대상	-	23.06.02	Q

심층 인터뷰는 반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였으며, 크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의 영향, ▲서점 운영상의 위협 요인 및 경쟁 관계, ▲서점의 역할 및 이용자 후생에 대한 의견, ▲서점 지원 정책 수혜 사항 및 수요, ▲서점 유형 분류에 대한 의견, ▲서점업 시장 전망의 6가지 질문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다.

## 2. 조사 결과

### 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의 영향

#### 1) 중형 서점

중형 서점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많았다. 가장 큰 이유는 제도가 부재할 경우 대기업 진출로 인한 영업상 타격이 크다는 인식이었다. 과거에는 대형 서점 출점 시 그로 인한 영향으로 주변 서점이 폐점하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제도로 인해 3년 동안은 지역 서점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대기업 서점 인근에 위치한 서점은, 대기업 서점 입점 이후 일반도서와 아동문고의 매출이 저하된 반면, 참고서 판매 매출은 제도의 영향으로 비교적 큰 영향을 받지 않아 참고서 판매제한의 유효성의 높다고 평가했다(중형 서점 D). 또한 중형 서점들은 서점의 규모가 작은 경우 제도로 인한 영향이 더 클 수 있다고 보았다. 대기업의 대형 서점이



입점하면 다양한 책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구매자 이탈이 크다는 것이다(중형 서점 D; 중형 서점 E). 같은 맥락에서 자본이 영세한 서점일수록 보호 효과가 크다고 보았다. 중형 서점 I은 제도로 인해 서점의 매출이 실질적으로 늘지는 않았지만, '대기업 진출'이라는 개인 투자의 위협 요인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도를 통한 대기업 진입 규제는 지역 서점의 생명 연장의 의미만 있을 뿐 중형 서점 스스로도 경쟁력 강화를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다(중형 서점 B).

대기업의 신규 입점이 지역보다는 대도시 중심으로 이뤄지는 점도 지적되었다. 대기업은 시장성을 판단하여 오프라인 매대 운영의 수익성이 나오는 곳에 입점해야 하기 때문에 대도시 중심 상업 지역 외에는 출점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진다. 그런데 대기업이 수도권이나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격적으로 출점하는 경우 업계의 수직 계열화로 인해 도매업자가 대도시에서 도서를 공급하기 어려워지고 매출이 낮아지는데, 도매상의 수익 구조가 악화되면서 지역의 작은 서점들은 낮은 가격에 도서를 공급받기 어려워지거나 도매상이 부도나는 경우에는 재고 반품이 불가한 등 타격을 입게 되는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다(중형 서점 A). 대기업이 출점하지 못하는 군소 도시를 취급하는 도매상은 수익이 있어야 그 지역의 서점에 책을 공급할 수 있고, 지역의 작은 서점은 모든 출판사와 직거래 할 수 없어 도매상과의 거래가 필수적이므로, 대기업의 대도시의 출점이 지역 서점에까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 중형 서점의 경우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문화적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기업의 진입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중형 서점이 폐점했을 때, 이후 대기업이 시장성 판단 및 운영상의 이유로 서점을 이전하거나 폐점하는 경우 그 지역에는 서점이 다시 들어오기 어려워 서점 소멸 지역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대기업 서점의 입점으로 인한 매출 타격은 영향이 크지만, 대기업 서점의 폐점 시에는 학령인구 저하, 온라인 서점으로의 구매자 유입 등 외부환경 변화로 매출 회복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중형 서점 I; 중형 서점 F; 독립 서점 J; 중형 서점 G).

이 외에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이후 도매에서 관공서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는 의견이 있었다(중형 서점 H).

소수 의견으로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가 일부 지역에서의 영향 외에 전체 오프라인 서점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도서 구매 시장에서의 전반적인 오프라인 수요 감소로 대기업의 신규 지점 진출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대형 서점이

폐점했을 경우 그 자리에 다른 서점이 들어오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견이었다.

## 2) 독립 서점

독립 서점의 경우 대기업의 대형 서점과는 상품 군이 크게 겹치지 않아 수요 차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의 소상공인 보호 정책이 독립 서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었다. 대기업의 진입 규제를 풀어도 독립 서점은 자기 노선대로 영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또, 지역의 경우 대형 서점이 들어오면 해당 지역의 문화 인프라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규제보다는 시장 논리로 가는 것이 지역 상생에 도움이 되어 발전적이라는 의견이 있었다(독립 서점 M).

독립 서점의 수요시장이 대형 서점과 차별화되는 것은 대형 서점이 들어왔을 때 주변 중소형 서점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오히려 독립 서점은 주변에 많아진 경향성에서도 나타난다. 독립 서점을 찾는 소비자들도 대형 서점과 독립 서점의 방문 동기가 다를 수 있다(독립 서점 K).

다만 소매 서점들이 교보문고(도매업)<sup>9)</sup>에서 책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기업의 대형 서점이 신규 입점하면 책을 입고하는 데 경제적 타격은 있을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독립 서점 M). 규모가 작은 서점의 경우 대형 서점에 비해 신간의 도매 주문이 늦게 들어오고 공급량이 적어 대형 서점에 비해 공급 측면에서 불리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독립 서점 J). 또, 문화적으로 동네의 터줏대감 역할을 하는 중형 서점을 보호하는 것이 전체 서점업의 생태계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독립 서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독립 서점 J).

## 3) 대형 서점

대형 서점의 경우 제도로 인해 출점 가능한 신규 지점 개수가 1년에 1개로 제한이 생기면서, 출점 일자의 자율성에 대한 필요성을 호소했다. 대형 서점도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오프라인 서점 매출에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백화점 등의 대형 쇼핑몰에 서점

9) 교보문고는 도매업으로 박리다매가 가능해 공급 단가가 낮으며, 입고일이 빠르고, 바코드가 전산화되어 있어 소매 서점들의 물류 유통 다수가 교보문고를 통하고 있다(독립 서점 M).

입점 수요가 있을 때 입점 제한 기간이 맞물려 입점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제도로 인한 사업 운영상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1년이라는 입점 제한 기간에 유동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입점 제한 기간으로 인해 대형 서점의 입점이 불가능하게 되면, 판매처 감소로 인해 공급자인 출판사도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대형 쇼핑몰의 개장이 줄어들어 신규 입점지도 감소하고 있으며, 백화점의 서점 수요도 줄어드는 추세로, 현재는 대기업에 대한 출점 제한 규제가 없더라도 기업의 시장성 판단 하에 서점이 무분별하게 입점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대형 서점 O).

다른 대형 서점 P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가 현 시장 상황 하에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으나, 있으면 간접적으로라도 중형 서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었다(대형 서점 P).

#### 나. 서점 운영상의 위협 요인 및 경쟁 관계

##### 1) 중형 서점

중형 서점들은 서점 운영상의 위협 요인으로 학령인구 수의 감소와 서점업 신규 진입 이 저하된 사회적 분위기, 대기업의 진입, 진입 제한을 받지 않는 중소기업 체인 서점의 확대, 온라인 서점의 가격 경쟁력, 그리고 융복합 서점의 진출 다양화 등을 들었다. 먼저 전반적으로는 학령인구 수 감소로 인한 서점 수익성 악화와 서점업의 고령화 및 신규 진입 감소 등 서점업 자체의 침체된 분위기가 서점 운영의 위협 요인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지역 서점의 경우 참고서 판매에 대한 의존율이 높은 편으로, 참고서 구매가 단행본 매출까지 견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생 수의 감소와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안 보는 등 교과 과정의 변화로 10년 전 47~48%였던 참고서 매출 비중이 37~38% 정도로 감소하고 전체 매출도 하락하는 등 영향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중형 서점 A). 특히 학교나 학원가에 위치한 중형 서점의 경우 참고서 매출 비중은 60~70%로, 참고서 매출 의존도가 더 높은 편이었다(중형 서점 D; 중형 서점 E).

또, 대기업이 지역의 대도시에서 진출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대표 서점들은 영업에 타격을 받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일례로 특정 지역의 경우 대형 서점 입점 후 해당 지역 중형 서점의 매출이 연간 20%씩 감소했다(중형 서점 C).

새로운 위협 요인으로는 온라인 서점이 가장 위협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온라인 서

점의 새벽배송, 무료배송 등 편의성과 경제성에 유리한 서비스들이 위협적이라는 의견들이 있었다(중형 서점 D; 중형 서점 E). 온라인 서점뿐 아니라 대형 서점의 온라인 주문 서비스도 10% 할인을 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중형 서점 B). 지역 서점 입장에서는 대기업 뿐 아니라 종로서적, 아크앤북 등 중소기업의 체인 서점이 오히려 위협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협회 Q; 중형 서점 C). 다만 중고 서점의 경우 의견이 갈렸는데, 중고 서점이 일반도서 및 아동문고의 매출에 있어 큰 위협 요인이 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중형 서점 C), 중고 서점은 참고서 판매 비중 적어서 같은 상권에 중고 서점이 있어도 지역 서점의 타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이 있었다(중형 서점 D; 대형 서점 O).

용·복합 서점의 확대도 주변 서점에는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다. 도서 판매를 주 사업으로 하지 않는 다른 사업 분야의 대기업이 서점으로 진입할 가능성 등이다. 예를 들면 체인형 대형 마트에서 할인 정책으로 도서를 판매해 주변 서점이 매출에 타격을 입은 사례 등이 있었다(중형 서점 H). 또, 대형 서점이 편의점 형태 등으로 형태를 다르게 해서 입점하는 경우 지역 서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중형 서점 B). 온라인 서점이 일종의 '쇼룸' 개념으로 오프라인 매점을 입점하는 것도 가능하다(협회 Q).

## 2) 독립 서점

독립 서점은 용·복합 서점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이를테면 유명 커피 브랜드가 지역 서점과 융합하여 카페를 개점하거나, 출판사에서 카페를 개점하는 등 다른 분야의 기업이 도서를 취급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입점하는 경우이다(독립 서점 M).

중고 서점에 대한 위협도 있다. 중고 서점은 현재 신간 도서에 대한 취급이 6개월 제한되는 규제를 적용받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업계에서는 제한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독립 서점 N는 인근 지역에 대형 서점과 중고 서점이 모두 입점해 있는데, 대형 서점과는 수요 차별화가 되어 서로의 생태계를 침범하지 않지만, 중고 서점이 오히려 위협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 3) 대형 서점

대형 서점 역시 독서 인구 급감으로 인한 시장성 악화에 대한 고민이 있다. 오프라인 서점의 매출은 온라인 서점으로 인한 타격이 커 온라인 서점과는 경쟁 관계를 이루고

있다. 중고 서점의 경우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중고 서점으로 인해 오히려 선순환적으로 서점이 잘되는 경우도 있어 대립적인 관계만은 아니라는 의견과(대형 서점 O), 반대로 중고 서점의 무분별한 확장이 소비자 후생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출판 및 유통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생태계 전반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갈렸다(대형 서점 P). 중고 서점은 현재 진입 규제가 없으며, 인세 및 출판세 등에 대한 지불 의무가 없어 매출이 모두 중고 서점의 마진이 되는 등 중고 서점의 매출로 인한 이익이 출판사·저작자 등 생태계 구성원에게 분배되지 않아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함께 성장하지 않는 구조라는 것이다. 현재 신간 도서 판매 시장과의 시장 구분을 위해 신간 도서의 경우 첫 판매 6개월간 중고 서점 판매가 제한되지만 이에 대한 관리가 엄격히 이루어지지 않아 판매 제한 기간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평이다. 따라서 중고 서점이 기존 서점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있었다(대형 서점 P).

#### 다. 서점 지원 정책 수요 및 수혜 현황

##### 1) 중형 서점

서점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제도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형 서점 간 이견이 거의 없었다. 다만 지역 서점 인증제를 강화해서 지역 서점을 지원하는 근거를 체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중형 서점 A), 서점 시장 추세를 고려하여 적합업종 재지정 신청 시 대기업 진입 규제 제외 대상인 용·복합형 서점의 서적 비율 조정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협회 Q).

대기업을 규제하는 방식에 있어서 36개월간의 학습 참고서 판매 제한이 실효성 있는 지에 대해서는 서점의 규모 및 취급 서적의 비율에 따라 의견이 조금 다르게 나타났다. 규모가 작은 서점의 경우에는 학습 참고서 판매제한이 매우 유효한 보호 제도라는 의견이 주된 의견이었다(중형 서점 D; 중형 서점 E). 반면 협회 Q는 대기업 서점 인근의 참고서 취급 서점에게는 제도의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대기업의 신규 출점 유인이 크지 않은 현시점에서는 제도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내부 의견이 있으며, 그보다는 대기업과 협약을 통해 상생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코로나 이후 오프라인 서점 입점 확대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협회 Q).

필요한 서점 지원 정책에 관하여는 지원 분야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먼저 신규 서점 진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서점은 진입 장벽이 높은 업종으로 진입 장벽을 낮추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점의 신규 진입 비용은 평균적으로 서울 3~40평 기준 5억 이상이며, 진입을 위해서는 총판, 출판사 등 15~20개 정도의 도매업자와 거래해야 하고, 초기 보증 보험 등 담보가 요구된다(중형 서점 A). 반면 작은 규모의 독립 서점은 중형 종합 서점에 비해 진입 장벽은 낮으나, 도서 매출액이 높지 않으면 매입 단가가 높고, 할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출이 나오기 힘든 구조가 된다(중형 서점 B). 따라서 서점 인증제 강화 등을 통한 지원 정책과 보증 보험료 지원 등 초기 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중형 서점 A).

서점이 지역문화진흥법상 생활 문화 시설로 지정되었음에도 생활 문화 시설 인정의 혜택이나 지원이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생활 문화 시설 인증의 유지를 위해서는 월 1회 문화 행사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회당 일정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혜택이 없고 지자체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이다(중형 서점 H; 중형 서점 I). 이에 대해 생활 문화 시설로 인정된 지역 서점에서 지역 화폐로 구매하면 문화비 소득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나(협회 Q), 전기 요금 경감 등의 지원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중형 서점 A).

서점의 물류 지원도 매우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었다. 유통의 디지털 전환 및 유통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보문고 등 대기업은 도매업 진출로 도서를 대량 구매하여 공급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지역 중형 서점 등을 지역 거점 물류 센터로 활용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협회 Q), 정부 지원을 통해 서점과 공급자(총판) 사이에 통합 물류·통합 배송 인프라를 구축하여 배송비용 및 총판의 공급률을 경감해 수익을 증대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의견(중형 서점 A), 참고서의 지역권 설정 출고 담합 완화 등 유통 경로 구조 개선을 통해 대형 서점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 강화 필요하다는 의견(중형 서점 B), 중형 서점의 상생을 위해서는 소매 유통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중형 서점 H; 중형 서점 I) 등이 있었다.

또, 서점 지원 정책이 문화 행사 지원 중심으로 편중화 되어 있다는 의견도 다수였다. 중형 서점들은 문화 행사 지원 정책의 애로사항으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지원 사업 대다수가 작은 서점 지원 사업 등 독립 서점 위주이며, 참고서 주력 서점들은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인력을 고용하기에 영세하여 문화 프로그램 지원이 어렵다는 의견(중

형 서점 I),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지자체의 문화 프로그램과 경쟁하는 상황이 되어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다는 의견(중형 서점 A), 문화 프로그램이나 행사 운영으로 인해 오히려 책을 사러 온 구매자를 배제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 매출을 저해한다는 의견(중형 서점 B), 문화행사가 도서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운영비가 추가로 드는 구조이지만 지역에서는 문화 프로그램이 없어서 계속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중형 서점 I) 등이 있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행사를 꾸준히 하는 경우 서점이 성장할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문화 행사 참여자가 관련자인 경우 납품 등에 도움이 되거나 주민들이 서점에 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독자층을 확대하는 등의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중형 서점 H). 한 편으로는 문화 행사뿐 아니라 학생들이 와서 책을 고르게 하는 것이나, 책을 구매하는 행위도 문화 사업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중형 서점 A; 중형 서점 H).

지원 금액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건의되었다. 지원 금액이 지역 서점에 1/n으로 적용되면서, 작은 서점과 중형 서점의 운영비 차이가 크에도 같은 금액을 지원 받는다는 것이다. 지역에 납품을 1/n로 나누게 되는데, 예컨대 1억 원 가격의 납품을 5개 서점에 나누면 모든 서점에 2,000만 원이 기본 소득이 된다. 규모가 큰 종합 서점과 작은 서점의 운영비가 차이가 있고, 규모가 작은 서점의 경우 납품만으로도 운영을 지속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납품이 증가하고 소매가 줄어드는 등 제도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서점 지원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수혜 사례로는 우선 구매 정책이 꼽혔다. 중형 서점 D는 도서관 우선 구매로 납품이 생기면서 지역 서점들도 감소 추세가 지속되지 않고 납품으로 인해 현황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공공 구매, 납품 매출 등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B2C보다 기관에 납품하는 B2B 비중이 높은 경우도 있어(협회 Q), 서점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구매 등이 명시된 조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도서 납품의 자격요건이 되는 지역인증제의 후속조치 및 관리가 미흡하여, 납품만을 위한 페이퍼 컴퍼니 또는 실질적인 도서매출이 없는 서점 매장을 가려내기 위한 지역인증제 요건 강화 및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중형 서점 G; 중형 서점 D). 이 밖에 지역화폐로 결제 시 일정 비율 캐시백 혜택을 주는 문화소비 지원금도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지원 사례로 꼽혔다. 특히 지역화폐는 연매출 10억 이하의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소상공인 서점 운영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었다(중형 서점 D; 독립 서점 J).

한편, 서점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도서 중심의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교육 및 복지 정책과 연계한 서점업 활성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며, 서점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도 필요하다고 보았다(중형 서점 H; 중형 서점 F).

## 2) 독립 서점

독립 서점은 대기업 제한 규제보다는 독립 서점 지원 정책이 실효성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주였다(독립 서점 M). 수혜 받은 지원 정책 중 유용했던 사례로는 지역 서점 인증제, 책방 운영 지원금, 지역 화폐 캐시백, 도서관 우선 구매 등의 지원 정책 등이 거론되었다(독립 서점 J). 다만, 지역 서점 인증제의 경우 지역에 따라서는 인증을 받은 후에도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없어 수혜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독립 서점 M).

필요한 지원 정책으로는 안정적인 유통 및 온라인 서점과의 공급량 차이 완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문화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 다양화가 필요한데, 사단법인 한국작가회의에서 작은 서점 3개를 연계하여 지원하여 거점 서점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실효성 있다고 평가했다(독립 서점 J). 한편, 문화 행사 지원 정책이 서점의 생존을 지원하기 보다는 소비형 지원 정책이 많고 행정 비용이 크다는 의견도 있었다. 지원금에는 서점 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받는 행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문화 행사를 통해 소비자 모객이 많이 되어야 서점이 생존할 수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었다(독립 서점 M).

또, 일시적인 도서 구매비용을 보전하는 정책은 단기적이며 제 값을 주고 도서를 구입하는 수요를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장기적으로 지역에 서점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완전정가제 시행과 금융비용 절감 및 자산화 등 지역 서점의 가격경쟁력 제고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서점이 도서 생태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여 관련 성공사례를 창출·확산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것을 제언했다(독립 서점 L).

## 3) 대형 서점

대형 서점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의 개선안으로, 신규 지점 출점 개수 및 기간



을 일정기간 내 일정 개수의 형태(1년에 2개, 5년에 10개 등)로 수정하여 출점 제한 기간에 유동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점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서점에 대한 물류 유통 지원도 필요하다고 인식했다(대형 서점 O). 또, 특정 유형의 서점을 대상으로 규제하거나 진흥하는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하며, 특히 실제 도서를 유통·판매하고 있으나 서점업으로 분류가 안 되는 업종과 서점업과의 경쟁관계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대형 서점 P).

## 라. 서점의 역할 및 소비자 후생에 대한 의견

### 1) 중형 서점

중형 서점들은 서점의 역할로서, 먼저 종합 서점이라는 공간적 인프라에서 도서를 고르고 구매하는 본질적 행위 자체가 서점 문화라고 보는 시각이 다수였다. 서점은 문화 사업으로서 주민들은 서점의 공간이 건전하고 주민 정서상 필요한 공간이라고 인식하는 등 서점은 그 자체로 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중형 서점 B). 이는 북 토크 등 한정된 독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행사가 아닌 책을 만나는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의미한다. 특히 지역에는 참고서 중심의 서점 외 종합 서점 자체가 많지 않으며, 서점 공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이슈라고 보았다. 수도권 외 인구 100만 이하의 지역은 서점 문화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중형 서점 I). 서점은 독서 인구의 거점이 되어 준다는 측면의 문화적 기여도 하는데, 수도권 서점의 경우 폐점하게 되면 약 20%는 근처 서점으로 흡수되고 나머지는 온라인 서점으로 이동하거나 소멸되는 경향을 띤다는 의견이 있었다(중형 서점 C).

또, 서점의 궁극적인 소비자 후생은 편의성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소비자에게는 문화 활동보다 원하는 책을 원하는 시간에 구매 가능한지에 대한 편의성이 중요하므로 물류 시스템을 잘 갖춘 서점이 소비자 후생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중형 서점 B). 참고서 판매 제한으로 인해 대형 서점에서 참고서를 구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이는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소비자가 원하는 책을 바로 구매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협회 Q).

중형 서점은 연간 6만 여종 출간되는 신간의 트렌드를 보여줄 수 있는 공간적인 의미를 가지며,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독립 서점과는 차별화된 관점의 큐레이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서점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다루고 맥락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작은 서점은 500여 종 정도 책을 점주의 취향 위주로 큐레이션 하므로 현 상황에서의 트렌드를 보여줄 수 있지만, 중형 서점은 거시적인 맥락에서의 사회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큐레이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중형 서점 H).

외국의 경우 서점의 긍정적 영향력을 인정하여 서점을 준공공재로 보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서점이 지역 사회에 제공하는 교육적, 문화적, 복지적 차원의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형 서점의 출점으로 중소형 서점이 폐업한 이후에는 대형 서점이 폐업한다고 해서 서점이 다시 생기지 않고, 서점이 생길 수 있는 토양이 없어져 소비자의 도서 접근성 떨어지고 문화적 손실이 일어난다. 따라서 주변에 다양한 서점들이 있어야 하고, 서점도 주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중형 서점 F).

## 2) 독립 서점

독립 서점은 점주의 취향이 반영되어 공급 차원의 개성이 있는 서점으로(독립 서점 M), 서점마다 차별화된 큐레이션으로 인해 우연한 기회에 예상치 못한 책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독립 서점 J). 이는 온라인 환경에서 알고리즘에 의해 다른 취향의 콘텐츠에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과 반대되기 때문에, 주로 시장성을 고려해 베스트셀러·신간 위주로 상품을 판매하는 서점에 비해 장기적으로 도서의 관점 다양성을 증진시킨다는 면에서 소비자 후생에 기여할 수 있다(독립 서점 J).

또, 동네에서 책이라는 물성을 만나는 기회를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며 지역 주민들과의 독서 토론 등 독서 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주선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독립 서점 J). 독립 서점에서의 문화 활동 프로그램은 각 서점마다 다르게 진행되어 공공 인프라에서 제공하는 획일적인 문화 프로그램과는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만의 문화를 향상하여 지역문화 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협회 Q). 대기업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반면, 지역 서점은 지역 도서관 연계, 지역 도서 기증 등 점주가 하고 싶은 사업을 자발적 동기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독립 서점 M).

### 3) 대형 서점

대형 서점의 경우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서점 공간에 대한 수요가 있음을 확인하고 서점의 역할을 문화적 인프라로 인식하고 있었다. 대형 서점이 신규 출점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문화적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소비자 후생에 기여할 수 있다(대형 서점 O).

#### 마. 서점업 시장 전망

서점업의 시장은 구매자가 온라인 시장으로 많이 떠나는 상황으로, 현재 서점들은 매장의 자가 비율이 높고 연 매출 1억 이하 매장이 다수이며, 새로 생기는 신규 지점의 경우 매장 크기가 작은 경향이 있고, 독립 서점의 경우 운영 기간이 평균 2년으로 짧아 시장의 규모가 전체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협회 Q).

대기업의 경우에도 젊은 세대의 독서 인구 급감으로 시장 자체가 위축되어 현재 출점 관련 시장 전망은 좋지 않은 상황이며, 온라인 서점도 수익성 고민으로 무료 배송 기준 가격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대형 서점 O).

독립 서점은 도서 수요가 떨어지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중대형 서점의 운영이 어려워지고 다양성 위주의 동네 책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동네).<sup>10)</sup> 서점은 주민들의 생활양식에 영향을 주고,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고 운영을 하는 구조로 발전할 것이기에 이러한 특성과 구조를 가진 서점을 중심으로 점차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독립 서점 L)

#### 바. 서점 유형 분류에 대한 의견

서점은 ‘참고서와 단행본을 모두 취급하는 서점’, ‘참고서만 취급하는 서점’, ‘단행본만 취급하는 서점’ 등 참고서 취급 여부 및 비중에 따라 서점의 형태 및 영업 방식 등이 달라지므로, 서점의 유형에 대한 분류는 크게 ①취급 서적 및 상품과 ②서점 면적의 규모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중형 서점 D). 참고서(총판)와 일반도서(도매업/출판사)의 유통 경로와 그에 따른 문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sup>11)12)</sup> 서점을 취급 서적별로 분류하면, 독

10)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서점들이 개점했다”고 밝혔다(이명지(2022.9.3.) ‘각자의 취향을 팝니다’ 동네 서점의 가치. 매거진한경.).

11) 참고서는 지역 총판제로, 지역 관할이 있어서 지역 단위로 유통된다. 참고서 출판사에서 지역별로 지정한 총판만 유통 가능한데, 지역 독점이므로 총판에서 출고가를 지정한다(중형 서점 B).

12) 참고서를 취급하는 지역 중형 서점의 참고서 판매 비율은 70% 안팎으로 매우 높았으나, 공공 납품을

립 서점(동네 책방), 종합 서점(중형 지역 서점), 참고서 중심 서점, 문고/문구도 취급하는 복합 서점 등으로 나눌 수 있다(중형 서점 H).

서점 면적의 규모에 따른 분류는 대형 서점/중형 서점/독립 서점(동네 책방)으로 구분될 수 있다(중형 서점 C). 사업자 기준 규모에 따른 분류로는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서점으로 분류 가능하다(중형 서점 A). 사업 형태에 따른 분류로는 체인 서점과 독립 서점으로 나눌 수 있다. 서점의 특성에 따른 분류로, 독립 서점은 독립 출판물을 다루는 서점이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중형 서점 C).

생계 수단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서점이란 '책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업주'로, 책과 함께 기타 상품(문구, 음료 등)을 판매하는 곳은 전통적 의미의 서점은 아니며, 책을 취급하는 용·복합형 매장에 대한 지원과 전통적인 서점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중형 서점 B; 협회 Q).

독립 서점 J는 독립 서점이 기타 서점/독립 서점 등으로 지칭되고 있지만, 이는 경영적인 측면의 용어이고 문화적인 접근으로 동네 책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단행본 위주로 취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동네 책방은 책방지기의 성향이 중요하므로 일반 지역 서점과는 수익 모델이 다르고, 시장·수요·상품 군이 겹치지 않아 별도로 구분될 수 있으며, 지역 서점과 경쟁 관계가 아닌 전체적인 독서 인구 파이를 늘리는 차원에서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 3. 소결

#### 가. 대기업 진출 제한의 제도적 영향과 규제 방식에 대한 서점별 인식 차이 존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에 대한 영향은 중형 서점은 긍정적으로, 대형 서점은 부정적으로 인식했으며 독립 서점은 직접적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식했다. 중형 서점들은 대기업의 진입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서점업계의 시장성이 낮아서 신규 출점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했으나 위협 요인 방지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인식이 다수였다. 대기업의 참고 서적 판매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참고서 중심 서점의 경우, 제도 종료 시 할인

---

하면서 참고서 비율이 50% 정도로 하향하였다(중형 서점 A).

등 대형 서점과의 경쟁 요인이 없으면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단행본 중심 서점의 경우, 도서 판매가 주 수익원이 되지 않는 대기업의 용·복합형 서점 진출을 위협 요인으로 인식했다.

현재 서점 지원 정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문화 행사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참고서 중심 중형 서점의 경우 문화 행사 지원 등은 매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운영비 등의 비용이 더 크다는 인식이 있었으며, 단행본 중심 중형 서점 및 독립 서점의 경우 문화 행사가 모객으로 인한 매출 증대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는 인식이 있었다. 종합 중형 서점의 경우 매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지만, 도서관 납품 등 간접적으로 서점의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있었다.

필요한 지원 정책 수요는 공통적으로 신규 서점 진입 지원, 물류 유통 지원에 대한 수요가 있었으며, 이 밖에 독립 서점은 문화 프로그램 지원 다양화, 대형 서점은 출점 제한 기간 유동성에 대한 수요가 있었다.

#### **나. 소비자 후생 관련, '공간적 문화 인프라'라는 공통된 인식과 서점 역할 차별성**

서점이 소비자 후생에 기여하는 바로는 먼저 책을 만나는 공간이라는 '공간적 문화 인프라'로서 기여한다는 인식이 공통적이었다. 이 외에 중형 서점은 원하는 책을 원하는 때에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편의성과 거시적인 사회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큐레이션 기능을 들었고, 독립 서점은 개성적인 큐레이션을 통한 새로운 책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도서의 관점 다양성 기여, 독서 문화 활성화, 지역 문화 향상 및 지역 간 문화 격차 완화에 기여한다고 인식해, 서점별로 소비자 후생에 대한 기여 및 서점의 역할에 대한 인식에 차별성이 있었다.

서점업계 시장 전망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중대형 서점 시장은 침체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는 반면 독립 서점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 **다. 서점 지원 정책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서점업 분류 세분화 필요**

서점 유형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등 서점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서점의 유형 분류를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가장 일반적인 분류 기준인 서점의 규모에 따른 분류(대형 서점/중형 서점/독립 서점) 외에 취급 서적

을 중심으로 하는 분류 기준이 우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서점은 취급하는 도서의 종류 및 비중에 따라 서점의 형태 및 영업 방식 등이 달라지므로, 이에 따라 필요한 지원 정책 수요도 차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연구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서점업 분류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3-2〉 심층 인터뷰 결과 정리

세부 구분	중형 서점	독립 서점	대형 서점
제도 영향	• 긍정적 영향(위협 요인 차단)	• 직접적 영향 크지 않음	• 부정적(출점 기회 제한)
위협요인	• 학령인구 감소 • 대기업 진입 • 온라인 서점 • 체인 서점 • 중고 서점	• 융·복합 서점 • 중고 서점	• 독서 인구 급감 • 온라인 서점
정책 수요	(유용)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유지 필요	(유용) • 지역 서점 인증제 • 책방 운영 지원금 • 지역 화폐 캐시백 • 도서관 우선 구매	
	(필요) • 신규 서점 진입 지원 • 생활 문화 시설 지원 • 유통 디지털 전환, 유통망 개선 • 지원 금액 형평성 제고	(필요) • 안정적인 유통 지원 • 온라인 서점 공급량 차이 완화 • 문화 프로그램 지원 다양화	(필요) • 출점 제한 기간 유동성 부여 • 지역 서점 물류 유통 지원
소비자 후생	• 공간적 문화 인프라 • 편의성 • 거시적인 사회 트렌드 파악	• 공간적 문화 인프라 • 책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 • 도서의 관점 다양성 • 독서 문화 활성화 • 지역 문화 향상 및 격차 완화	• 공간적 문화 인프라
시장 전망	• 신규 진입 침체기	• 독립 서점 증가 예상	• 신규 출점 제한적
유형 분류	• ①취급 서적 및 상품, ②서점 면적의 규모에 따라 분류 - 독립 서점(동네 책방)/종합 서점(중형 서점)/참고서 중심 서점/문고·문구도 취급하는 복합 서점 - 대형 서점/중형 서점/독립 서점(동네 책방)		

## 제2절 서점 유형과 지원 제도의 영향 범위

### 1. 서점 유형 분류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는 서점을 “간행물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행위를 업으로 하는 장소·시설 또는 정보통신 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서점의 유형은 <표 3-3>과 같이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지 여부와 체인 지점이 있는지 혹은 독립된 서점인지 여부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그 외에는 유통 채널(대형 체인 서점/온라인 서점/지역 서점), 매장 크기(대형 서점/중형 서점/소형 서점), 취급 도서 분야(종합 서점/전문 서점), 도서 외 취급 종목(복합 서점/순수 서점) 등 추가적인 기준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최성구 외, 2021).<sup>13)</sup>

<표 3-3> 매장 및 체인 유무에 따른 서점 유형 분류 기준

포괄적 개념	매장 유무	체인 유무	추가 기준에 따른 분류
서점	온라인 서점	-	-
	오프라인 서점	체인 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통 채널: 대형 체인 서점/온라인 서점/지역 서점</li> <li>매장 크기: 대형 서점/중형 서점/소형 서점</li> <li>취급 도서 분야: 종합 서점/전문 서점</li> <li>도서 외 취급 종목: 복합 서점/순수 서점 등</li> </ul>
		독립 서점	

자료: 최성구 외(2021). 「지역 서점 실태 조사 추진을 위한 기초 연구」 재가공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의 효과를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서점업 중에서도 제도적 영향을 받는 서점 유형을 명확히 분류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기업 규모 등 사업체 성격에 따라 영업권을 보호하거나(소상공인 서점 등), 진입 및 판매 제한(대기업), 판매제한(중견 기업) 등 규제 수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으므로 사업체

13) 제도적 측면에서 서점 유형을 분류하기도 하는데, 제도 적용별로 지역 서점 조례 서점, 지역 서점 인증 서점, 생활 문화 시설 서점 등이 있다(한국출판학회출판정책연구회, 2021).

성격에 따른 서점 유형 분류가 필요하다. 기업 규모에 따라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나뉘며, 사업체 성격에 따라 개인 사업자인지, 단독 사업체인지, 본사와 지점이 있는 체인형 사업체인지 등을 분류할 수 있다. 대기업인 체인형 서점에는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대기업 서점의 오프라인 서점 및 온라인 서점이 해당하며, 중소기업 체인형 오프라인 서점에는 아크앤북, 아람박스, 종로서적 등이 해당한다. 중소기업 체인형 온라인 서점에는 예스24, 알라딘 등이 속한다. 이 외 개인 사업자 또는 단독 사업체이며 소기업에 해당하는 중소형 서점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독립 서점이 있다.

〈표 3-4〉 사업체 성격에 따른 서점 유형 분류

기업 규모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체 성격						
개인 법인	개인 사업자			← 중소형 서점 →		
				←참고서 주력 서점→		
				← 독립 서점 →		
회사 법인	단독 사업체			← 중소형 서점 →		
				←참고서 주력 서점→		
	본사· 지점 (체인)	대기업 오프라인 서점 (교보문고/영풍문고)	중소기업 오프라인 서점 (아크앤북/아람박스 등)			
		대기업 온라인 서점 (교보문고/영풍문고)	중소기업 온라인 서점 (예스24/알라딘 등)			

또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서점의 취급 서적 종류에 따라 서점의 운영 방식 및 도서 유통 형태, 이에 따라 필요한 지원 정책에 차별성이 있음을 발견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인 분류 기준으로 취급 서적의 매출 비중을 제안하고자 한다. 취급 서적 매출 비중이란, 서점이 단행본만 취급하는지, 참고서만 취급하는지, 단행본과 참고서를 모두 취급하는 종합 서점인지의 여부와 종합 서점인 경우 매출 비중이 참고서 중심인지 단행본 중심인지를 분류하기 위한 기준이다. 여기에 인력 및 매장의 면적을 기준으로 서점 규모를 대형 서점/체인 서점(대기업·중소기업), 중형 서점(소기업), 소형 서점(소상공인)으로 구분하여 〈표 3-5〉와 같이 정리했다.<sup>14)</sup>

14) ‘서점업’(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의 규모에 따른 분류 기준은 연간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인 기업은 대기업, 연간 매출액 1,000억 원 미만인 기업은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 연간 매출액이 50억 원 미만인 기업은 소기업,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인 기업은 소상공인으로 분류된다.



〈표 3-5〉 취급 서적 매출 비중에 따른 서점 유형 분류

취급 서적 \ 서점 규모	대형/체인 서점 (대기업·중소기업)	중형 서점 (소기업)	소형 서점 (소상공인)
참고서 중심	-	참고서 중심 종합 서점	참고서 주력 서점
단행본 중심	교보문고/영풍문고 등 아람북스/아크앤북 등	단행본 중심 종합 서점	독립 서점

## 2. 서점 유형별 제도 적용 범위 및 영향

앞서 정리한 서점의 유형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의 적용 범위 및 제도의 영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참고서 중심 서점의 경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대상이다. 3장에서의 심층 인터뷰 결과, 참고서 중심 서점들은 서점업계 시장 현황으로 미루어 대기업이 신규입점을 할 가능성은 적으나, 위협 요인 방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진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대기업의 참고서 판매 제한이 없으면 서점 매출 및 운영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대기업이 편의점 형태 등 도서를 취급하는 다른 형태로 진입하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었다. 반면 문화 행사 중심의 서점 지원 정책은 문화 행사 추진을 위한 운영비 등의 비용이 더 크고 오히려 매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으며, 독립 서점 위주의 지원 정책 실효성이 서점업 진흥에 불리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단행본 중심 서점의 경우에도 제도가 중소형 서점의 생존 위협 요인 방지 차원에서 대기업 진입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식했으나 서점업이 아닌 타 업종 대기업의 융·복합형 서점 진출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었다. 서점 지원 중 문화행사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매출액 및 서점의 성장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서점 지원 정책의 수혜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sup>15)</sup>

15) 2022년 지역 서점 실태 조사에서 지역 서점 활성화 지원정책의 중요도를 보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등 지역 서점 보호'(4.43점)는 '기관 납품 시 지역 서점 우선 구매 등 지원'(4.48점) 다음으로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다만 서점 유형에 따라 중요도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서점 형태별로 보면 종합 서점 4.45점, 특정 분야 전문 서점 4.61점, 서점 외 겸업 4.37점이며, 매장 면적별로 보면 20평 이하 4.43점, 21~50평 이하 4.41점, 50~100평 이하 4.52점, 100평 이상 4.42점이며, 서점 매출 별로 보면 1억 미만 4.43점, 1~2억 미만 4.35점, 2~5억 미만 4.46점, 5~10억 미만 4.53점, 10~20억 미만 4.50점, 20억 이상 4.21점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특정 분야(학습 참고서 등) 전문 서점, 50~100평 이하 매장 규모, 5~10억 미만 매출 규모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한국출판산업진흥원, 2023a).

이에 따라 제도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범위를 <표 3-6>과 같이 정리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한 보호가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서점 유형은 중소형 서점과 독립 서점이며, 특히 참고서 판매 비중이 높은 서점이 받는 영향이 클 수 있다. <표 3-7>은 서점 유형별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 지원 정책의 수혜 범위를 정리했다.

<표 3-6> 서점 유형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 영향 범위

서점·기업 규모 취급 서적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 직접적 영향 대	
		대형 서점 (대기업·중소기업)	중형 서점 (소기업)
참고서 중심	-	참고서 중심 종합 서점	참고서 주력 서점
		(효과) 대기업 진입 제한 참고서 판매 제한	(효과) 대기업 진입 제한 참고서 판매 제한
		(위험) 대기업 변형 진입	(위험) 대기업 변형 진입
단행본 중심	교보문고/영풍문고	단행본 중심 종합 서점	독립 서점
	-	(효과) 대기업 진입 제한	(효과) 대기업 진입 제한
	(위험) 신규 진입 제한 및 참고서 판매 제한	(위험) 융·복합 서점 진입	(위험) 융·복합 서점 진입

<표 3-7> 서점 유형별 지원 제도 수혜 범위

서점 규모 지원 제도	대형 서점 (대기업·중소기업)	중소형 서점 (소기업)	독립 서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X	O	△
도서정가제	O	O	O
우선 구매 제도	X	O	O
문화 행사 지원	X	△	O

소상공인 서점 지원 정책 효과 분석

제4장

## 대형 서점 출점이 소매 서점 수와 고용에 미친 영향



# 제1절 분석 개요

## 1. 분석 목적

생계형 적합업종과 유사한 취지를 가진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는 중소기업의 퇴출을 막는 효과는 있지만, 대기업 진출 제한이 해당 산업 경쟁력 및 소비자 후생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김민호, 2022; 이진국, 2015)에서 제도의 지정·유지·폐지 여부 등의 판단을 위해 효과성 등 심층적인 정책 평가가 추진되고 있다.<sup>16)</sup> 대형 서점 출점은 소매 서점의 도서 구매 수요를 이동시키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해당 지역의 도서 판매 서비스가 개선되면서 구매력이 증대되고, 서점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독서 인구 감소와 오프라인 서점 유지비용(인건비, 임대료) 상승 등으로 더 이상의 대형 서점 출점도 어려운 상황이기에 일부 서점 유형의 진입 제한을 골자로 하고 있는 정책의 실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영세 소매 서점을 보호하는 정책 배경이 된 대형 서점의 출점이 소매 서점

16) 지금까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정책의 효과성 연구는 다양하게 시도되었다. 대표적으로 두부 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를 보면, 적합업종 제도가 권고하는 대기업에 대한 확장 제한은 포장 두부 시장의 성장을 제한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며, 시장 제약에 대응하는 대기업들의 가격 및 제품 특성에 관한 전략적 반작용은 소비자 후생분 아니라 본연의 목적인 중소기업의 수익성까지 저하시킬 수 있는 것을 보였다(이진국, 2015). 광업·제조업 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적합업종 제도는 사업체의 퇴출 확률을 낮추어 사업을 유지하는 측면에서의 보호 역할은 하였지만, 중소기업의 성과 혹은 경쟁력 제고에는 한계를 보였으며, 대기업의 확장 혹은 진입을 제한해도 중소기업의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발견했다(김민호, 2022). 또한, 12개 세부 업종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제도는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자전거 소매업, 보험 대차 서비스업, 임의가맹형 체인 사업(매출 증가) 등 업종에서는 매출 증가 또는 수익성 제고에 기여했지만 혁신 활동 개선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음료 자판기 운영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임의가맹형 체인사업(수익성 감소) 등에서는 대기업 규제의 어려움, 중소기업·소상공인 간 가격 경쟁 심화로 인해 매출 또는 수익성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곽기호, 2019). 서점업을 중심으로 카드 데이터를 이용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분석한 연구를 보면, 대기업 서점의 입점 전·후, 입점 전·권고 기간, 입점 전·권고 종료 기간 모두 입점 전에 비해 매출액 증가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입점 이전과 비교해 볼 때 적합업종 권고 기간보다 권고 종료 기간의 매출액 증가율이 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병진 외 2020).

의 영업권을 제한하는가를 실증 분석함으로써 대형 서점의 진입 또는 확장을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영세 소매 서점의 경쟁력 향상 및 보호라는 본연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활용한다. 서점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2019년 10월부터 대형 서점의 진입 또는 확장이 제한되면서 이후 대기업 당 연 1곳 이하로 서점이 출점되었지만, 해당 기간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고, 오프라인 서점 수요의 감소세 지속 등으로 추가적인 오프라인 서점 출점의 수익성이 떨어졌다. 이러한 복합적 상황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효과성을 과소 또는 과대평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여기서는 대형 서점 수가 빠르게 증가한 도서정가제 개정(2014. 11월) 이후 6개년간의 시기(2014~2019년)를 분석한다. 해당 기간의 대형 서점 출점이 소매 서점 수나 규모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대형 서점 진입 또는 확장 제한하는 것이 서점업의 보호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용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반면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지역 소매 서점 수나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면 해당 정책의 실효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 2. 분석 모형 및 방법

대형 서점 출점이 소매 서점 수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고정효과 모형을 설정하였다. 여기서 오차항( $\epsilon_{it}$ )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지역의 고유한 특성인 고정효과( $\mu_i$ )와 고유오차( $\nu_{it}$ )로 구분된다.

$$y_{it} = \alpha + bs_{it}\beta_1 + bs_{it-1}\beta_2 + X_{it-1}\gamma + \epsilon_{it}$$

$$\epsilon_{it} = \mu_i + \nu_{it}$$

여기서  $i$ 는 250개 시군구를 의미하며,  $t$ 는 도서정가제가 개정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개년의 분석 기간을 나타낸다.  $y_{it}$ 는 연도별 시군구 단위 소매 서점 수와 종사자 수(전체, 상용직 근로자, 임시·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를 의미한다.

$bs_{it}$ 와  $bs_{it-1}$ 은 각각 시군구 단위  $t$ 기와  $t-1$ 기 대형 서점 수를 의미하는데, 대형

서점의 출점이 지역의 소매 서점에 미치는 효과는 해당 시점뿐만 아니라 사업체의 창·폐업이 일정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출점의 다음 기의 영향도 고려한다.<sup>17)</sup>  $X_{it-1}$  소매 서점과 관계있는 시군구 특성 변수로 해당 변수는 다음 기 소매 서점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종속 변수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분석함으로써 대형 서점 출점 효과를 절대량이 아닌 비율 변화로 확인하고, 편차가 큰 자료의 왜도와 첨도를 줄여 정규성을 높이고자 한다(최충, 2021). 종속 변수 중 자연로그를 취할 수 없는 0의 값을 갖는 관측치는 1을 더한 후 자연로그를 취하여 분석하였다.<sup>18)</sup>

여기서  $\mu_{it}$ 는 지역별 고정효과인데, 이는 소매 서점의 영향이 지리적인 특성에 인해 달라지는 것을 통제한다. 2014년 이후 도서정가제 개정 이후 오프라인 서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서점 진흥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별 지역 서점 정책이 시기별·수단별로 상이하게 추진되었다. 게다가 대형 서점의 경우 일정 규모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에 한정하여 출점을 고려하는 등 통상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지역 더미를 통제하더라도 지역이 가진 고유한 특징이 통제가 안 되어 일치 추정치를 얻을 수 없게 된다. 즉, 고정효과를 제거하지 않고 추정할 경우 대형 서점 출점이 소매 서점에 미치는 효과가 과대 또는 과소로 추정될 수 있다. 이에 여기서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고정효과를 집단 내 변환(within transformation)을 통해 제거한 후 모형을 추정한다.

$$y_{it} - \overline{y_{it}} = (bs_{it} - \overline{bs_{it}})\beta_1 + (bs_{it-1} - \overline{bs_{it-1}})\beta_2 + (X_{it-1} - \overline{X_{it-1}})\gamma + (\epsilon_{it} - \overline{\epsilon_{it}})$$

17) 시차 간 자료엔 상관성이 크기 존재하기 때문에 시차 변수를 추가하는 경우 설명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다중 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요인(VIF)을 분석해 본 결과, 시차 설명 변수는 7이하의 값이, 다른 설명 변수는 4이하의 값이 나타났다.

18) 250개의 지역별·시기별 표본 중 49개(2.45%)가 소매 서점이 0으로, 287개(14.35%)가 종사자 수가 0으로 나타났다.

## 제2절 자료 및 기초 통계량

### 1. 기초 자료

대형 서점 출점이 소매 서점 수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소매 서점의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전국 사업체 조사<sup>19)</sup> 2014~2019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자료는 사업체의 시군구 단위 지역과 함께 세분류 수준의 산업 단위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군구 단위로 소매 서점 정보를 식별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체의 종사상 지위별 종사자 수와 함께 창업 연월, 조직 형태 등의 정보<sup>20)</sup>를 제공하기에 대형 서점 출점이 소매 서점 수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자료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시군구 단위 특성 변수를 구성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인구 현황에서 2013~18년의 행정구역별 인구수, 연령별 인구 비중을 이용했다. 또한 지역 단위 도서 유통 및 독서 생태계상에서 소매 서점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도서관 정보를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NLSS: National Library Statistics System)에서 제공하는 각 연도별 도서관 통계 결과표를 연계하여 해당 지역의 잠재·실제 독서량을 판단할 수 있는 도서관 방문자 및 대출자 수와 대출 권수, 도서관 자료 구입비 규모를 활용하였다. 전국 사업체 조사에서 제공하는 소매 서점업(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산업 분류 코드: 47611)은 6개년 간 총 30,673개 사업체<sup>21)</sup>이나, 본 연구의 분석 단위가 250개 시군구별 지역 분류이고 분석

19) 자료는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로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하여 정부의 정책 수립 및 평가, 기업의 경영 계획 수립 및 학술 연구 등의 기초 자료, 다른 통계 조사의 모집단 명부 등으로 활용된다.

20) 지역 및 산업 단위를 세부적으로 추출하는 과정에서 사업체의 경영성과(매출액) 정보는 식별이 안 된다.

21) 소매 서점업의 각 연도 사업체 수를 보면 2014년 5,169개로 이후 각 연도별 5,318개, 5,031개, 4,928개, 4,994개, 5,233개로 나타났다.



기간이 6개 년도이므로 분석에 사용된 총 관측치 수는 1,500개이다<sup>22)</sup>.

본 연구에서 살펴볼 종속 변수는 시군구 지역별 소매 서점 수, 총 종사자 수, 종사상 지위별(상용 근로자, 임시 및 일용 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종사자 수로 정의하였다. 대형 서점 출점이 소매 서점 수에 미치는 영향은 서점 규모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실제로 대형 서점이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대규모 자본 또는 유통망에 의지하지 않고 서점 주인의 취향대로 꾸며진 동네 작은 서점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sup>23)</sup> 독립 서점의 사업 전략과 수요자 특성은 대형 서점과 차별화된다는 측면에서 대형 서점 출점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독립 서점을 배제한 소매 서점 수를 고려한다. 독립 서점을 판단하는 정량적 정의가 없고 이를 식별할 수 있는 별도의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1인이 운영하는 소매 서점을 제외한 2인 이상인 소매 서점 수를 종속 변수로 활용한다. 또한, 다른 유형의 소매 서점 수가 변하지 않아도 대형 서점의 신규 출점 자체가 해당 지역의 소매 서점 수를 늘리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으면 대형 서점 출점이 소매 서점 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이에 연도별 신규 대형 서점 출점 건수를 뺀 소매 서점 수를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비교한다.

다음으로 대형 서점 출점의 영향이 종사자의 종사상 지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영세 소매 서점들은 개인 또는 가족 경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반면, 대형 서점 및 중형 서점은 임금 근로자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평균 종사자 수가 아닌 총 종사자 수를 종속 변수로 사용한 이유는 만약 대형 서점의 출점으로 인해 소매 서점이 창업하는 경우 총 종사자 수는 증가하는 반면, 평균 종사자 수는 감소하며, 폐업하는 경우는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Brown et al., 1992).

종속 변수의 기초 통계량을 보면, 지역별 소매 서점 수는 2014년 평균 20.68개에서 2019년 20.93개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독립 서점의 출점을 고려한 종사자 2인 이상 소매 서점 수는 같은 기간 평균 12.19개에서 10.32개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소매서점 규모가 작아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종사자 수는 2014년 평균 55.28명에서 2019년 54.03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소매 서점 수를 동시에 고려하면 지역별 종사자 수는 소폭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2) 전국 사업체 조사에 의하면 특정 소도시의 경우 소매 서점이 특정 연도에 출점하거나 폐점하여 1개 또는 0개인 경우가 있는데, 해당 지역은 인천 옹진군, 전북 순창군, 경북 군위군, 청송군, 영양군이다.

23) 동네 책방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2022년 동네서점 트렌드' 통계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 97개였던 독립 서점이 매년 급증하여 2022년 815개로 늘어났다.

〈표 4-1〉 종속 변수 기초 통계량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소매 서점 수 (개)	전체	20.68	21.27	20.12	19.71	19.98	20.93
	2인 이상	12.19	12.39	11.37	10.51	10.53	10.32
종사자 수 (명)	전체	55.28	57.61	53.76	52.43	52.79	54.03
	상용 근로자	20.76	20.37	19.83	21.32	21.55	20.18
	임시·일용 근로자	6.54	7.41	7.09	6.31	6.42	7.19
	자영업자	18.50	19.34	17.86	17.09	17.09	17.99
	무급가족종사자	5.68	5.60	4.71	4.51	4.69	4.51

주: 250개 시군구 단위 값의 의미

자료: 통계청 MDIS, 「전국사업체조사 2014-2019」

다음으로 지역 규모를 통제하기 위해 총 인구수를, 지역별 도서 구매력과 고용 인구구조를 통제하기 위해 유아동서와 학습 참고서 수요가 많은 취학(5~19세) 인구와 고령(65세 이상) 인구 비중을 설명 변수로 활용하였다. 지역의 도서 구매력과 독서 환경을 통제하기 위해 지역 단위 도서관 방문자 수, 이용자 수, 대출 권수를 인구수로 나누어 설명 변수로 활용하였다.<sup>24)</sup> 이와 더불어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의 자료 구입이 해당 지역 서점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우선 구매 제도 등)을 고려하기 위해 지역별 도서관 자료 구입비에 연도별 서적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반영하고 도서관 수로 나누어 설명 변수로 사용하였다. 끝으로 지역별 서점 조직 형태를 통제하기 위해 회사법인 비중 중 대기업 서점의 출점과 관계있는 지점 비중과 회사 이외 법인 비중<sup>25)</sup>을 사용하였다.

시간에 따라 인구수는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나,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취학(5~19세) 인구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고령 인구 비중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도서관의 방문자 수와 대출자 수, 대출 권수를 해당 지역 인구수를 고려하여 환산하면, 6개년 평균 각각 5.2명, 0.3명, 2.4권으로 나타난다. 도서관 당 자료 구입비는 2014년 이후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끝으로, 회사법인 중 지사(지점)와 회사 이외 법인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대기업 서점의 출점 등 법인 성격의 서점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24) 도서관의 신규 개관으로 인한 도서 대출권수의 외생적 변화를 이용한 도구변수-고정효과 모형으로 공공 대출이 도서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공공 대출 증가가 도서 판매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계수 추정치는 양(+)의 값을 갖는다. 청소년 도서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공공 대출의 증가가 도서 판매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이용관, 2019).

25) 회사 법인은 상법에 의해 설립되어 법인격을 갖춘 사업체(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등)를, 회사외 법인은 민법이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 법인이 아닌 법인. 재단 법인, 사단 법인을 의미한다.

〈표 4-2〉 설명 변수 기초 통계량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인구	인구수(만 명)	20.45	20.31	20.38	20.45	20.49	20.52
	취학(5~19세) 인구 비중(%)	15.80	15.28	14.77	14.31	13.90	13.51
	고령(65세 이상) 인 비중(%)	16.29	16.81	17.29	17.74	18.33	19.03
도서관	방문자 수/인구(명)	5.30	5.40	5.27	5.23	5.21	5.06
	대출자 수/인구(명)	0.46	0.55	0.21	0.20	0.30	0.24
	대출 권수/인구(권)	2.46	2.56	2.36	2.27	2.43	2.25
	1관당 자료 구입비(십만 원)	943.6	859.4	811.0	882.3	912.8	914.9
법인	회사법인(지점) 비중(%)	5.23	4.32	5.49	6.65	7.34	7.55
	회사외 법인 비중(%)	1.01	0.97	1.05	1.18	1.18	1.29

주: 250개 시군구 단위 값을 의미. 자료 구입비는 해당 연도 서적 물가지수를 이용하여 변환한 것임  
 자료: 통계청 KOSIS, 「행정구역별 인구수 2013~2020」, 「품목 성질별 소비자물가지수 2013~2018」,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도서관통계결과표 2013~2018」, 통계청 MDIS, 「전국사업체조사 2013~2018」

## 2. 대형 서점 자료

본 연구에서 살펴볼 주요 관심 변수는 대형 서점 출점의 영향으로, 해당 변수 구성을 위해 2013년 시군구 단위 대형 서점 출·폐점 현황 자료를 사용한다. 대형 서점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소상공인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해 출점 및 판매 제한을 받고 있는 교보문고와 영풍문고(이하 대기업 서점)를 포함한다. 또한, 서점업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지만 오프라인에서 도서를 판매하는 전국 체인을 보유한 알라딘과 yes24(이하 중고 서점)도 포함한다.<sup>26)</sup> 대형 서점 출·폐점 자료는 1차로 인터넷을 통해 각 지점별 출점 시기와 폐점 시기를 확인하여 연도별·지역별 자료를 구축하고, 2차 출·폐점 현황 자료 협조가 가능한 대형 서점의 현황 자료를 받아 수정한 이후, 최종적으로 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서 격년 단위로 발간하는 서점 편람 자료(2013~2021년 기준)와 비교해 최종 구축하였다.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서정가제는 기존 도서정가제에 비해 정가제 적용 범위가 확대·강화되었다<sup>27)</sup>. 개정 도서정가제로 대형 및 온라인 서점의 할인이 제

26) 이들은 최초 인터넷에서 책을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자 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로 되어 있지만, 추가로 오프라인 중고 서점을 운영하면서 기타 중고 상품 소매업(49869)이라고 할 수 있다.

27) 도서정가제 관련 법률인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를 보면 간행물(종이책과 전자책)의 정가 표시 의무, 발행 후 18개월 이상 지난 도서의 정가 변경(재정가 책정 가능), 정가 판매 의무, 정가의 15% 이내 직·간접 할인 허용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서정가제 개정 목적은 대형 및 온라인서점의 할인을 제한해

한되었고, 특히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던 온라인 서점에 비해 오프라인 서점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실제로 사업 기회를 생각한 기업들은 오프라인 매장을 빠르게 증가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대기업 서점의 점포는 2020년 이후 증가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4-3〉 대형 서점 연도별 점포 추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연평균 증감률
대기업 서점	32	37	52	65	75	79	81	81	14.2
중고 서점	19	22	32	45	48	53	52	58	17.3
합계	51	59	84	110	123	132	133	139	15.4

대형 서점 출·폐점 현황을 이용하여 지역별 시기별 출점 효과를 보여 주는 변수를 구축하면 다음과 같다. 2019년 기준 시군구 단위 대기업 서점 현황을 보면, 190개 지역은 대기업 서점이 출점을 안 했으며, 1개 있는 곳은 46개 지역, 2개 있는 곳은 11개 지역, 3개 있는 곳은 1개 지역, 4개 있는 곳은 2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동기간 중고 서점 현황을 보면, 206개 지역은 중고 서점이 출점을 안 했으며, 1개 있는 곳은 36개 지역, 2개 있는 곳은 7개 지역, 3개 있는 곳은 1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표 4-4〉 지역별·연도별 대형 서점 수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대기업 서점	없음	222	222	219	208	200	194	190	190	189
	1개	24	24	26	36	40	43	46	44	45
	2개	4	4	4	3	7	9	11	13	14
	3개	0	0	1	2	1	2	1	1	0
	4개	0	0	0	1	2	2	2	2	2
중고 서점	없음	235	232	230	223	213	211	206	206	202
	1개	14	17	18	22	30	31	36	36	38
	2개	1	1	2	5	6	7	7	8	10
	3개	0	0	0	0	1	1	1	0	0

중소형 서점 및 출판사도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함으로써 이들을 보호하고, 높게 적용될 할인율이 반영된 도서 가격 책정 현상을 방지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것이다(이용관, 2022a).

## 제3절 분석 결과

### 1. 대형 서점 출점이 소매 서점 수에 미친 영향

#### 가. 전체 소매 서점 수 분석 결과

여기서는 대형 서점 출점이 소매 서점에 미친 영향을 시군구 지역 단위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여 준다. 이하 모든 결과에서 보이는 \*, \*\*, \*\*\*는 10%, 5%, 1%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내며, 표준 오차는 지역단위 군집 표준 오차를 나타낸다.

〈표 4-5〉는 대형 서점 출점이 소매 서점 수에 미친 영향을 고정효과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대기업 서점이 출점한 해에 소매 서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대기업 서점이 2개째 출점한 해에 소매 서점 수가 13.08%( $=e^{0.1229}$ )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서점이 출점한 다음 해에는 소매 서점 수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중고 서점이 2개째, 3개째 출점한 해에 소매 서점 수가 각각 8.66%, 21.7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고 서점이 출점한 다음 해의 계수 추정치도 모두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다른 설명 변수들이 소매 서점 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소매 서점 수는 취학 인구 비중이 1%p 증가 시 6.6% 증가하는 반면, 고령 인구 비중이 1%p 증가 시에는 5.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 당 도서관 방문자 수가 1% 증가 시에는 3.92% 감소하나, 1인당 대출 권수 1% 증가 시에는 5.2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점 비중이 1%p 증가 시 소매 서점 수가 약 0.6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기업 서점이 출점한 시기 해당 서점도 소매 서점 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매 서점 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도별 신규 대기업 서점의 출점 건수를 제외한 소매 서점 수에 대형 서점 출점이 미친 영향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소매 서점 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던 대기업 서점 출점 변수의 계수 추정치는 크게 감소하였고, 일부 변수의 계수 추정치는 음의 값으로 변하였다. 이외 다른 변수의 계수 추정치 크기와 유

의성은 전체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4-5〉 소매 서점 수 분석 결과

		전체		신규 대기업 서점 수 제외	
		계수 추정치	표준 오차	계수 추정치	표준 오차
t기 대기업 서점 (ref. =0)	1개	0.0374	(0.0265)	0.0001	(0.0261)
	2개	0.1229*	(0.0681)	0.0424	(0.0696)
	3개	0.1046	(0.0887)	-0.0008	(0.0907)
	4개	0.0856	(0.1016)	-0.0412	(0.0997)
t-1기 대기업 서점 (ref. =0)	1개	-0.0111	(0.0250)	-0.0071	(0.0245)
	2개	0.0821	(0.0636)	0.1029	(0.0713)
	3개	0.0991	(0.0714)	0.1193	(0.0747)
	4개	0.0396	(0.0742)	0.0596	(0.0800)
t기 중고 서점 (ref. =0)	1개	0.0021	(0.0255)	0.0026	(0.0255)
	2개	-0.0906**	(0.0394)	-0.0828**	(0.0398)
	3개	-0.2450***	(0.0764)	-0.2515***	(0.0781)
t-1기 중고 서점 (ref. =0)	1개	-0.0129	(0.0296)	-0.0120	(0.0295)
	2개	-0.0256	(0.0673)	-0.0195	(0.0670)
	3개	-0.1399	(0.1073)	-0.1253	(0.1090)
인구 변수	인구수	0.0036	(0.0062)	0.0035	(0.0061)
	취학 인구 비중	0.0660***	(0.0204)	0.0639***	(0.0205)
	고령 인구 비중	-0.0507***	(0.0170)	-0.0511***	(0.0169)
도서관 변수	ln(방문자 수/인구)	-0.0392*	(0.0232)	-0.0388*	(0.0231)
	ln(대출자 수/인구)	-0.0122	(0.0086)	-0.0125	(0.0086)
	ln(대출 권수/인구)	0.0522*	(0.0276)	0.0524*	(0.0276)
	ln(자료 구입비)	0.0091	(0.0254)	0.0077	(0.0254)
	ln(자료 구입비 <sup>2</sup> )	0.0017	(0.0049)	0.0021	(0.0049)
법인 변수	지점 비중	0.0069***	(0.0016)	0.0068***	(0.0016)
	회사외 법인 비중	-0.0047	(0.0038)	-0.0048	(0.0038)
연도 (ref. 2014)	2015	0.1024***	(0.0196)	0.1016***	(0.0196)
	2016	0.1054***	(0.0335)	0.1034***	(0.0336)
	2017	0.1440***	(0.0468)	0.1417***	(0.0469)
	2018	0.2139***	(0.0612)	0.2106***	(0.0614)
	2019	0.3160***	(0.0753)	0.3127***	(0.0755)
상수항		2.2398***	(0.4521)	2.2837***	(0.4495)
R-squared		0.1386		0.1299	
지역 고정효과		YES		YES	

주: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내며, 6개년도 250개 시군구 단위 1,500개 표본을 고정효과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로 표준 오차는 군집 표준 오차 의미함

## 나. 종사자 2인 이상 소매 서점 수 분석 결과

〈표 4-6〉은 서점 규모별 대형 서점의 출점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고려해 도서 구비 유형 및 도서 구입·판매 형태에 큰 차이가 있는 1인 서점을 제외한 표본을 분석한 결과이다. 앞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대기업 서점이 출점한 해에 소매 서점 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대기업 서점이 2개째 출점한 해에 소매 서점 수가 17.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서점이 출점한 다음 해에 소매 서점 수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중고 서점 신규 출점한 해에 소매 서점 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보인다. 중고 서점이 2개째, 3개째 출점한 해에 소매 서점 수가 각각 13.78%, 29.0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소 서점이 출점한 다음 해의 계수 추정치도 모두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다른 설명 변수들이 소매 서점 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소매 서점 수는 취학 인구 비중이 1%p 증가 시 5.94% 증가하는 반면, 고령 인구 비중이 1%p 증가 시에는 4.3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관련 변수는 소매 서점 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지점 비중이 1%p 증가 시 소매 서점 수가 약 1.2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연도별 신규 대기업 서점의 출점 건수를 제외한 소매 서점 수에 대형 서점 출점이 미친 영향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소매 서점 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였던 대기업 서점 출점 변수의 계수 추정치는 크게 감소하였고, 일부 변수의 계수 추정치는 음의 값으로 변하였다. 또한 대기업 서점이 3개째 출점한 해에 소매 서점 수가 11.5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다른 변수의 계수 추정치 크기와 유의성은 전체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4-6〉 종사자 2인 이상 소매 서점 수 분석 결과

		전체		신규 대기업 서점 수 제외	
		계수 추정치	표준 오차	계수 추정치	표준 오차
t기 대기업 서점 (ref. =0)	1개	0.0127	(0.0349)	-0.0534	(0.0359)
	2개	0.1588**	(0.0723)	0.0226	(0.0780)
	3개	0.0559	(0.0695)	-0.1228*	(0.0693)
	4개	0.0964	(0.1450)	-0.1119	(0.1419)
t-1기 대기업 서점 (ref. =0)	1개	-0.0051	(0.0263)	0.0018	(0.0273)
	2개	0.0073	(0.0570)	0.0289	(0.0668)
	3개	0.0352	(0.0654)	0.0617	(0.0711)
	4개	-0.0134	(0.1022)	0.0080	(0.1093)
t기 중고 서점 (ref. =0)	1개	-0.0169	(0.0326)	-0.0164	(0.0330)
	2개	-0.1483***	(0.0451)	-0.1342***	(0.0456)
	3개	-0.3429***	(0.0822)	-0.3487***	(0.0830)
t-1기 중고 서점 (ref. =0)	1개	-0.0555	(0.0351)	-0.0552	(0.0350)
	2개	-0.0420	(0.0608)	-0.0338	(0.0587)
	3개	-0.0568	(0.0823)	-0.0409	(0.0806)
인구 변수	인구수	0.0042	(0.0059)	0.0042	(0.0057)
	취학 인구 비중	0.0594**	(0.0295)	0.0553*	(0.0298)
	고령 인구 비중	-0.0435**	(0.0195)	-0.0441**	(0.0195)
도서관 변수	ln(방문자 수/인구)	-0.0194	(0.0318)	-0.0189	(0.0317)
	ln(대출자 수/인구)	-0.0122	(0.0143)	-0.0128	(0.0143)
	ln(대출 권수/인구)	0.0515	(0.0353)	0.0514	(0.0352)
	ln(자료 구입비)	0.0139	(0.0351)	0.0113	(0.0346)
	ln(자료 구입비 <sup>2</sup> )	-0.0056	(0.0079)	-0.0049	(0.0078)
법인 변수	지점 비중	0.0125***	(0.0039)	0.0124***	(0.0039)
	회사외 법인 비중	-0.0036	(0.0053)	-0.0037	(0.0053)
연도 (ref. 2014)	2015	0.0817***	(0.0268)	0.0803***	(0.0269)
	2016	0.0607	(0.0436)	0.0573	(0.0438)
	2017	0.0514	(0.0604)	0.0462	(0.0608)
	2018	0.1069	(0.0797)	0.1000	(0.0802)
	2019	0.1414	(0.0955)	0.1338	(0.0960)
상수항		1.6158***	(0.6009)	1.7000***	(0.6012)
R-squared		0.1086		0.1085	
지역 고정효과		YES		YES	

주: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내며, 6개년도 250개 시군구 단위 1,500개 표본을 고정효과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로 표준 오차는 군집 표준 오차 의미함



## 2. 대형 서점 출점이 소매 서점 종사자 수에 미친 영향

대형 서점의 출점에 따라 다른 소매 서점의 전략적 선택은 이전 또는 폐점도 있지만 자체적인 구조 조정을 통해 수익성을 개선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소매 서점은 대형 서점과 경쟁하기 위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다만, 책이라는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고, 도서정가제 개정으로 가격 할인 등의 추가적인 서비스 제공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소매 서점 대부분이 비용 절감 방식으로 사업 개선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도서 구매 비용을 제외하면 소매 서점의 가장 큰 비용은 임대료와 임금일 것이다. 단기적으로 시설을 이전하거나 임대 면적을 줄이는 것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여기서는 종사자 수 변화로 대형 서점 출점의 영향을 분석한다.

### 가. 종사자 수 분석 결과

〈표 4-7〉은 대형 서점 출점이 소매 서점 종사자 수에 미친 영향을 고정효과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대기업 서점이 2개째 출점한 해, 3개째 출점한 다음 해에 소매 서점 총 종사자 수는 각각 19.9%, 24.0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고 서점이 2개째, 3개째 출점한 해에 소매 서점 총 종사자 수는 각각 19.05%, 53.4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설명 변수들이 총 종사자 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인구수와 취학 인구 비중은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반면, 고령 인구 비중이 1%p 증가 시에는 6.0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대출 권수 1% 증가 시 소매 서점 총 종사자 수가 약 10.21% 증가했으며, 다른 도서관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지점 비중이 1%p 증가 시 소매 서점 총 종사자 수가 약 2.65%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종사자<sup>28)</sup>를 제외한 종사자 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기업 및 중고 서점의 지역 내 출점 개수에 따른 효과성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대기업 서점이 2개째, 4개째 출점한 해에 소매 서점 종사자 수가 각각 25.62%, 33.98% 증가하나, 출점한 다음 해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중고 서점이 2개째, 3개째 출점한 해에 소매 서점 종사자 수는 각각 13.41%, 45.8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28)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이 없고,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스스로 직접 제공하고 일한 만큼 실적에 따라 소득(수수료, 봉사료, 수당 등)을 얻으며, 근로 제공 방법, 근로 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형태로 일하는 사람 또는 그 외 기타 종사자를 의미한다.

났다. 다른 설명 변수의 결과는 총 종사자 수 결과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4-7〉 종사자 수 분석 결과

		총 종사자 수		기타 종사자 제외 종사자 수	
		계수 추정치	표준 오차	계수 추정치	표준 오차
t기 대기업 서점 (ref. =0)	1개	0.0676	(0.0462)	0.0456	(0.0413)
	2개	0.1815*	(0.0968)	0.2281***	(0.0797)
	3개	0.1172	(0.1056)	0.0875	(0.0999)
	4개	0.1793	(0.1950)	0.2925*	(0.1489)
t-1기 대기업 서점 (ref. =0)	1개	-0.0500	(0.0383)	-0.0082	(0.0321)
	2개	0.0635	(0.0799)	0.0012	(0.0703)
	3개	0.2154**	(0.1065)	0.0000	(0.0787)
	4개	0.1061	(0.1023)	-0.0701	(0.0982)
t기 중고 서점 (ref. =0)	1개	-0.0355	(0.0424)	0.0095	(0.0384)
	2개	-0.2114**	(0.1012)	-0.1440*	(0.0816)
	3개	-0.7644***	(0.1658)	-0.6127***	(0.1630)
t-1기 중고 서점 (ref. =0)	1개	-0.0378	(0.0473)	-0.0380	(0.0386)
	2개	-0.0028	(0.1197)	-0.0579	(0.1229)
	3개	-0.1350	(0.1248)	-0.0346	(0.1413)
인구 변수	인구수	0.0100	(0.0076)	0.0059	(0.0072)
	취학 인구 비중	0.0385	(0.0447)	0.0404	(0.0436)
	고령 인구 비중	-0.0607**	(0.0291)	-0.0657**	(0.0289)
도서관 변수	ln(방문자 수/인구)	-0.0504	(0.0430)	-0.0653	(0.0432)
	ln(대출자 수/인구)	-0.0269	(0.0209)	-0.0242	(0.0205)
	ln(대출 권수/인구)	0.1021*	(0.0542)	0.1090**	(0.0547)
	ln(자료 구입비)	0.0207	(0.0527)	0.0126	(0.0489)
	ln(자료 구입비 <sup>2</sup> )	-0.0044	(0.0118)	-0.0004	(0.0107)
법인 변수	지점 비중	0.0265***	(0.0065)	0.0241***	(0.0068)
	회사외 법인 비중	0.0018	(0.0065)	-0.0000	(0.0067)
연도 (ref. 2014)	2015	0.1211***	(0.0409)	0.1136***	(0.0402)
	2016	0.0742	(0.0686)	0.0851	(0.0675)
	2017	0.0867	(0.0937)	0.1117	(0.0923)
	2018	0.1319	(0.1251)	0.1559	(0.1233)
	2019	0.2307	(0.1502)	0.2545*	(0.1483)
상수항		3.1191***	(0.8464)	3.2365***	(0.8267)
R-squared		0.0948		0.0858	
지역 고정효과		YES		YES	

주: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내며, 6개년도 250개 시군구 단위 1,500개 표본을 고정효과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로 표준 오차는 군집 표준 오차 의미함

## 나. 종사상 지위별 종사자 수 분석 결과

대형 서점의 출점은 중소 소매 서점의 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해당 서점을 운영하기 위해 종사자를 고용하기 때문에 종사상 지위에 따라 종사자 수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대형 서점의 출점은 해당 지역의 신규 고용을 늘려 임금 근로자 수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대기업 서점 출점이 중소 소매 서점의 영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해당 유형의 서점을 운영하는 비임금 근로자(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수는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중소 소매 서점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인건비 절감 방식을 취했다면,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 중 무급가족종사자 중심으로 종사자수가 감소했을 것이다.

〈표 4-8〉은 대형 서점 출점이 소매 서점 상용 근로자와 임시·일용 근로자 수에 미친 영향을 고정효과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소매 서점 상용 근로자 수는 대기업 서점이 1개째, 2개째 출점한 해에 각각 13.94%, 29.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 서점은 3개째 출점한 해에 소매 서점 상용 근로자 수가 55.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서점이 출점한 해에 상용 근로자 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은 대형 서점 출점 시 많은 임금 근로자를 채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점업에 포함이 안 되는 중고 서점이 출점한 해에 상용 근로자가 감소한 것을 미루어보았을 때, 대형 서점 출점이 중소 소매 서점 종사자 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고령 인구 비중이 증가할수록 소매 서점 상용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점 비중과 회사의 법인 비중이 증가할수록 상용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법인이 운영하는 소매 서점에 상용 근로자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매 서점 임시·일용 근로자 수는 대기업 서점이 3번째, 4번째 출점한 해에 각각 59.63%, 153.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고 서점이 3번째 출점한 해와 1번째 출점한 다음 해에는 각각 73.93%, 18.07% 감소하고, 1번째 출점한 해와 3번째 출점한 다음 해에는 각각 14.12%, 74.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직 근로자 수의 분석 결과와 비교했을 때, 대기업 서점의 초기 출점 시에는 상용직 근로자를 주로 고용하나, 동일 지역에 추가 출점 시에는 임시·일용 근로자 중심으로 고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매 서점 임시·일용 근로자 수도 고령 인구 비중이 감소할수록, 지점 비중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4-8〉 임금 근로자 수 분석 결과

		상용 근로자		임시·일용 근로자	
		계수 추정치	표준 오차	계수 추정치	표준 오차
t기 대기업 서점 (ref. =0)	1개	0.1305*	(0.0668)	0.0382	(0.1216)
	2개	0.2550**	(0.1170)	0.4238	(0.2927)
	3개	0.1188	(0.1129)	0.4677*	(0.2617)
	4개	0.2106	(0.2967)	0.9316**	(0.3907)
t-1기 대기업 서점 (ref. =0)	1개	-0.0450	(0.0534)	0.0470	(0.1286)
	2개	-0.0285	(0.1146)	-0.0428	(0.2729)
	3개	0.0294	(0.1233)	-0.0721	(0.3040)
	4개	-0.1322	(0.1357)	0.0898	(0.3113)
t기 중고 서점 (ref. =0)	1개	0.0192	(0.0676)	0.1321*	(0.0746)
	2개	-0.2098	(0.1281)	-0.0976	(0.3074)
	3개	-0.8120***	(0.2277)	-1.3445***	(0.4015)
t-1기 중고 서점 (ref. =0)	1개	0.0070	(0.0620)	-0.1993**	(0.1002)
	2개	0.0299	(0.1846)	-0.1445	(0.2710)
	3개	-0.0202	(0.1710)	0.5559**	(0.2252)
인구 변수	인구수	0.0136	(0.0093)	0.0030	(0.0080)
	취학 인구 비중	0.0260	(0.0370)	-0.0288	(0.0451)
	고령 인구 비중	-0.0639***	(0.0226)	-0.0920***	(0.0325)
도서관 변수	ln(방문자 수/인구)	-0.0629	(0.0413)	-0.0106	(0.0855)
	ln(대출자 수/인구)	0.0212	(0.0149)	-0.0047	(0.0201)
	ln(대출 권수/인구)	0.0718	(0.0438)	-0.0613	(0.0615)
	ln(자료 구입비)	0.0346	(0.0410)	-0.0835	(0.0792)
	ln(자료 구입비 <sup>2</sup> )	-0.0051	(0.0103)	0.0194	(0.0184)
법인 변수	지점 비중	0.0391***	(0.0047)	0.0162***	(0.0051)
	회사외 법인 비중	0.0290***	(0.0088)	-0.0183	(0.0154)
연도 (ref. 2014)	2015	0.1150***	(0.0331)	0.0907*	(0.0533)
	2016	0.1107**	(0.0435)	0.1262*	(0.0702)
	2017	0.1758***	(0.0557)	0.0147	(0.0857)
	2018	0.2072***	(0.0709)	0.0430	(0.1055)
	2019	0.2405***	(0.0892)	0.1860	(0.1242)
상수항		2.0301**	(0.8313)	3.5160***	(1.0662)
R-squared		0.1854		0.0569	
지역 고정효과		YES		YES	

주: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내며, 6개년도 250개 시군구 단위 1,500개 표본을 고정효과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로 표준 오차는 군집 표준 오차 의미함

〈표 4-9〉은 대형 서점 출점이 소매 서점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수에 미친 영향을 고정효과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대기업 서점 출점은 소매 서점 자영업자 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중고 서점이 2개, 3개째 출점한 해에 소매 서점 자영업자 수는 각각 10.55%, 22.9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 서점 자영업자 수는 취학 인구 비중이 증가할수록, 고령 인구 비중이 감소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인구 당 도서관 방문자 수와 대출자 수는 적을수록, 1인당 대출권수가 많을수록 소매 서점 자영업자 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자영업자 수에 지점 비중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회사의 법인 비중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소매 서점 무급가족종사자 수도 대기업 서점의 출점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고 서점의 출점은 소매 서점 무급가족종사자 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 서점이 1개째, 2개째, 3개째 출점한 해에 소매 서점 무급가족종사자 수는 각각 11.89%, 18.1%, 30.6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 서점이 2개째, 3개째 출점한 다음 해에도 소매 서점 무급가족종사자 수는 각각 16.39%, 19.75% 감소하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 서점 무급가족종사자 수는 취학인구 비중이 증가할수록, 회사의 법인 비중이 감소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1인 소매 서점에 비해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소매 서점 중심으로 규모가 축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인 서점(독립 서점)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수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기존 중소형 소매 서점을 운영하던 자영업자 수의 감소와 독립 서점을 운영하던 자영업자 수의 증가가 동시에 나타났다. 둘째, 독립 서점의 개점이 대기업 서점과 같이 도서 구매 수요가 큰 지역 중심이 아닌 동네 단위로 분산되어 출점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임금 근로자 수와 달리 비임금 근로자수 분석에서는 취학 인구 비중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데, 이는 자영업자 또는 가족 단위 운영하는 중소 소매 서점의 이용자가 학습 참고서를 소비하는 취학 인구라는 것을 보여준다.

〈표 4-9〉 비임금 근로자 수 분석 결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계수 추정치	표준 오차	계수 추정치	표준 오차
t기 대기업 서점 (ref. =0)	1개	0.0118	(0.0308)	-0.0128	(0.0591)
	2개	0.1026	(0.0765)	0.0968	(0.1328)
	3개	0.0168	(0.1149)	0.1652	(0.1061)
	4개	0.0156	(0.1155)	0.1515	(0.1636)
t-1기 대기업 서점 (ref. =0)	1개	-0.0126	(0.0288)	-0.0619	(0.0623)
	2개	0.0807	(0.0748)	0.0275	(0.1292)
	3개	0.0881	(0.0879)	-0.1899	(0.1776)
	4개	0.0413	(0.0896)	-0.1539	(0.1523)
t기 중고 서점 (ref. =0)	1개	-0.0122	(0.0287)	-0.1266*	(0.0651)
	2개	-0.1115**	(0.0486)	-0.1997**	(0.0926)
	3개	-0.2603**	(0.1052)	-0.3663***	(0.1389)
t-1기 중고 서점 (ref. =0)	1개	-0.0114	(0.0326)	-0.0626	(0.0692)
	2개	-0.0449	(0.0756)	-0.1790*	(0.1010)
	3개	-0.0548	(0.1392)	-0.2200**	(0.1050)
인구 변수	인구수	0.0049	(0.0064)	0.0048	(0.0050)
	취학 인구 비중	0.0616*	(0.0344)	0.0836**	(0.0392)
	고령 인구 비중	-0.0471*	(0.0246)	-0.0089	(0.0226)
도서관 변수	ln(방문자 수/인구)	-0.0678*	(0.0355)	0.0068	(0.0394)
	ln(대출자 수/인구)	-0.0281*	(0.0158)	-0.0166	(0.0161)
	ln(대출 권수/인구)	0.1209***	(0.0436)	0.0385	(0.0416)
	ln(자료 구입비)	0.0042	(0.0409)	0.0082	(0.0330)
	ln(자료 구입비 <sup>2</sup> )	0.0021	(0.0088)	-0.0117	(0.0095)
법인 변수	지점 비중	0.0031	(0.0049)	-0.0011	(0.0031)
	회사외 법인 비중	-0.0153***	(0.0038)	-0.0158***	(0.0043)
연도 (ref. 2014)	2015	0.1177***	(0.0331)	0.0433	(0.0339)
	2016	0.0847	(0.0550)	-0.0339	(0.0517)
	2017	0.1160	(0.0753)	0.0174	(0.0683)
	2018	0.1636	(0.0992)	0.1093	(0.0891)
	2019	0.2721**	(0.1189)	0.1269	(0.1039)
상수항		2.0252***	(0.6781)	0.2008	(0.8134)
R-squared		0.0675		0.0915	
지역 고정효과		YES		YES	

주: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내며, 6개년도 250개 시군구 단위 1,500개 표본을 고정효과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로 표준 오차는 군집 표준 오차 의미함

## 제4절 소결

---

정부는 그동안 소상공인 서점 영업권 보호를 위해 서점업에 대해 2번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2013년, 2016년)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2019년)을 했으나, 제도의 배경이 되는 대형 서점 출점으로 인해 소매 서점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전국 사업체 조사 6개년도(2014~2019년) 자료와 대형 서점 출·폐점 자료를 사용하여, 대형 서점의 출점이 소매 서점 수와 고용에 미친 영향을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여기서는 대형 서점을 규제 대상인 대기업 서점과 비대상인 중고 서점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향후 제도 변화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대기업 서점의 출점은 소매 서점 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중고 서점의 출점은 소매 서점 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냈다. 2014년 이후 1인 서점(독립 서점)이 급증한 것을 고려해 종사자 2인 이상 소매 서점 표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기업 서점과 중고 서점이 출점한 해에 소매 서점 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대기업 서점 보다 중고 서점 출점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대형 서점 출점이 소매 서점 종사자 수에 미친 영향을 보면, 대기업 서점의 출점은 종사자 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중고 서점의 출점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유형별로 보면, 대기업 서점의 출점은 일부 임금 근로자 수를 중심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며, 중고 서점의 출점은 비임금 근로자 수를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종사자 분석 결과를 비교하면, 대기업 서점의 출점으로 소매 서점 종사자 수가 증가하는 것은 중고 서점과 달리 대기업 서점이 출점하면서 고용한 임금 근로자가 종사자 수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대형 서점의 출점으로 소매 서점의 비임금 근로자 수가 감소되는 경향은 대형 서점의 출점으로 중 소형 소매 서점의 비용 절감 필요가 커지면서 이들 서점의 규모가 축소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형 서점 출점이 소매 서점 수와 종사자 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중소 소매 서점의 규모가 축소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영세 소매 서점의 영업권 보호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의해 출점이 제한되고 있는 대기업 서점보다 제한 대상이 아닌 유형이 중소형 서점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인한 대기업 서점의 출점 제한이 다른 유형의 사업자에게 사업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용 방식의 미시적인 조정을 통해 제도가 서점업(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으로 정의되는 대상들에게 영업권 보장과 경쟁력 기회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4-10〉 대형 서점 출점이 소매 서점 수와 고용에 미친 영향 종합

		소매 서점 수		종사자 수				
		전체	2인 이상	전체	상용	임시·일용	자영	무급 가족
t기 대기업 서점 (ref. =0)	1개	+	-	+	+	+	+	-
	2개	+	+	+***	+**	+	+	+
	3개	-	-*	+	+	+*	+	+
	4개	-	-	+*	+	+**	+	+
t-1기 대기업 서점 (ref. =0)	1개	-	+	-	-	+	-	-
	2개	+	+	+	-	-	+	+
	3개	+	+	+	+	-	+	-
	4개	+	+	-	-	+	+	-
t기 중고 서점 (ref. =0)	1개	+	-	-	+	+*	-	-*
	2개	-**	-**	-**	-	-	-**	-**
	3개	-***	-**	-***	-***	-***	-**	-***
t-1기 중고 서점 (ref. =0)	1개	-	-	-	+	-**	-	-
	2개	-	-	-	+	-	-	-*
	3개	-	-	-	-	+**	-	-**

주: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내며, 6개년도 250개 시군구 단위 1,500개 표본을 고정효과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임. 소매 서점 수는 해당 연도 신규 대기업 서점 출점 수를 제외한 값이며, 종사자 수 전체는 종사상 지위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종사자를 제외한 값임

본 연구는 소매 서점 수와 종사자를 중심으로 살펴봤으나 구체적인 영업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점 규모별 재무성과를 분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러나 전국 사업체 조사를 통해 시군구 단위 지역과 소매 서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해



야 하기에 사업체 재무적 성과 정보(매출액) 활용이 제한되었다. 그 대안으로 「경제총조사」, 「도소매업 조사」, 「서비스업 조사」를 연계하면 소매 서점의 매출액 등 재무적 성과와 함께 매장 면적, 도서 구매 및 판매 행태 등의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전수 조사와 표본 조사를 연계하는 과정이 어렵고, 지역과 산업을 세분류 단위에서 동시 제공하지 않고, 사업체 수가 2개 이하인 경우 마스킹 처리되어 있어 지역 기반 자료와 산업 기반 자료를 결합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다수 손실된다. 향후 대형 체인 서점 출점이 소매 서점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출판업 및 서점업 조사가 현황 파악을 넘어 유용한 정책 정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정교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상공인 서점 지원 정책 효과 분석

제5장

## 대형 서점 출·폐점이 소비자에게 미친 영향



# 제1절 분석 개요

## 1. 분석 목적

대기업 서점<sup>29)</sup>의 출점 및 폐점은 인근 지역 서점의 영업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소비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첫째, 대기업 서점의 출·폐점이 소비자의 도서 구입 행태(도서 구입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sup>30)</sup>, 둘째, 소비자가 도서를 구입할 때 대기업 서점과 그 외의 서점에 대한 수요가 차별성을 가지는지를 검토하고자 대기업 서점이 출·폐점한 인근 5km 이내 지역의 도서 구매자를 설문 조사한 자료를 분석한다.

3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서점주들은 서점의 유형을 막론하고 서점이 지역 및 주민에게 기여하는 소비자 후생으로서 ‘물성(物性)이 있는 책을 만날 수 있는 공간적 문화 인프라 제공’을 일관되게 꼽았으며, 이를 서점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라고 설명했다. 2021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가 도서 선택 시 이용하는 정보 1위는 ‘서점·도서관 등에서 책을 직접 보고’ 구매한다는 응답이었다(성인 22.6%, 학생 29.1%). 또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의 1호로 서점업이 지정되었을 당시 동반성장 위원회에서는 대기업의 최소한의 영업권 보장 및 소비자의 서점 접근성 등 소비자 후생을 함께 고려하여 대기업의 신규 출점을 연 1개로 지정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소비자 후생으로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요인 중에서도 소비자가 도서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오프라인 서점에서의 접근성’을 가장 우선적인 소비자 후생으로 간주하며, 이외에 도서의 다양성, 도서 구매의 용이성 등 소비자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29) 설문문항은 응답자의 이해를 위해 대형 서점으로 하여 조사했으나 해당 서점의 규모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제한을 받는 대기업에 해당되므로 분석에서는 대기업 서점으로 명시한다.

30) 최근 대기업 서점이 출·폐점한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를 조사한 자료의 활용은 첫째, 분석 결과의 적시성을 높이고, 둘째, 도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동시에 고려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 2. 분석 자료

### 가. 조사 대상 및 규모

대기업 서점의 출·폐점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점 인근 주민들이 서점 출·폐점 전후 서점 이용 행태를 응답할 수 있어야 하므로, 비교적 최근 대기업 서점이 출·폐점한 지역을 선정해야 했다. 따라서 조사 대상 지역은 최근 1년 이내(2022~2023년) 출점 및 폐점한 대기업 서점으로부터 5km 이내<sup>31)</sup> 반경으로 설정했다. 기준에 따라 출점 지역 1개, 폐점 지역 2개가 선별되었다. 출점 지역 A는 2022년 하반기에 출점한 서점의 반경 5km 이내 지역으로, 2개의 시가 걸쳐있으며, 각 시의 인구수와 서점 수를 합산하면 만 명당 서점 수가 3.3개인 지역이다. 폐점 지역 B는 2023년 상반기에 폐점한 서점의 반경 5km 이내 지역으로, 역시 2개의 시가 걸쳐 있으며, 각 시의 인구수와 서점 수를 합산하면 만 명당 서점 수가 2.3개인 지역이다. 폐점 지역 C는 2022년 상반기에 폐점한 서점의 반경 5km 이내 지역으로, 1개의 시에 해당하며, 만 명당 서점 수가 2개인 지역이다.

설문 조사의 대상은 각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오프라인 서점 실제 이용자를 가려내기 위해 2022년 1월 1일~2023년 7월 31일(1년 7개월) 기간 동안 오프라인 서점에서 도서를 한 번이라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로 제한했다. 오프라인 서점은 온라인 서점이 아닌 도서 판매 매장이 있는 서점을 말하며, 도서란, 소설, 경제·경영, 자기계발서, 정치·사회, 역사·문화, 잡지, 만화, 대학 교재, 자격증 수험서 등을 포함한 일반도서와 초·중·고 학습 참고서까지를 포괄한다.

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온라인 조사를 시행했으며, 2023년 8월 1일~2023년 8월 10일간 진행되어 만 14세~69세 남녀 응답자 총 556명이 응답하였다. 응답 사례 중 이상치와 응답 신뢰도가 낮은 2건을 제외하고 554명의 응답을 자료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31) 영풍은 심층 인터뷰에서 대기업 서점의 상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반경 5km 이내로 본다고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기업 진입 규제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대상으로서 출·폐점한 대기업 서점의 반경 5km 이내 거주자로 한정했다.

〈표 5-1〉 조사 대상 및 규모 설정

주요 내용				
조사 대상	최근 1년 이내(2022년~2023년) 출점 및 폐점한 대기업 서점으로부터 5km 이내 반경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 중 오프라인 서점에서 지난 1년 7개월간 도서를 한 번이라도 구매한 경험이 있는 만 14세~69세 남녀			
조사 지역	- 지역 A: 서점 수 만 명당 3.3개(2개 시 합산 인구수 200만, 서점 수 60개) - 지역 B: 서점 수 만 명당 2.3개(2개 시 합산 인구수 102만, 서점 수 45개) - 지역 C: 서점 수 만 명당 2개(1개 시 인구수 34만, 서점 수 17개)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자기기입식 조사			
조사 기간	2023. 8. 1.~8. 10.(10일간)			
규모 설정	<table border="1"> <tr> <td>대기업 서점 출·폐점 지역 주민 400+<math>\alpha</math>명 - 출점: 200+<math>\alpha</math> - 폐점: 200+<math>\alpha</math></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응답 결과                      - 지역 A(2022년 하반기 출점) 263명                      - 지역 B(2023년 상반기 폐점) 254명                      - 지역 C(2022년 상반기 폐점) 37명                 </td> </tr> </table>	대기업 서점 출·폐점 지역 주민 400+ $\alpha$ 명 - 출점: 200+ $\alpha$ - 폐점: 200+ $\alpha$	▶	응답 결과 - 지역 A(2022년 하반기 출점) 263명 - 지역 B(2023년 상반기 폐점) 254명 - 지역 C(2022년 상반기 폐점) 37명
대기업 서점 출·폐점 지역 주민 400+ $\alpha$ 명 - 출점: 200+ $\alpha$ - 폐점: 200+ $\alpha$	▶	응답 결과 - 지역 A(2022년 하반기 출점) 263명 - 지역 B(2023년 상반기 폐점) 254명 - 지역 C(2022년 상반기 폐점) 37명		

## 나. 조사 항목 및 절차

조사 항목은 대기업 서점의 출·폐점 이후 소비자의 도서 구매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조사의 목적에 따라 ▲현재 시점(2023년 1~7월)과 전년 동기(2022년 1~7월)의 도서 구매 현황, ▲지역 내 대기업 서점 출점·폐점에 대한 의견, ▲서점 이용 행태 및 독서 현황 등의 문항을 질문하였다.<sup>32)</sup>

조사는 스크린 질문으로 성별과 나이를 질문한 뒤, 동·면·리 단위의 구체적인 거주 지역을 파악하여 대기업 서점의 출·폐점 지점으로부터 반경 5km 이내 지역 거주자만을 응답 대상으로 했다. 현재 시점과 1년 전 동기간의 도서 구매 및 독서 현황은 아무런 사전 고지 없이 질문하였으며, 이후 지역 내 대기업 서점 출·폐점에 대한 의견은 출점 지역 A, 폐점 지역 B, 폐점 지역 C의 거주자에게 각각 해당 지역 대기업 서점의 출·폐점 정보를 공지한 뒤 응답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평상시 서점 이용 행태 및 서점 유형별 수요 등을 질문했다.

32) 구체적인 조사 항목 및 내용은 〈부록〉의 「서점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이용자 설문 조사지」를 참조하라.

〈표 5-2〉 조사 항목

	주요 내용
현재 도서 구매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 1월~7월 기간 온라인/오프라인 서점 도서 구입 현황</li> <li>• 2023년 1월~7월 기간 오프라인 서점 유형별 도서 구입 현황</li> </ul>
1년 전 도서 구매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1월~7월 기간 온라인/오프라인 서점 도서 구입 현황</li> <li>• 2022년 1월~7월 기간 오프라인 서점 유형별 도서 구입 현황</li> </ul>
지역 내 대기업 서점 출점·폐점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응답자 거주 지역 내 출·폐점한 대기업 서점 방문 경험</li> <li>• 대기업 서점 출·폐점 이후 도서 및 문화 인프라 이용량 변화</li> <li>• 대기업 서점의 출·폐점이 도서 구입 및 독서 환경에 미친 영향</li> </ul>
서점 이용 행태 및 독서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 후생 요인별 가장 부합하는 서점 유형</li> <li>• 대기업 서점 대비 중소형 서점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li> <li>• 거주지 도보 거리에 대기업 서점이 출·폐점하는 경우 주변 중소형 서점 이용 및 도서 구입 건수에 미치는 영향</li> <li>• 오프라인 서점 중 도서 구입 시 가장 선호하는 서점 유형</li> <li>• 서점 유형별 도서 구입 권수 변화</li> <li>• 거주 지역 내 각 서점 유형별 필요성 인식</li> </ul>

조사는 [그림 5-1]과 같이 조사 설계, 조사 수행 회의, 대상 추출, 조사 진행, 검증, 조사 처리 순으로 진행했다.

[그림 5-1] 조사 절차





### 3. 기초 통계량

#### 가. 인구통계학적 특징

응답자 특성은 일반적인 조사·통계 자료에서 제공하는 인구통계학적 특징과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구체적으로 <표 5-3>과 같다. 자료 분석에 사용된 응답 표본은 554명으로, 남성 223명(40.3%), 여성 331명(59.7%)으로 여성이 조금 더 많으며, 10대 45명(8.1%), 20대(104명(18.8%), 30대 164명(29.6%), 40대 164명(29.6%), 50대 이상 77명(13.9%)으로 30~40대가 가장 많이 집계되었다.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137명(24.7%), 대학교 졸업 364명(65.7%), 대학원 졸업 이상 53명(9.6%)으로 대학교 졸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응답자의 결혼 여부는 미혼 228명(41.2%), 자녀가 없는 기혼자 41명(7.4%), 고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기혼자 235명(42.4%), 성인 자녀가 있는 기혼자 50명(9%)으로 기혼자의 비중이 조금 더 높았다. 직업은 사무직이 35.6%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14.4%), 전업주부(14.3%), 전문직(11.5%)이 뒤를 이었다. 월평균 가구 소득은 400만 원 미만 190명(34.3%), 400~700만 원 미만 222명(40.1%), 700만 원 이상 142명(25.6%)으로 400~700만 원 구간이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출점 지역 A 263명(47.3%), 폐점 지역 B 254명(45.9%), 폐점 지역 C 37명(6.8%)으로 출점 및 폐점 지역 응답자 비율이 비교적 균등하게 배분되었다.

<표 5-3>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 수(명)	비중(%)	구분		사례 수(명)	비중(%)	
응답 표본		554	100					
성별	남성	223	40.3	직업	관리직	33	6.0	
	여성	331	59.7		전문직	64	11.5	
	연령	10대	45		8.1	사무직	197	35.6
20대		104	18.8		서비스직	36	6.5	
30대		164	29.6		판매직	15	2.7	
40대		164	29.6		기타직	30	5.4	
50대 이상		77	13.9		학생	80	14.4	
고졸 이하		137	24.7		전업주부	79	14.3	
최종 학력	대졸	364	65.7		가구 소득	무직	20	3.6
	대학원 졸 이상	53	9.6			4백만 원 미만	190	34.3
결혼	미혼	228	41.2	4~7백만 원 미만		222	40.1	
				7백만 원 이상	142	25.6		

구분		사례 수(명)	비중(%)	구분		사례 수(명)	비중(%)
여부	기혼(자녀 없음)	41	7.4	지역	지역 A(출점)	263	47.3
	기혼(비성인 자녀)	235	42.4		지역 B(폐점)	254	45.9
	기혼(성인 자녀)	50	9.0		지역 C(폐점)	37	6.8

〈표 5-4〉는 응답자 특성을 출점 지역과 폐점 지역으로 나누어 비교한 것이다. 두 집단 간 성별·연령·소득·학력 분포 및 도서 구입 행태와 관련 있는 독서량 및 결혼 유무(학습 참고서 구입 관련) 분포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5-4〉 대기업 서점 출·폐점 지역 응답자 특성 비교

구분	출점 지역		폐점 지역		
	사례 수(명)	비중(%)	사례 수(명)	비중(%)	
응답 표본	263	100	291	100	
성별	남성	112	42.6	111	38.1
	여성	151	57.4	180	61.9
연령	10대	22	8.4	23	7.9
	20대	50	19.0	54	18.6
	30대	73	27.8	91	31.3
	40대	85	32.3	79	27.1
	50대 이상	33	12.5	44	15.1
최종 학력	고졸 이하	56	21.3	81	27.8
	대졸	176	66.9	188	64.6
	대학원 졸 이상	31	11.8	22	7.6
결혼 여부	미혼	103	39.2	125	43.0
	기혼(자녀 없음)	14	5.3	27	9.3
	기혼(비성인 자녀)	125	47.5	110	37.8
	기혼(성인 자녀)	21	8.0	29	10.0
직업	관리직	16	6.1	5.8	5.8
	전문직	32	12.2	11.0	11.0
	사무직	97	36.9	34.4	34.4
	서비스직	13	4.9	7.9	7.9
	판매직	4	1.5	3.8	3.8
	기타직	8	3.0	7.6	7.6
	학생	37	14.1	14.8	14.8
	전업주부	47	17.9	11.0	11.0
가구 소득	무직	9	3.4	3.8	3.8
	4백만 원 미만	74	28.1	116	39.9
	4~7백만 원 미만	106	40.3	116	39.9
	7백만 원 이상	83	31.6	59	20.3

## 나. 응답자의 도서 이용 행태

### 1) 도서 구입 행태

현재 시점(2023. 1.~2023. 7.)과 전년 동기간(2022. 1.~2022. 7.) 모두 오프라인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현재와 1년 전 도서 구매 평균 권수의 차이는 <표 5-5>와 같다. 전체적으로, 응답자는 전년 동기 대비 올해 도서를 0.88권 더 많이 샀으며, 자신이 거주하는 시내에 있는 서점(0.45권), 자신의 거주지 시외에 있는 서점(0.17권), 온라인 전자책(0.2권), 온라인 종이책(0.05권)순으로 많이 구입했다.

대기업 서점 출점 지역에 있는 오프라인 시내 서점에서의 도서 구입 권수는 1년 전 2.7권에서 현재 3.26권으로 0.56권 증가했다. 대기업 서점 폐점 지역의 오프라인 시내 서점 도서 구입 권수는 1년 전 2.7권에서 현재 3.05권으로 0.35권 증가하여, 폐점 지역의 오프라인 시내 서점 도서 구입 권수가 출점 지역 대비 더 적게 나타났다. 오프라인 서점과 온라인서점의 도서 구입 권수 총합은 출점 지역 1.58권, 폐점 지역 0.23권으로 출점 지역이 월등히 많았다.

<표 5-5> 도서 구입 행태 변화

		1~7월(A)	전년 동기(B)	A-B
전체	오프라인 시내	3.15	2.70	0.45
	오프라인 시외	0.70	0.53	0.17
	온라인 종이책	2.76	2.71	0.05
	온라인 전자책	0.78	0.58	0.2
	총 구입 권수	7.40	6.52	0.88
출점 지역	오프라인 시내	3.26	2.70	0.56
	오프라인 시외	0.93	0.69	0.24
	온라인 종이책	2.97	2.61	0.36
	온라인 전자책	0.96	0.54	0.42
	총 구입 권수	8.12	6.54	1.58
폐점 지역	오프라인 시내	3.05	2.70	0.35
	오프라인 시외	0.50	0.39	0.11
	온라인 종이책	2.57	2.80	-0.23
	온라인 전자책	0.62	0.61	0.01
	총 구입 권수	6.74	6.51	0.23

## 2) 독서 및 도서 대출 행태

응답자의 전반적인 독서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서는 최근 1년(2022. 8. ~ 2023. 7.) 동안 교과서, 학습 참고서, 수험서를 제외한 책을 몇 권이나 읽었는지 확인하였다. 조사 결과 연평균 독서량은 10.26권으로 독서량을 측정하는 조사 통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sup>33)</sup> 출점 지역 11.93권으로 가장 독서량이 많게 나타났는데, 이는 초·중·고교 학생의 독서량이 높은 데서 기인한다. 성인 독서량은 폐점 지역 약 8.91권으로 출점 지역에 비해 많게 나타났다.

월평균 도서관 방문 횟수는 월 0.69회로 모든 지역의 비슷한 경향을 보이며 초·중·고교 학생에 비해 성인의 도서관 방문 횟수가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도서 대출 권수는 약 1.65권으로 성인이 비해 초·중·고교 학생의 대출 권수가 모든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도서관 방문 횟수, 대출 권수 모두 폐점 지역보다 출점 지역이 많게 나타났다.

〈표 5-6〉 독서 및 도서 대출 행태

	전체	출점 지역	폐점 지역
연평균 독서량(권)	10.26	11.93	8.75
초·중·고교 학생	29.69	53.50	6.91
성인	8.54	8.13	8.91
월평균 도서관 방문 횟수(회)	0.69	0.73	0.65
초·중·고교 학생	0.60	0.59	0.61
성인	0.70	0.75	0.65
월평균 도서 대출 권수(권)	1.65	2.15	1.20
초·중·고교 학생	2.24	2.63	1.86
성인	1.60	2.11	1.14

주: 월평균 도서관 방문 횟수와 도서 대출 권수는 한 달 기준으로 환산한 것으로 거의/전혀 방문하지 않음을 방문 횟수 0, 거의/전혀 빌리지 않음을 대출 권수 0으로 하여 환산한 값임

33) 「2021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2020년 9월~2021년 8월)간 종이책과 전자책·소리책(오디오퓌드)을 합한 성인의 평균 종합 독서량은 4.5권, 지난 1년간 일반도서를 1권 이상 읽거나 들은 사람의 비율인 연간 종합 독서율도 47.5%로, 초·중·고교 학생은 연간 종합 독서량(교과서·참고서 등 제외)이 34.4권, 종합 독서율이 91.4%로 나타났다. 두 조사 자료의 초·중·고교 학생의 독서량은 유사하게 나타나는 반면 성인의 독서량은 많게 나타나는데 그 원인은 두 가지이다. 첫째, 조사에서 성인의 독서율은 90%로 나타나는데 이는 평균 독서량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한다. 둘째, 조사가 독서 가능성이 높은 최근 도서 구입 경험이 있는 대상을 조사했기 때문이다.

## 제2절 분석 결과

### 1. 대기업 서점 출·폐점 후 도서 구입 행태 변화

#### 가. 분석 방법

조사 결과를 이용해 대기업 서점 출·폐점 후 개인의 도서 구입 행태 변화를 실증 분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축약형 방정식을 사용하였다. 여기서는 대기업 서점 출·폐점 후 소비자의 서점 유형별 도서 구입 비중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회고적 방식으로 직전년 동기 도서 구입 행태를 동시에 조사한 결과로 개인별 2기간 패널 자료를 구축하면 개인별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고유한 특성인 고정효과( $\mu_i$ )와 고유오차( $\nu_{ijt}$ )로 구분되는 다음과 같은 고정효과 모형을 설정할 수 있다.

$$y_{ijt} = \alpha + \sum_{k=o,c} \beta_k [l_j = k] \cdot (use_{ijt} \cdot yr_t) + \mu_i + \nu_{ijt}$$

여기서  $i$ 는 554명의 개인을 의미하며,  $j$ 는 대기업 서점의 출점과 폐점 지역을,  $t$ 는 시점을 나타낸다.  $y_{ijt}$ 는 대형 서점이 출점 또는 폐점한  $j$ 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  $i$ 의 각 시점( $t$ )별 도서 구입 행태 변수를 의미한다. 실제 도서 구입량을 통해 온·오프라인 서점 구입 비중, 지역 내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한 도서 중 대형 체인 서점, 중소형 서점, 독립 서점, 중고 서점의 구입 비중을 분석한다. 또한, 지역 내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한 도서를 일반도서와 학습 참고서로 구분하여 각 비중을 분석한다.

가상 도서 구입량은 “귀하께서 연간 서점에서 10권의 도서(학습 참고서 포함)를 구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서점 유형별(대기업 오프라인 서점, 대기업 서점 외 오프라인 서점, 온라인 서점) 도서 구입 권수 과거 2년 간(‘21~‘22년), 현재(‘23년), 향후 2년 후(‘25년)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여기서는 응답자의 서점 유형별 도서 구입량을 오프라인 대기업 서점, 오프라인 중소형 서점, 온라인 서점의 도서 구입 비

중으로 변화하여 분석한다.

다음으로 대기업 서점 출·폐점 효과성을 식별하는 변수를 구성한다. 우선 대기업 서점 출·폐점의 영향은 해당 서점의 이용자와 비이용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용자는 대기업 서점 출·폐점으로 다른 유형 서점의 도서 구입 비중이 변하지만 비이용자의 서점 유형별 도서 구입 비중이 대기업 서점 출·폐점에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대기업 서점을 이용자는 비이용자에 비해 출점의 경우 다른 유형 서점의 도서 구입 비중이 줄어들 것이고, 폐점의 경우 다른 유형 서점의 도서 구입 비중이 늘어날 것이다. 이에 대기업 서점 이용자와 비이용자를 각각 처치 집단과 비교 집단으로 구분하고 대기업 서점 출·폐점을 시기로 구분하면 대기업 서점 이용자의 서점 유형별 도서 구입 비중의 상대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즉,  $[l_i = k] \cdot (use_{ijt} \cdot yr_t)$ 는 대기업 서점의 출·폐점 효과의 이질성을 보여주는 이질적 처치 효과이다. 여기서  $k$ 는  $o$ =출점 지역과  $c$ =폐점 지역을 의미한다. 추정치  $\beta_k$ 는 대기업 서점 출·폐점 지역별 비이용자 대비 이용자의 서점 유형별 도서 구입 비중의 변화를 보여 준다.

#### 나. 실제 구입량 기반 서점 유형별 도서 구입 비중 변화

이하 분석 결과는 대기업 서점 출·폐점이 실제 구입량 기반 서점 유형별 도서 구입 비중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여 준다. 이하 모든 결과에서 보이는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내며, 표준오차는 균집 표준 오차를 나타낸다.

〈표 5-7〉은 대기업 서점 출·폐점이 온·오프라인 서점 도서 구입 비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 준다. 출점 지역의 경우 대기업 서점 이용자가 비이용자에 비해 오프라인 서점 도서 구입 비중은 증가하고, 온라인 서점 도서 구입 비중은 감소하며, 폐점 지역은 출점 지역과 반대 경향이 나타난다. 도서 구입 비중의 변화가 유의하지는 않으나 계수 추정치의 방향성을 보면 대기업 서점의 출점은 상대적으로 오프라인 서점의 도서 구입 비중을, 폐점은 온라인 서점의 도서 구입 비중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용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7〉 온·오프라인 서점 도서 구입 비중 변화

	오프라인 서점 구입 비중		온라인 서점 구입 비중	
	계수 추정치	표준 오차	계수 추정치	표준 오차
출점 지역×이용자×시점	0.489	(4.361)	-0.489	(4.361)
폐점 지역×이용자×시점	-1.413	(4.383)	1.413	(4.383)
2023년(ref. 2022년)	2.124	(3.159)	-2.124	(3.159)
상수항	-4,234.8	(6,387.6)	4,334.8	(6,387.6)
관측치수	932		932	
개인 수	466		466	

주: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내며, 2개년도 554명 중 2개년도 모두 도서 구입이 식별된 표본을 고정효과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로 표준 오차는 군집 표준 오차 의미함

〈표 5-8〉은 대기업 서점 출·폐점이 오프라인 서점 유형별 도서 구입 비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 준다. 출점 지역의 경우 대기업 서점 이용자가 비이용자에 비해 대기업 서점과 중소형 서점 도서 구입 비중은 감소하나 유의미한 값은 아니다. 독립 서점과 중고 서점의 도서 구입 비중은 증가하나 그 크기 또한 유의미하지 않다.

〈표 5-8〉 오프라인 서점 유형별 도서 구입 비중 변화

	대기업 서점 비중	중소형 서점 비중	독립 서점 비중	중고 서점 비중
출점 지역×이용자×시점	-2.704 (5.350)	-0.735 (4.777)	2.603 (2.723)	0.835 (2.265)
폐점 지역×이용자×시점	-12.529** (5.478)	11.585** (5.212)	-1.181 (1.588)	2.125 (1.457)
2023년(ref. 2022년)	-1.629 (3.841)	1.538 (3.498)	0.606 (1.524)	-0.515 (1.265)
상수항	3,368.4 (7,767.5)	-3,092.7 (7,073.9)	-1,221.7 (3,082.4)	1,046.0 (2,558.6)
관측치수	754			
개인 수	434			

주: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내며, 2개년도 554명 중 2개년도 모두 지역 내 오프라인 서점에서의 도서 구입이 식별된 표본을 고정효과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로 ( )는 군집 표준 오차를 의미함

폐점 지역의 경우 대기업 서점 이용자가 비이용자에 비해 대기업 서점의 도서 구입 비중은 약 12.5%p 감소하고 중소형 서점의 도서 구입 비중은 11.6%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에 대기업 서점이 폐점하면서 해당 서점의 도서 구입 수요가 인근

다른 오프라인 서점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반면 독립 서점의 도서 구입 비중을 감소하고 중고 서점의 도서 구입 비중은 증가하나 유의미한 값은 아니다.

〈표 5-9〉는 대기업 서점 출·폐점이 오프라인 서점 도서 유형별 도서 구입 비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 준다. 출점 지역의 경우 대기업 서점 이용자가 비이용자에 비해 일반도서 구입 비중은 증가하나 학습 참고서 구입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값은 아니다. 폐점 지역의 경우 대기업 서점 이용자가 비이용자에 비해 일반도서 구입 비중은 약 5.3%p 감소하고 학습 참고서 구입 비중은 5.3%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에 대기업 서점이 폐점하면 도서 유형별로 도서 구입 수요가 상이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즉, 대기업 서점의 폐업을 하면 학습 참고서 구입 수요 중심으로 인근 다른 오프라인 서점으로 이동하고, 일반도서 구입 수요는 상대적으로 지역 외 오프라인 서점 및 온라인 서점 등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 5-9〉 오프라인 서점 도서 유형별 도서 구입 비중 변화

	일반도서 비중		학습 참고서 비중	
	계수 추정치	표준 오차	계수 추정치	표준 오차
출점 지역×이용자×서점	3.035	(4.305)	-3.035	(4.305)
폐점 지역×이용자×서점	-5.330*	(3.216)	5.330*	(3.216)
2023년(ref. 2022년)	0.095	(2.537)	-0.095	(2.537)
상수항	-136.2	(5,129.6)	236.2	(5,129.6)
관측치수	754		754	
개인 수	434		434	

주: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내며, 2개년도 554명 중 2개년도 모두 지역 내 오프라인 서점에서의 도서 구입이 식별된 표본을 고정효과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로 표본 오차는 군집 표준 오차를 의미함

#### 다. 가상 구입량 기반 서점 유형별 도서 구입 비중 변화

응답자들의 과거, 현재, 미래 가상 도서 구입량을 도서 구입 비중으로 재구성하고 시점별로 비교하면 〈표 5-10〉과 같이 나타난다. 과거 2년간('21~'22년) 도서 구입 비중은 대기업 오프라인 서점 35.2%, 대기업 서점 외 오프라인 서점 21.4%로 나타난다. 현재 '23년 도서 구입 비중은 각각 32.3%, 22.7%, 45%로 나타나면 향후 2년 후에는 각각 29.6%, 18.5%, 51.8%로 나타난다. 과거에 비해 현재는 대기업 오프라인 서점에서의 도서 구입 비중은 줄고 대기업 서점 외 오프라인 서점과 온라인 서점의 도서 구입 비중



을 늘어났다. 현재에 비해 미래에는 오프라인 서점의 도서 구입 비중은 줄이고, 온라인 서점의 도서 구입 비중이 크게 늘릴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출점 지역은 과거에 비해 현재 대형 오프라인 서점의 도서 구입 비중은 줄고 온라인 서점을 도서 구입 비중은 감소해 대기업 오프라인 서점으로 도서 구입 수요가 유입되는 현상을 보여 준다. 반면 폐점 지역은 과거에 비해 현재 대기업 오프라인 서점의 도서 구입 비중은 크게 줄고 대기업 서점 외 오프라인 서점과 온라인 서점의 도서 구입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이는 과거 대기업 오프라인 서점의 도서 구입 수요가 인근 중소형 오프라인 서점과 온라인 서점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표 5-10〉 서점 유형별 가상 도서 구입 비중 변화

	도서 구입처	과거 2년간 (A)	현재(2023년) (B)	향후 2년 후 (C)	B-A	C-B	C-A
전체	대기업 오프라인 서점	35.2	32.3	29.6	-2.9	-2.7	-5.6
	대기업서점 외 오프라인 서점	21.4	22.7	18.5	1.3	-4.1	-2.9
	온라인 서점	43.4	45.0	51.8	1.6	6.8	8.4
지역 A (출점)	대기업 오프라인 서점	30.8	30.9	29.7	0.1	-1.2	-1.1
	대기업서점 외 오프라인 서점	24.8	25.7	21.5	0.9	-4.2	-3.3
	온라인 서점	44.4	43.4	48.9	-1.0	5.4	4.5
지역 B (폐점)	대기업 오프라인 서점	40.3	35.0	30.4	-5.3	-4.6	-9.9
	대기업서점 외 오프라인 서점	17.0	18.5	15.0	1.5	-3.6	-2.0
	온라인 서점	42.7	46.5	54.6	3.8	8.1	11.9
지역 C (폐점)	대기업 오프라인 서점	32.4	24.9	24.3	-7.6	-0.5	-8.1
	대기업서점 외 오프라인 서점	26.2	29.5	22.2	3.2	-7.3	-4.0
	온라인 서점	41.4	45.7	53.5	4.3	7.8	12.1

### 1) 2기간 자료 분석

이상의 결과를 심층적으로 보기 위해 대기업 서점 출·폐점이 가상 구입량 기반 서점 유형별 도서 구입 비중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이차 모든 결과에서 보이는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내며, 표 준오차는 군집 표준 오차를 나타낸다.

〈표 5-11〉은 대기업 서점의 출·폐점이 서점 유형별 도서 구입 비중에 미친 영향을 보여 준다. 현재와 과거를 비교한 분석 결과를 보면, 출점 지역의 경우 오프라인 서점의

도서 구입 비중은 증가하고 온라인 서점의 도서 구입 비중은 감소하나 유의미한 값은 아니다. 반면 폐점 지역의 경우 대형 오프라인 서점의 도서 구입 비중은 5.6%p 감소하며 온라인 서점의 도서 구입 비중은 3.8%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와 현재를 비교한 분석 결과를 보면, 출점 지역의 경우 대기업 서점 외 오프라인 서점의 도서 구입 비중은 4.2%p 감소하는 반면 온라인 서점의 도서 구입 비중은 5.4%p 증가했다. 폐점 지역의 경우 오프라인 서점의 도서 구입 비중은 각각 4.1%p 감소하는 반면, 온라인 서점의 도서 구입 비중은 8.1%p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1〉 서점 유형별 도서 구입 비중 변화(2기간-이용 여부 비교러)

		대기업 오프라인 서점	대기업 서점 외 오프라인 서점	온라인 서점
현재 구입 비중 -과거 구입 비중	출점 지역×서점	0.114 (1.193)	0.875 (1.260)	-0.989 (1.434)
	폐점 지역×서점	-5.601*** (1.281)	1.753 (1.112)	3.849*** (1.302)
	상수항	35.235*** (0.440)	21.336*** (0.418)	43.430*** (0.483)
미래 구입 비중 -현재 구입 비중	출점 지역×서점	-1.217 (0.970)	-4.221*** (0.989)	5.437*** (1.166)
	폐점 지역×서점	-4.055*** (1.111)	-4.055*** (0.984)	8.110*** (1.200)
	상수항	32.347*** (0.372)	22.671*** (0.349)	44.982*** (0.419)
관측치수		1,108	1,108	1,108
개인 수		554	554	554

주: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내며, 2기간 554명의 표본을 고정효과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로 ( )는 군집 표준 오차를 의미함

〈표 5-12〉는 대기업 오프라인 서점 이용 여부를 고려한 대기업 서점의 출·폐점이 서점 유형별 도서 구입 비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 준다. 현재와 과거를 비교한 분석 결과를 보면, 출점 지역의 경우 대기업 오프라인 서점의 도서 구입 비중이 8.2%p 증가하는 반면 온라인 서점의 도서 구입량을 7.7%p 감소했다. 반면 폐점 지역의 경우 서점 유형별 도서 구입 비중은 다소 변하나 유의미하지는 않다. 미래와 현재를 비교한 분석 결과를 보면, 출·폐점 지역 상관없이 대기업 오프라인 서점 이용 여부의 서점 유형

별 도서 구입 비중에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5-12〉 서점 유형별 도서 구입 비중 변화(2기간-이용 여부 고려)

		대기업 오프라인 서점	대기업 서점 외 오프라인 서점	온라인 서점
현재 구입 비중 -과거 구입 비중	출점 지역×이용자×시점	8.216*** (2.175)	-0.516 (2.216)	-7.699*** (2.445)
	폐점 지역×이용자×시점	0.448 (2.089)	0.694 (1.827)	-1.142 (2.207)
	현재(ref. 2년 전)	-5.421*** (1.513)	1.262 (1.263)	4.159*** (1.509)
	상수항	10,995.608*** (3,058.848)	-2,529.786 (2,554.670)	-8,365.823*** (3,051.309)
미래 구입 비중 -현재 구입 비중	출점 지역×이용자×시점	2.931 (1.787)	-0.297 (1.779)	-2.635 (2.091)
	폐점 지역×이용자×시점	1.132 (1.809)	1.357 (1.610)	-2.489 (2.008)
	2년 후(ref. 현재)	-3.925*** (1.200)	-4.486*** (1.135)	8.411*** (1.470)
	상수항	7,969.169*** (2,427.629)	9,093.326*** (2,294.485)	-16,962.495*** (2,971.803)
관측치수		1,108	1,108	1,108
개인 수		554	554	554

주: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내며, 2기간 554명의 표본을 고정효과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로 ( )는 군집 표준 오차를 의미함

## 2) 3기간 자료 분석

응답자들의 과거, 현재, 미래 3기간의 가상 도서 구입 비중을 확인할 수 있기에 응답자 554명의 3기간 가상 도서 구입량을 이용하면 1,662(554명×3기간)개 표본의 자료가 생성된다. 대기업 서점의 출·폐점 전인 과거 시점은 0, 후인 현재와 미래 시점은 1의 값을 갖게 되며, 이하 다른 내용은 앞에 제시된 분석 방법과 동일하다.

〈표 5-13〉은 3기간 가상 도서 구입 비중을 기반으로 한 대기업 서점의 출·폐점이 서점 유형별 도서 구입 비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 준다. 대기업 오프라인 서점 이용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출점 지역의 오프라인 서점의 도서 구입 비중은 소폭 증가하고 온라인 서점의 도서 구입 비중은 감소하나 유의미한 값은 아니다. 반면 폐점

지역의 경우 대기업 오프라인 서점의 도서 구입 비중은 6.3%p 감소하며 온라인 서점의 도서 구입 비중은 4.5%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오프라인 서점 이용 여부를 고려한 경우, 출점 지역의 대형 오프라인 서점의 도서 구입 비중이 9.7%p 증가하는 반면 온라인 서점의 도서 구입 비중은 9.0%p 감소했다. 반면 폐점 지역의 경우 서점 유형별 도서 구입 비중은 다소 변하나 유의미하지는 않다. 시점 효과를 보면, 2년 전보다 현재와 2년 후에 대기업 오프라인 서점의 도서 구입 비중을 감소하며, 대기업 서점 외 오프라인 서점의 도서 구입 비중은 2년 전 보다 2년 후에 감소하며, 온라인 서점의 도서 구입 비중은 2년 전 보다 현재와 2년 후 각각 4.9%p, 11.8%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2기간 분석 결과와 일치해 결과가 강건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표 5-13〉 서점 유형별 도서 구입 비중 변화(3기간)

		대기업 오프라인 서점	대기업 서점 외 오프라인 서점	온라인 서점
이용 여부 비교력	출점 지역×시점	0.859 (1.232)	0.831 (1.265)	-1.691 (1.494)
	폐점 지역×시점	-6.275*** (1.258)	1.792 (1.035)	4.483*** (1.328)
	2년 후 (ref. 현재)	-2.708*** (0.746)	-4.134*** (0.698)	6.841*** (0.841)
	상수항	35.235*** (0.589)	21.336*** (0.520)	43.430*** (0.682)
이용 여부 고려	출점 지역×이용자×시점	9.681*** (2.224)	-0.665 (2.128)	-9.017*** (2.592)
	폐점 지역×이용자×시점	1.014 (2.071)	1.372 (1.629)	-2.387 (2.345)
	현재 (ref. 2년 전)	-6.029*** (1.518)	1.085 (1.190)	4.944*** (1.558)
	2년 후	-8.737*** (1.614)	-3.048** (1.200)	11.785*** (1.754)
	상수항	35.235*** (0.586)	21.336*** (0.520)	43.430*** (0.680)
관측치수		1,662	1,662	1,662
개인 수		554	554	554

주: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내며, 3기간 554명의 표본을 고정효과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로 ( )는 군집 표준 오차를 의미함

## 2. 대기업 서점 출·폐점 후 소비자 후생 변화

### 가. 대기업 서점 출·폐점이 도서 및 문화 인프라 이용량에 미치는 영향

대기업 서점의 출점 및 폐점 이전 대비 소비자의 도서 및 문화 인프라 이용량 변화를 5점 척도(매우 감소(1점)~매우 증가(5점))로 조사한 결과, 출점 지역의 경우 3.22점으로 '약간 증가', 폐점 지역의 경우 2.7점으로 '약간 감소'로 나타나, 대기업 서점의 출점으로 인해 소비자의 도서 및 문화 인프라 이용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4〉 대기업 서점 출·폐점 이전 대비 도서 및 문화 인프라 이용량 변화

구분	이용량 변화(매우 감소 1~매우 증가 5)
출점 지역	3.14
폐점 지역	2.70

### 나. 대기업 서점 출·폐점이 도서 구매 및 독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대기업 서점 출점 및 폐점 이후 도서 구매 및 독서 환경에 미친 영향을 5점 척도(매우 부정적(1점)~매우 긍정적(5점))로 조사한 결과, 대기업 서점 출점 지역의 평균값은 3.39점이었고, 출점 이후 가장 긍정적인 영향이 미친 분야는 서점 접근성(3.64), 구매 도서 장르의 다양성(3.62), 원하는 책 찾기(3.58)순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서점 출점의 가장 큰 소비자 후생은 오프라인 서점 접근성의 증가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대기업 서점 폐점 지역의 경우 도서 구매 및 독서 환경 영향 평균값은 3.07점이었고, 온라인 서점 이용 횟수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3.46)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어, 대기업 서점의 폐점이 온라인 서점 이용 횟수를 증가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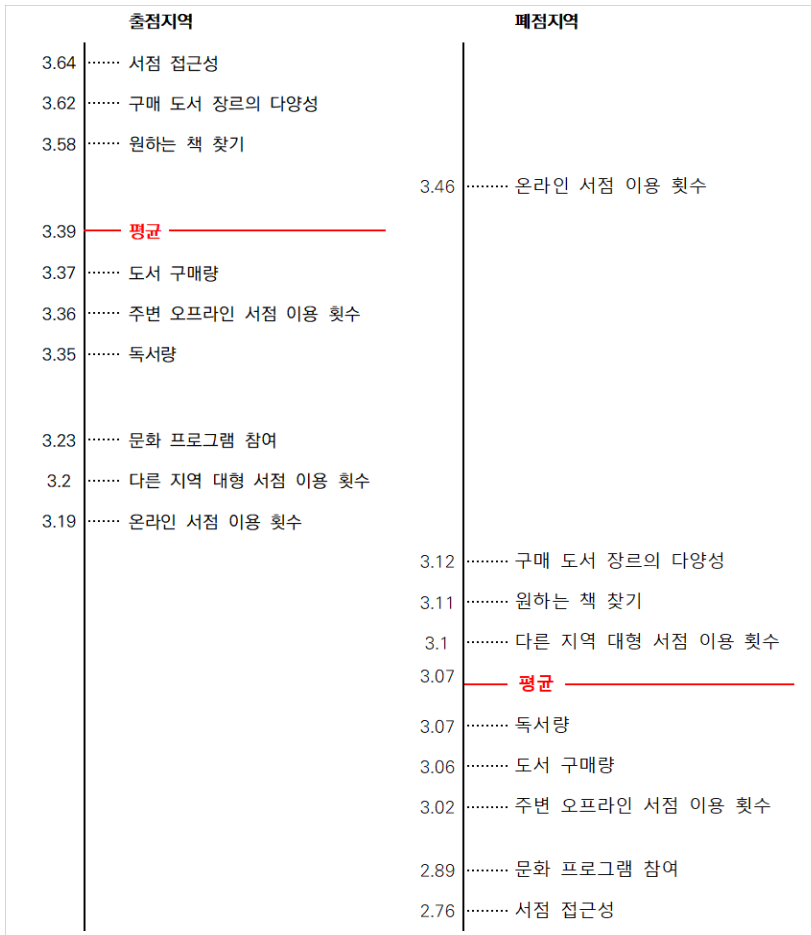
〈표 5-15〉 대기업 서점 출·폐점의 도서 구매 및 독서 환경 영향 비교

구분	출점 지역		폐점 지역
서점 접근성	3.64	>	2.76
주변 오프라인 서점 이용 횟수	3.36	>	3.02
다른 지역 대형 서점 이용 횟수	3.20	>	3.10
온라인 서점 이용 횟수	3.19	<	3.46
원하는 책 찾기	3.58	>	3.11

구분	출점 지역		폐점 지역
구매 도서 장르의 다양성	3.62	>	3.12
도서 구매량	3.37	>	3.06
독서량	3.35	>	3.07
문화 프로그램 참여	3.23	>	2.89
평균	3.39		3.07

주: 각 수치는 해당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매우 부정적(1점)-매우 긍정적(5점))로 응답한 값의 평균을 의미함

[그림 5-2] 대기업 서점 출·폐점 지역별 소비자 후생 영향 순위



주: 붉은 선은 출·폐점 지역별 소비자 후생에 미친 영향 평균값을 의미함

### 3. 서점 유형별 수요 차별성

#### 가. 서점 유형별 소비자 후생 요인

소비자가 서점에서 도서를 구매할 때 얻을 수 있는 소비자 후생 요인을 도서 선택의 다양성, 서점 접근성, 도서 구매 용이성, 저렴한 가격, 인프라 이용, 도서 외 상품 구매, 큐레이션 이용, 전문 서적 구매, 문화 행사 참여, 인적 교류, 정보 파악 등으로 구체화하고, 각 소비자 후생 요인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서점유형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파악했다.

그 결과 대기업 서점은 도서 선택의 다양성, 인프라 이용, 도서 외 상품 구매, 큐레이션 이용, 전문 서적 구매, 문화 행사 참여, 정보 파악에서 다른 서점들보다 월등하게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기업 서점들은 구비하는 도서의 종류와 양이 상대적으로 많고, 따라서 도서 선택 다양성, 전문 서적 구매, 정보 트렌드 파악에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대부분 규모가 대형 서점이기 때문에 공간적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문구 등 도서 외 상품의 판매 비중도 높다. 취향과 관심사 기반의 큐레이션 기능과 문화 행사 제공은 독립 서점에서 주력하고 있는 분야이나 이 요인에 대해서도 대기업 서점이 우위에 있는 것은 자본의 차이일 가능성이 있다. 중소형 서점은 서점의 접근성에서, 독립 서점은 인적 교류에서, 온라인 서점은 도서 구매 용이성과 저렴한 가격 면에서 다른 서점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독립 서점의 경우 경쟁 우위에 있는 요인이 인적 교류이기 때문에 독서 모임 등 지역 주민과 긴밀히 교류하는 독립 서점의 특성상 다른 서점이 이를 대체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온라인 서점의 경우에도 온라인의 매체적 특성으로 인해 오프라인 서점에 방문하지 않고도 검색을 통해 쉽게 도서를 구매할 수 있고 자택에서 받아볼 수 있는 장점 등으로 용이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온라인 서점에만 적용되는 할인 제도가 막강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소형 서점의 경우에는 서점의 접근성 요인에서만 우위를 보이는데, 대기업 서점이 출점하는 경우 가장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소비자 후생이 서점의 접근성이었기 때문에 중소형 서점 인근에 대기업 서점이 출점하는 경우 중소형 서점은 경쟁력을 잃고 대기업 서점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

〈표 5-16〉 서점 유형별 소비자 후생 요인

소비자 후생 요인	서점 유형	대기업 서점	중소기업 서점	중소형 서점	독립 서점	중고 서점	온라인 서점
① (도서 선택의 다양성) 도서의 종류가 다양함		<b>53.6</b>	3.8	6.0	3.1	2.5	31.0
② (접근성) 집이나 생활 동선에서 가까움		20.4	9.0	<b>30.0</b>	21.3	5.2	14.1
③ (용이성) 원하는 책을 찾거나 얻기 쉬움		39.0	6.7	6.7	5.6	2.2	<b>39.9</b>
④ (경제성) 할인, 적립 등 가격이 저렴함		17.7	8.3	9.6	6.5	17.7	<b>40.3</b>
⑤ (인프라) 독서·휴게 공간 등 인프라 이용		<b>74.0</b>	9.0	6.7	4.7	3.4	2.2
⑥ (융복합) 문구 등 도서 외 상품 구매 가능성		<b>61.4</b>	12.1	8.5	6.5	2.5	9.0
⑦ (큐레이션) 취향, 관심사 기반 큐레이션 이용		<b>52.9</b>	9.9	7.2	10.1	3.4	16.4
⑧ (전문성) 전문서적 구비 및 구매 가능성		<b>41.9</b>	5.6	6.1	6.9	5.2	34.3
⑨ (문화 행사) 서점 제공 문화 행사 등 참여		<b>56.5</b>	9.7	14.8	8.1	3.1	7.8
⑩ (교류) 독서 모임, 주민 교류 등 인적 교류		27.1	7.8	26.9	<b>30.3</b>	4.2	3.8
⑪ (정보성) 현재 중요한 정보(트렌드) 파악		<b>59.2</b>	11.0	6.3	6.5	1.3	15.7

## 나. 서점 유형별 소비자 인식 비교

### 1) 소비자의 가치 인식

서점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은 전반적으로 중소형 서점보다 대기업 서점의 가치를 더 높게 보고 있었다. 대기업 서점을 통해 얻는 가치의 총합을 100점이라고 했을 때, 중소형 서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는 출점 지역 69.7점, 폐점 지역 66.2점으로, 출점 지역에 있는 중소형 서점이 더 높게 평가되었다. 최빈값을 보면, 출점 지역은 중소형 서점의 가치를 대기업 서점의 80% 정도로 평가한 사람이 가장 많은 반면, 폐점 지역은 50% 정도로 평가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따라서 대기업 서점이 없는 폐점 지역에서 중소형 서점의 가치가 대기업 서점 대비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7〉 대기업 서점 대비 중소형 서점 가치

거주지 구분	사례 수	최솟값	최댓값	최빈값	평균	표준편차
출점 지역	263	1	180	80	69.7	24.957
폐점 지역	291	0	200	50	66.2	27.568



## 2) 대기업 서점 출·폐점 시 중소형 서점 이용 변화 예상

거주지 도보 거리에 대기업 서점이 출점 또는 폐점하는 경우 거주지 주변의 중소형 서점 이용 및 도서 구매 건수 변화를 5점 척도(매우 감소(1점)~매우 증가(5점)로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대기업 서점이 출점하는 경우 중소형 서점 이용 및 구매는 '약간 감소(2.31점)'하고, 폐점하는 경우에는 중소형 서점 이용 및 구매가 '약간 증가(3.54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성은 응답자의 거주지가 출점 지역인 경우보다 폐점 지역인 경우 더 크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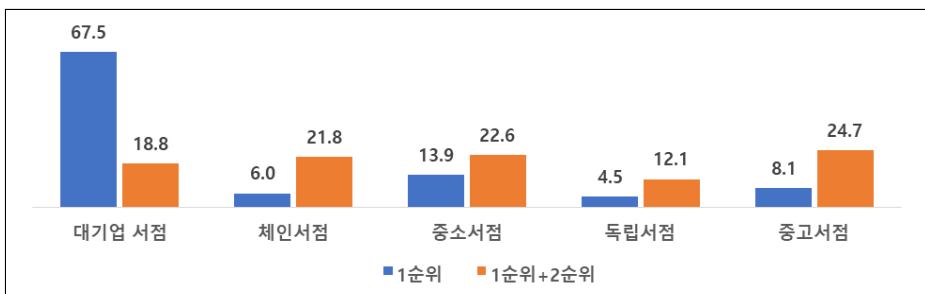
〈표 5-18〉 대기업 서점 출·폐점 시 중소형 서점 이용 변화

상황	응답자 거주지	거주지 주변 중소형 서점 이용 및 도서 구매 건수 영향(%)					평균값 (1점~5점)
		매우 감소	약간 감소	영향 없음	약간 증가	매우 증가	
대기업 서점이 출점하는 경우	출점 지역	20.9%	40.3%	23.2%	14.1%	1.5%	2.35
	폐점 지역	30.6%	31.6%	20.6%	14.8%	2.4%	2.27
	전체	26%	35.7%	21.8%	14.4%	2.0%	2.31
대기업 서점이 폐점하는 경우	출점 지역	1.5%	6.8%	36.5%	48.7%	6.5%	3.52
	폐점 지역	1%	6.2%	38.5%	44.7%	9.6%	3.56
	전체	1.3%	6.5%	37.5%	46.6%	8.1%	3.54

## 3) 서점 유형 선호도

오프라인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할 때 가장 선호하는 서점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 1순위는 대기업 서점이 67.5%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서 중소형 서점(13.9%), 중고 서점(8.1%), 중소기업 서점(6.0%), 독립 서점(4.5%)순이었다.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경우에는 중고 서점이 24.7%로 1위, 중소형 서점이 22.6%, 중소기업 서점 21.8%, 대기업 서점 18.8%, 독립 서점 12.1%로 순위가 바뀌며 서점 간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비등해졌다.

[그림 5-3] 오프라인 서점 이용 선호도



#### 4) 서점 유형별 필요성 인식

응답자가 거주지 주변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오프라인 서점을 유형별로 확인한 결과, 대기업 서점(4.01점), 중고 서점(3.86점), 중소형 서점(3.56점), 독립 서점(3.45점), 중소기업 서점(3.40점) 순으로 나타났다. 출점 지역과 폐점 지역의 응답을 비교하면, 대기업 서점 출점 지역보다 폐점 지역에서 중소기업 서점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서점 필요성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 서점에 대한 수요가 폐점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표 5-19〉 출점 지역·폐점 지역별 서점 유형별 필요성 인식

서점 유형	응답자 거주지	거주지 주변 서점 유형별 필요성 인식(%)					평균값 (1점~5점)
		전혀 필요 없음	별로 필요 없음	보통	약간 필요함	반드시 필요함	
대기업 서점	출점 지역	1.1%	5.7%	16.3%	44.5%	32.3%	4.01
	폐점 지역	0.3%	4.1%	14.1%	46.0%	35.4%	4.12
	전체	0.7%	4.9%	15.2%	45.3%	33.9%	4.07
중소기업 서점	출점 지역	2.3%	14.1%	34.6%	38.8%	10.3%	3.41
	폐점 지역	1.7%	14.4%	36.8%	36.4%	10.7%	3.40
	전체	2.0%	14.3%	35.7%	37.5%	10.5%	3.40
중소형 서점	출점 지역	2.7%	10.6%	32.3%	40.7%	13.7%	3.52
	폐점 지역	1.4%	9.6%	34.4%	37.1%	17.5%	3.60
	전체	2.0%	10.1%	33.4%	38.8%	15.7%	3.56
독립 서점	출점 지역	3.8%	13.7%	36.5%	32.7%	13.3%	3.38
	폐점 지역	2.7%	13.7%	30.2%	36.8%	16.5%	3.51
	전체	3.2%	13.7%	33.2%	34.8%	15.0%	3.45
중고 서점	출점 지역	1.9%	6.1%	26.6%	38.4%	27.0%	3.83
	폐점 지역	1.4%	5.8%	19.2%	48.8%	24.7%	3.90
	전체	1.6%	6.0%	22.7%	43.9%	25.8%	3.86

## 제3절 소결

### 1. 도서 구입 행태 관점

실제 도서 구입량 정보를 활용하여 대기업 서점 출·폐점이 서점 유형별 도서 구입 비중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출점 지역은 오프라인 서점 도서 구입 비중이, 폐점 지역은 온라인 서점 도서 구입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출점 지역의 오프라인 서점 유형별 도서 구입 비중을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sup>34)</sup> 반면 폐점 지역의 오프라인 서점 유형별 도서 구입 비중의 변화를 보면, 대형 서점의 비중이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중소형 서점의 비중은 증가한다. 또한 일반도서와 학습 참고서로 도서 유형을 구분해 보면, 일반도서 구입 비중은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학습 참고서 구입 비중은 증가한다. 이상의 결과는 대기업 서점 폐점 시 대기업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수요가 인근 중소형 서점으로 이전되지만 학습 참고서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20〉 실제 구입량 기반 서점 유형별 도서 구입 비중 변화

	온·오프라인 서점		오프라인 서점 유형별				도서 유형별	
	오프라인 서점	온라인 서점	대기업 서점	중소형 서점	독립 서점	중고 서점	일반도서	학습 참고서
출점 지역	+	-	-	-	+	+	+	-
폐점 지역	-	+	- **	+ **	-	+	- *	+ *

주: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미함을 나타내며, 대기업 서점 출·폐점 지역 거주 소비자들의 서점 유형별 실제 도서 구입 비중 변화를 고정효과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임

34) 4장의 분석 결과와 소비자의 도서 구입 행태 변화에 있어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대기업 서점 출점 지역의 오프라인 서점 유형별 도서 구입 비중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3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대형 서점 출점이 오프라인 서점에 주는 영향은 시간을 두고 나타난다. 둘째, 분석 시점상 대형 서점이 빠르게 증가하던 시기와 추가적인 출점이 거의 없는 시기의 대형 서점 출점 효과는 다르다. 셋째, 분석에 활용한 출점 지역은 대형 서점이 이미 많이 분포해 있는 수도권 지역이어서 대형 서점의 출점이 소비자의 도서 구입 비중에 미치는 효과가 상쇄된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측면에서 봤을 때, 대기업 서점의 출점 효과는 시장 상황, 지역, 행동 변화의 시차 등에 따라 영향력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대기업 서점의 폐점은 출점과 반대 효과를 창출한다고 볼 때, 대기업 서점의 출점 제한과 학습 참고서 판매 제한이 중소 서점 영업권을 보호하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나 그 크기는 작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다음으로 가상 도서 구입량 정보를 활용하여 대기업 서점 출·폐점이 서점 유형별 도서 구입 비중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출점 지역에서는 단기적으로 오프라인 서점의 도서 구입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온라인 서점의 비중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출점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오프라인 서점의 도서 구입 비중은 감소하고 온라인 서점의 비중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특히 대기업 서점의 오프라인 서점과 온라인 서점의 도서 구입 비중의 변화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폐점 지역의 도서 구입 비중은 대기업 오프라인 서점에서 크게 줄고, 온라인 서점에서 크게 증가하는데 이는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3기간을 통합하여 분석하면, 대기업 오프라인 서점이 폐점한 지역에서 온·오프라인 서점 간의 도서 구매자 이동이 나타난다.

이상의 결과는 대기업 서점의 출·폐점과 상관없이 도서 구입 비중이 오프라인 서점에서는 감소하고 온라인 서점에서는 증가하며, 대기업 서점의 출점이 다른 오프라인 서점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을 두고 나타남을 보여 준다. 또한 대기업 서점의 출점보다 폐점이 오프라인 서점에서의 도서 구매자 이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폐점이 지역 내 오프라인 서점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다.

〈표 5-21〉 가상 구입량 기반 서점 유형별 도서 구입 비중 변화

	출점 지역			폐점 지역		
	대기업 오프라인 서점	대기업 서점 외 오프라인 서점	온라인 서점	대기업 오프라인 서점	대기업 서점 외 오프라인 서점	온라인 서점
2기간 (현재-과거 구입 비중)	+	+	-	- ***	+	+ ***
2기간 (미래-현재 구입 비중)	-	- ***	+ ***	- ***	- ***	+ ***
3기간 (미래-현재-과거 구입 비중)	+	+	-	- ***	+	+ ***

주: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내며, 대기업 서점 출·폐점 지역 거주 소비자들의 서점 유형별 가상 도서 구입 비중 변화를 고정효과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임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측면에서 봤을 때, 대기업 서점의 출점 제한 효과는 시간을 두고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출점과 폐점 효과를 동시에 고려할 때 대기업 서점의 신규 출점보다는 폐점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 폐점한 이후 인근 지역에 재출점하는 지역 내 서점 이동이 오프라인 서점 생태계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2. 소비자 후생 관점

대기업 서점의 출점 및 폐점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문 조사한 결과, 대기업 서점은 소비자 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서점 출점 지역 소비자의 오프라인 서점 도서 구매 권수가 폐점 지역보다 더 많았으며, 도서 및 문화 인프라 이용량도 대기업 서점 출점 지역 소비자는 증가한 반면, 폐점 지역 소비자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기업 서점 출점 시 서점의 가장 주요한 소비자 후생으로 볼 수 있는 오프라인 서점 접근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기업 서점의 폐점은 소비자의 온라인 서점 이용 횟수를 증가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수요도 대기업 서점에 집중되어 있다. 가장 선호하는 오프라인 서점 유형은 대기업 서점이 67.5%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거주지 주변에 필요한 서점 유형도 대기업 서점이 1순위로 나타났다. 서점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중소형 서점의 가치가 대기업 서점 대비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소비자 후생에 대한 서점 유형별 경쟁력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 서점은 도서 선택의 다양성, 인프라 이용, 도서 외 상품 구매, 큐레이션 이용, 전문 서적 구매, 문화 행사 참여, 정보 파악 등 다른 서점들보다 우위에 있는 요인들이 많았다. 반면 중소형 서점의 경우 서점의 접근성 요인에서 우위를 가졌는데, 중소형 서점 인근에 대기업 서점이 출점하는 경우 중소형 서점은 경쟁력을 잃고 대체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에서도 중소형 서점 이용 및 구매가 대기업 서점이 출점하는 경우는 감소하고, 폐점하는 경우에는 증가한다고 응답해 대기업 서점과 중소형 서점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겹치는 가운데 대기업 서점의 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의 결과는 현재 소비자의 수요가 대기업 서점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생

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중소형 서점 보호에 주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대기업 서점 폐점 지역의 소비자 후생 축소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 것은 대기업 서점의 진입 규제나 폐점 상황이 소비자 후생에는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대기업 서점의 소비자 후생 기여를 고려하여, 기존의 규제 시각에서 나아가 대기업 서점과 중소형 서점이 공생관계로서 서로의 영업권을 보호하며 협력할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 3. 한계점

서점 및 소비자의 도서 구입 행태를 식별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대기업 서점 출·폐점이 소비자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데는 식별 가능한 대기업 서점 출·폐점 정보를 이용한 설문 조사 자료가 가장 유용하다. 다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이후 대기업 서점의 출·폐점 사례가 부족해 조사 대상 지역이 한정되었다는 점, 활용된 사례의 출·폐점 시점이 상이하여 도서 구입량 변화가 출점과 폐점 시점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sup>35)</sup> 분석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대기업 서점의 출점 효과는 시간을 두고 나타날 수 있음에도 단년도 조사의 한계로 현재 시점의 도서 구입량에 대한 정보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사람들의 지역 간 이동과 대기업 서점 외 다른 서점의 출점과 폐점을 식별하지 못한다는 점 등 분석 자료의 생산 및 활용에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

자료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도는 도서 생산·유통 부문과 소비 부문이 연계된 조사를 설계하는 사례를 제공했다. 또한 최근 대기업 서점이 출·폐점한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의 도서 구입 정보를 구축해 분석 결과의 적시성을 높였다. 끝으로, 도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동시에 고려한 효과성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35)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대기업 서점의 출·폐점의 영향의 크기는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출·폐점이 조사 시점 초기와 중간에 발생한 경우의 도서 구입량의 변화를 전년 동기과 비교하면 전자가 후자보다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나게 된다.

소상공인 서점 지원 정책 효과 분석

제6장

결론 및 제언





## 제1절 제도 검토 방향

2019년 서점업은 1호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비해 강화된 중소형 서점의 보호 정책이 추진되었다. 제도의 세부 내용을 보면 서점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 참여자들의 이해가 존재하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출판 산업, 융복합형 신산업의 성장 저해 등 「산업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중소벤처기업부, 2019. 10. 3.), 몇 가지 예외 사항을 두어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허용키로 했다. 결국 서점 보호 정책은 규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해관계자에 따라 찬반양론이 존재하기에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2024년 전후로 재지정 및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오프라인 서점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영세 서점의 보호와 시장 경제 원리 사이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논의는 결론을 내기 어려울 수 있다. 향후 찬반의 논쟁을 생산적인 논의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서점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다양한 시장 참여 주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 결과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제도에 대한 이해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검토 방향을 설정하고 대형 서점의 출점이 중소형 서점과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다. 먼저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와 대형 서점(대기업 서점, 중고 서점) 출·폐점 현황 자료를 연계해 대형 서점 출점이 소매 서점 수와 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 서점의 출점은 소매 서점 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중고 서점의 출점은 소매 서점 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서점 출점은 소매 서점 종사자 수, 특히 임금 근로자 수를 증가시키나 이는 대기업 서점이 출점하면서 고용한 임금 근로자가 종사자 수에 포함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또한 대형 서점의 출점으로 소매 서점의 비임금 근로자 수가 감소되는 경향은 대형 서점의

출점으로 중소형 서점의 비용 절감 필요가 커지면서 이들 서점의 규모가 축소되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대형 서점 출점이 소매 서점 수와 종사자 수를 줄였으며, 생존해 있는 소매 서점은 더 영세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영세 소매 서점의 영업권 보호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제도 적용 대상과 방식을 미시적으로 재설계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서점 관점에서 제도를 분석한 이상의 결과를 소비자 관점에서 재확인하기 위해 최근 1년 내 대기업 서점이 출·폐점한 지역의 소비자 전후 도서 구입량과 인식 조사 자료를 활용해 대기업 서점 출·폐점이 소비자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기업 폐점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의 서점 유형별 도서 구입 비중 변화를 보면 대형 서점의 비중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반면 중소형 서점의 비중은 증가하며, 일반도서 구입 비중은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학습 참고서 구입 비중은 증가했다. 대기업 서점의 폐점은 출점과 반대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영세 소매 서점의 영업권 보호 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나 대기업 서점의 출점 효과의 크기는 작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가상 도서 구입량 정보를 활용한 분석 결과, 대기업 서점의 출·폐점과 상관없이 도서 구입 비중이 오프라인 서점에서 감소하고 온라인 서점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경향은 대기업 서점 출점 지역보다 폐점 지역에 크게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 서점의 신규 출점보다는 폐점 또는 지역 내 서점 이동이 오프라인 서점 생태계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대기업 서점 출점 지역의 오프라인 도서 구입 비중 변화는 다음 기에 유의미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대기업 서점의 출점 제한 효과는 시간을 두고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끝으로, 소비자 후행 관점에서 대기업 서점의 출·폐점의 영향을 보면, 출점은 소비자의 도서 구매 및 문화 접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출점 지역은 서점 접근성과 구매 도서의 다양성에 영향을 주나 폐점은 온라인 서점 이용 횟수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오프라인 서점 생태계 측면에서 대기업 서점의 폐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함께 지역 내 서점 유형별 역할과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 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 서점의 출점을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중소형 서점의 영업권 보호에 기여하나 그 효과성은 도서 유통·소비

시장 상황과 맞물리면서 줄어들고 있다. 둘째, 생계형 적합업종의 대상과 적용 방식의 재설계를 통해 오프라인 서점의 사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셋째, 오프라인 서점 생태계와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봤을 때 대기업 서점의 신규 출점보다는 폐점 또는 폐점한 후 인근 지역에 재출점하는 지역 내 서점 이동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끝으로, 소비자의 도서 구매 행태 변화를 봤을 때, 오프라인 서점의 보호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규모별 오프라인 서점 간의 경쟁보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 유형 간, 신간과 중고 서적 판매 유형 간 경쟁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 제2절 정책 개선 방향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특정 서점 유형의 신규 출점 및 학습 참고서 판매를 제한하는 규제적 성격을 가진다. 규제는 명시적·암묵적 형태로 생산과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시장 참여 주체 간의 활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안승구, 2018). 이에 촉진과 통제라는 규제의 양면성을 고려할 때 정책적 측면에서 규제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양적 증감이 아닌 규제의 최적화라는 질적인 실효성 제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역의 오프라인 서점과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개선 방향을 몇 가지 제안한다. 첫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으로 중소형 서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서점 진입 제한으로 생긴 기회를 중소형 서점이 아닌 제도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가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쟁적 시장에서 특정 서점의 유형을 제한하는 제도는 장기적으로 해당 서점 유형의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을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단순히 규제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은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영향력과 시장 참여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제도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연 단위로 출점을 제한하는 것(일정 기간 내 1개 점)과 제도 지정 기간 내  $n$ 개 출점을 허용하는 것을 비교하면 후자는 총량적인 출점 효과를 유지하는 가운데 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서점들의 사업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

둘째, 대기업 서점의 출점은 해당 지역의 도서 구입 및 도서 이용 다양성에 기여하는 바, 각 유형의 서점이 판매 도서 유형 및 서비스를 차별화하고 지역에서 경영 활동을 지속하면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중소형 서점 보호 제도에 대한 인식과 접근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도서 유통 시장의 빠른 변화는 오프라인 서점의 영업권 축소를 가져왔고, 이는 오프라인 서점 유형별 경쟁 및 갈등 구도를 더 강화했다. 대기업 서점의

출점으로 지역의 중소기업 서점의 매출이 줄거나 폐점된다는 논리에 기반한 서점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도 전통적인 오프라인 서점 간의 경쟁과 갈등 등 구조 심화를 명시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이다. 대기업 서점의 출점보다 폐점이 지역 오프라인 서점과 도서 구입 생태계에서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면 경쟁자의 퇴출이 단기적인 성과 제고를 이어질 수 있지만, 독서 인구를 감소시키는 등(Götz et al., 2020)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빠르게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유형의 오프라인 서점이 역할과 기능을 차별화하고, 지역에서 도서 접근성과 문화 서비스 인프라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오프라인 서점으로 소비자를 유입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독서문화 활성화와 도서 구매력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핵심은 어느 정도의 투입 비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낮춰줄 것인가에 있다. 지역의 중소형 서점 보호 정책보다 근본적으로 중소형 서점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이 동반되어야 함을 보여 준다. 이미 정부와 지자체, 협·단체를 중심으로 지역 내 중소형 서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다만, 중소형 서점에 투입될 수 있는 정책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이들 서점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효과성·효율성 제고가 수반되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서점의 사회적·문화적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도록 교육 기관, 도서관, 지역 사회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서점 전문 인력 양성 등 본질적인 경쟁력 제고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끝으로, 시장 환경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서 발굴된 정책 방향은 변할 수 있다. 다만, 정책 효과성·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을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현황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근거하기에는 부족하다. 앞에서 제시된 내용 또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점업을 비롯한 출판 및 독서 생태계 전반의 현황 파악과 정책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 생산 및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출판 산업 실태 조사」와 함께 지역에서 오프라인 서점을 운영하는 사업체들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국내 지역 서점의 특성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 자료로 활용(한국출판산업진흥원, 2023a)하기 위해 「지역 서점 실태 조사」를 시작했다. 다만 이들 자료는 매 연도별 조사 표본을 추출해 조사하는 횡단면 자료이기에 정책 평가뿐만 아니라 시점별 변화를 파악하는 것도 제한된다. 이러한 제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서 유통 관련 사업자의 행태 변화 등을 분석하고 추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사업체 기반 패널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패널 자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업체의 진입과 퇴출, 구조와 성과가 어떻게 변화는 추적·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용관·김성준, 2021). 국내 출판업계에서는 2019년부터 출판 유통 선진화를 위해 출판계, 유통업계, 정부는 함께 『출판유통통합전망』을 구축했기에 전산망을 상용화와 함께 이를 기반으로 사업체 패널을 관리하고 조사하는 추진 체계를 구축하면 정책 정보를 효과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시장 및 정책 이슈를 반영한 부가 조사를 설계하고 자료의 생산, 관리, 활용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연구 추진과 예산 지원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장 결정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정책 영역뿐만 아니라 산업 및 시장에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두 영역이 연계될 수 있는 정보 생산·활용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출판 산업 및 서점업에 대한 조사와 소비자의 도서 이용 실태 조사(국민 도서 실태 조사, 도서관 대출 정보 등)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서점을 통한 도서 공급 및 수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프라인 서점에서의 도서 구입 비중은 높은 편이며, 도서관의 도서 대출 부문까지 고려한 도서 이용 측면에서 오프라인 시장의 비중은 더욱 커진다. 이는 지역 등 공간 기준으로 도서 공급과 수요 부문을 연계한 자료 생산 체계를 구축하면 보다 정교하고 유용한 산업 및 정책 정보를 확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 참고 문헌

### [국내 문헌]

- 광기호(2019),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제도 운영이 중소기업의 성과에 미친 영향. 「한국혁신학회지」, 14(2), 187-214.
- 김민호·박우람(2022), 「중소기업 지원 기준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 정의와 적합업종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 김민호(2022),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 방향」, 한국개발연구원 KDI 정책포럼.
- 김병진·강성욱·최은식·김성록(2020),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분석 및 경쟁력 강화 방안-서점업을 중심으로. 「지역산업연구」, 43(3), 57-82.
- 동네서점(2023. 1. 3.), 「동네서점트렌드 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1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
- 문화체육관광부(2023),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2022~2026)」.
- 안승구(2018), 「규제 정책이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학기술평가원.
- 이용관(2019), 「도서 대출이 출판 매출에 미치는 영향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이용관·김성준(2021), 「콘텐츠산업 프리랜서 노동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이용관(2022a), 도서 가격 정책이 서점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 도서정가제 개정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집」, 53(1), 225-242.
- 이용관(2022b), 지역서점 진흥 정책 효과 분석-지역서점 진흥 조례와 우선구매제도를 중심으로. 「지역개발연구」, 54(1), 61-79.
- 이진국(2015),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두부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 최성구·박익순·백원근·김명준·김영규(2021), 「지역서점 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최충(2021), 온라인 쇼룸 확대가 소매업 사업체 수 및 고용에 끼친 영향, 「노동리뷰」,

20-31.

- 한국서점조합연합회(2022), 「2022 한국 서점 편람」.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2023a), 「2022 지역서점 실태 조사」.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2023b), 「2022 출판산업 실태 조사」.
- 한국출판학회출판정책연구회(2022), 「한국 출판산업의 이해」. 북코리아

#### [해외 문헌]

- Brown, S. J., Goetzmann, W., Ibbotson, R. G., & Ross, S. A. (1992), Survivorship bias in performance studies. *The Review of Financial Studies*, 5(4), 553-580.
- Götz, G., Herold, D., Klotz, PA., Schäfer, JT. (2020), When local bookshops close, more people give up reading, *LSE Business Review*.

#### [보도 자료]

- 중소기업벤처부(2019. 10. 3.), 「서점업」, 제1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보도 자료).



---

# ABSTRACT

## **The Effects of Small Business Bookstore Support Policy**

- Focusing on the designating a type of business suitable for livelihood

Lee, Yong-Kwan · Lee, Seunghee

Korea designated the bookstore business as a type of business suitable for livelihood in 2019 and restricted large bookstores from entering the market in order to protect small and medium-sized bookstores. Since the bookstore protection policy has a regulatory nature and there are pros and cons in the market, discussions on re-designation and system improvement will take place in 2024, when the designation period expires. However, the discussion may be difficult to conclude without a clear basis for effectiveness between the protection of small bookstores and market economy principles. It is necessary to confirm the impact of the system on the market in order to turn the pros and cons debate into a productive discussion.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the opening of large bookstores on various bookstore types and consumers in order to provide implications on whether to re-designate a type of business as suitable for livelihood and the direction of system improvement.

First, the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large bookstore openings on the number of small and medium-sized bookstores and employment by linking Statistics Korea's National Business Survey data with data on the opening and closing of large bookstores (large corporate bookstores and used bookstores). The opening of large bookstores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number of small and medium-sized bookstores, and the opening of used bookstores reduced the number

of retail bookstores. The opening of large bookstores reduced the number of small and medium-sized bookstore employees, especially regular workers and unpaid family workers. This shows that the opening of large bookstores has increased the need for small and medium-sized bookstores to reduce costs, thereby reducing the size of small and medium-sized bookstor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designating a type of business suitable for livelihood can achieve the policy goal of protecting small and medium-sized bookstores.

Next, we analyzed the impact of large bookstore openings and closings on consumers using pre- and post-consumer book purchase volume and perception survey data in areas where large bookstores opened and closed within the past year. The proportion of books purchased by consumers living in areas where large bookstores closed increased from small and medium-sized bookstores and study reference books. Given that the closing of a large bookstore has the opposite effect to the opening of a store, the results show that the designating a type of suitable business for livelihood creates an effect of protecting the goodwill of small retail bookstores, but the size of the effect of the opening of a large bookstore may be small.

As a result of an analysis using information on virtual book purchases, the proportion of book purchases decreased in offline bookstores and increased in online bookstores, and this change was greater in areas where large bookstores opened than in areas where they closed. This shows that closing bookstores or moving bookstores within a region can have a greater impact on the offline bookstore ecosystem than the opening new bookstores. Changes in the proportion of offline book purchases in regions where large bookstores open appear significantly in the following period, showing that the effect of restrictions on the opening of large bookstores can appear over time.

The abov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designating a type of businesses suitable for livelihoods, which restricts the opening of large bookstores, has the effect of protecting small and medium-sized bookstores, but its effectiveness is being reduced. Second, business opportunities for offline bookstores can be expanded by redesigning the targets and application methods of business suitable

for livelihood. Third, policy consideration is needed on local bookstores that are closing or reopening in nearby areas rather than opening new large bookstores. Lastly, policy consideration is needed on competition between online and offline bookstores and between new and used book sales types, rather than competition between offline bookstores in order to protect and secure the competitiveness of offline bookstores.

**Keywords**

Large Bookstore, Small Bookstore, Type of Business Suitable for Livelihood, Protection Policy, , Policy Evaluation



소상공인 서점 지원 정책 효과 분석

부록

## 서점 지원 정책 개선을 위한 이용자 설문 조사지





SQ6. [SQ3. **○○시 응답자**] 그렇다면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구체적인 지역은 어디입니까? [1개 선택]

○○구	(1) ○○동	(2) ○○동	(3) ○○동	(4) ○○동	(5) ○○동
	(6) 기타 ( ) (☞ 설문 종료)				
○○구	(1) ○○동	(2) ○○동	(3) ○○동	(4) ○○동	(5) ○○동
	(6) ○○동	(7) ○○동	(8) ○○동	(9) ○○동	
	(10) 기타 ( ) (☞ 설문 종료)				

SQ7. [SQ3. **○○시 응답자**] 그렇다면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시의 구체적인 지역은 어디입니까? [1개 선택]

- (1) ○○면      (2) ○○면      (3) ○○면      (4) ○○면  
 (5) 기타 ( ) (☞ 설문 종료)

SQ7-1. [SQ3에서 **○○시 응답자**] 그렇다면 현재 거주하시는 ○○면의 구체적인 ‘리’는 어디입니까? [1개 선택]

- (1) ○○리      (2) ○○리      (3) ○○리      (4) ○○리  
 (5) ○○리      (6) ○○리 (☞ 설문 종료)

SQ8. [SQ3. **○○시 응답자**]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시의 구체적인 지역 단위는 어떻게 되십니까? [1개 선택]

\* ○○동에 거주하시면 ‘동 단위’로 ㄱㄱ면에 거주하시면 ‘면 단위’ 등으로 응답해 주세요.

- (1) 동 단위                      (2) 면 단위                      (3) 읍 단위

SQ8-1. 그렇다면 귀하께서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시의 구체적인 면/동의 지역명은 어디입니까? [1개 선택]

○○시	_____ [SQ8에서 응답한 단위 제시]
-----	-------------------------

SQ9. 귀하는 최근 1년 7개월간(2022년 1월 1일~현재) 오프라인 서점에서(온라인 서점이 아닌 도서 판매 매장) 도서 및 학습 참고서를 구매한 적이 있으십니까? [1개 선택]

\* 일반 도서: 소설, 경제/경영, 자기계발서, 정치/사회, 역사/문화, 잡지, 만화, 대학 교재, 자격증 수험서 등 포함

\* 학습 참고서: 초/중/고 학습 참고서

- ① 예                                      ② 아니요 (☞ 설문 종료)







[A지역] C-1. 지역 내 대형 서점 출점에 대한 의견

다음은 귀하가 거주하시는 인근 지역의 대형 서점 출점(영업 개시)과 관련한 변화에 대한 문항입니다.

출점 이후 시기를 떠올리며 아래의 문항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고 ○○점이 ○○동에 202○년 ○월 ○일에 출점(영업 개시)되었습니다

C1. 귀하는 ○○문고 ○○점에 방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총 몇 번 정도 방문해 보셨습니까? [1개 선택]

- ① 50회 이상                      ② 20~49회                      ③ 10~19회
- ④ 5~9회                              ⑤ 1~4회
- ⑥ 방문한 적 없음 (☞ C2로 이동)

C1-1. [C1. ①~⑤응답 시] 귀하께서는 최근 7개월(2023. 1. 1.~2023. 7. 31.)간 영풍문고 동탄롯데점에서 도서(학습 참고서 포함)를 구매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총 몇 권 정도 구매해 보셨습니까? [1개 선택]

- ① 예, 있습니다(직접 기입: \_\_\_\_\_ 권)
- ② 아니요, 없습니다

C1-2. 귀하는 ○○문고 ○○점 출점(2022. 11. 17.) 이후 이전에 비해 도서(학습 참고서 포함) 및 문화 인프라 이용량이 어떻게 변화하셨습니다까? [1개 선택]

매우 감소했다	약간 감소했다	비슷/동일하다	약간 증가했다	매우 증가했다
1	2	3	4	5

C2. ○○문고 ○○점의 출점이 귀하의 도서(학습 참고서 포함) 구매 및 독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아래 각 사항에 대해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부정적이다	약간 부정적이다	영향이 없다	약간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C2-1. 서점 접근성	①	②	③	④	⑤
C2-2. 주변 오프라인 서점 이용 횟수	①	②	③	④	⑤
C2-3. 다른 지역 대형 서점 이용 횟수	①	②	③	④	⑤
C2-4. 온라인 서점 이용 횟수	①	②	③	④	⑤
C2-5. 원하는 책 찾기	①	②	③	④	⑤
C2-6. 구매 도서 장르의 다양성	①	②	③	④	⑤

C2-7. 도서 구매량	①	②	③	④	⑤
C2-8. 독서량	①	②	③	④	⑤
C2-9. 문화 프로그램 참여	①	②	③	④	⑤

C3. ○○문고 ○○의 출점 이후, 귀하가 거주하시는 동네에 지역 서점이 폐점한 경우를 보셨습니까? [1개 선택]

- ① 예, 본 적 있습니다(직접 기입: \_\_\_\_\_개)
- ② 아니요, 본 적 없습니다

C3-1. [C3에서 ① 응답자만]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동네 지역 서점이 폐점한 이유로 ○○문고 ○○점의 출점(영업 개시)이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전혀 영향이 없다	별로 영향이 없다	보통이다	약간 영향이 있다	매우 영향이 있다
1	2	3	4	5

## [B지역] C-2. 지역 내 대형 서점 폐점에 대한 의견

다음은 귀하가 거주하시는 인근 지역의 대형 서점 폐점(영업 종료)과 관련한 변화에 대한 문항입니다.

폐점 이후 시기를 떠올리며 아래의 문항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고 ○○점은 ○○동에 20○○년 ○월 ○일 출점(영업 개시)하여 202○년 ○월 ○일 폐점(영업 종료)되었습니다

C4. 귀하는 2022년에 ○○문고 ○○점에 방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총 몇 번 정도 방문해 보셨습니까? [1개 선택]

- ① 50회 이상                      ② 20~49회                      ③ 10~19회  
 ④ 5~9회                              ⑤ 1~4회  
 ⑥ 방문한 적 없음 (☞ C5로 이동)

C4-1. 귀하는 ○○문고 ○○점이 폐점(202○. ○. ○.)된 이후 이전에 비해 도서(학습 참고서 포함) 및 문화 인프라 이용량이 어떻게 변화하셨습니다까? [1개 선택]

매우 감소했다	약간 감소했다	비슷하다	약간 증가했다	매우 증가했다
1	2	3	4	5

C5. ○○문고 ○○점의 폐점이 귀하의 도서(학습 참고서 포함) 구매 및 독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정도를 선택해 주세요. [행별 1개 선택]

	매우 부정적이다	약간 부정적이다	영향이 없다	약간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C5-1. 서점 접근성	①	②	③	④	⑤
C5-2. 주변 오프라인 서점 이용 횟수	①	②	③	④	⑤
C5-3. 다른 지역 대형 서점 이용 횟수	①	②	③	④	⑤
C5-4. 온라인 서점 이용 횟수	①	②	③	④	⑤
C5-5. 원하는 책 찾기	①	②	③	④	⑤
C5-6. 구매 도서 장르의 다양성	①	②	③	④	⑤
C5-7. 도서 구매량	①	②	③	④	⑤
C5-8. 독서량	①	②	③	④	⑤
C5-9. 문화 프로그램 참여	①	②	③	④	⑤

### [지역C] C-3. 지역 내 대형 서점 폐점에 대한 의견

다음은 귀하가 거주하시는 인근 지역의 대형 서점 폐점(영업 종료)과 관련한 변화에 대한 문항입니다.

폐점 이후 시기를 떠올리며 아래의 문항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고 ○○점은 ○○동에 20○○년 ○월 ○일 출점(영업 개시)하여 202○년 ○월 ○일 폐점(영업 종료)되었습니다

C6. 귀하는 2022년에 ○○문고 ○○점에 방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총 몇 번 정도 방문해 보셨습니까? [1개 선택]

- ① 50회 이상    ② 20~49회    ③ 10~19회    ④ 5~9회    ⑤ 1~4회  
⑥ 방문한 적 없음 (☞ C7로 이동)

C6-1. 귀하는 ○○문고 ○○점이 폐점(202○. ○. ○.)된 이후 이전에 비해 도서(학습 참고서 포함) 및 문화 인프라 이용량이 어떻게 변화하셨습니까?

[1개 선택]

매우 감소했다	약간 감소했다	비슷하다	약간 증가했다	매우 증가했다
1	2	3	4	5

C7. ○○문고 ○○점의 폐점이 귀하의 도서(학습 참고서 포함) 구매 및 독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정도를 선택해 주세요. [행별 1개 선택]

	매우 부정적이다	약간 부정적이다	영향이 없다	약간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C7-1. 서점 접근성	①	②	③	④	⑤
C7-2. 주변 오프라인 서점 이용 횟수	①	②	③	④	⑤
C7-3. 다른 지역 대형 서점 이용 횟수	①	②	③	④	⑤
C7-4. 온라인 서점 이용 횟수	①	②	③	④	⑤
C7-5. 원하는 책 찾기	①	②	③	④	⑤
C7-6. 구매 도서 장르의 다양성	①	②	③	④	⑤
C7-7. 도서 구매량	①	②	③	④	⑤
C7-8. 독서량	①	②	③	④	⑤
C7-9. 문화 프로그램 참여	①	②	③	④	⑤

## D. 서점 이용 행태(전체 응답자 대상)

지금부터는 서점에 대한 귀하의 평소 생각에 대해 여쭙보겠습니다

D1.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다음의 각 사항이 설명하는 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서점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행별 1개 선택]

	대형 서점	체인 서점	지역 서점	독립 서점	중고 서점	온라인 서점
① (도서 다양성) 도서의 종류가 다양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② (접근성) 집에서 가까거나 생활 동선에서 가까워 방문이 수월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③ (용이성) 내가 원하는 책이 언제든 있고 책을 찾거나 얻기 쉬움	①	②	③	④	⑤	⑥
④ (경제적 이유) 할인, 적립 등 가격이 저렴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⑤ (인프라) 서점의 독서·휴게 공간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⑥ (융복합) 문구 등 도서 외 다른 용품을 구매가 가능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큐레이션) 취향, 관심사 등을 기반으로 큐레이션이 잘되어 있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⑧ (전문성) 전문서적 등 다른 곳에서 찾기 어려운 도서들이 있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⑨ (문화 행사) 서점에서 제공하는 문화 행사 등에 참여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⑩ (교류) 서점에서의 독서 모임, 주민과의 교류, 서점주와의 관계 등 인적 교류가 좋음	①	②	③	④	⑤	⑥
⑪ (정보성) 서점 방문을 통해 현재 중요한 정보(트렌드)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음	①	②	③	④	⑤	⑥

귀하가 서점을 이용하시는 도서(학습 참고서 포함) 구매 패턴을 상기하시며 다음의 지문을 읽으신 후, 귀하의 의견과 동의 하시는 정도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2. 귀하가 **대형 서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의 총합을 100**이라고 할 때, **중형 서점(지역 서점)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대형 서점과 중형 서점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100을, 중형 서점에서 얻는 가치가 더 작다고 생각하시면 0~99** 중에 해당 숫자를,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101~200** 중에 해당 숫자를 기입해 주세요.

대형 서점을 통해 얻는 가치의 총합이 100이라고 했을 때, 중형 서점(지역 서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는...	_____ 점 정도
--	------------

D3. 다음의 문항을 읽고 귀하의 의견과 동의하시는 정도를 선택해 주세요. [행별 1개 선택]

중형 서점 이용 및 구매가 ...	매우 감소할 것이다	약간 감소할 것이다	별로 영향이 없을 것 같다	약간 증가할 것 같다	매우 증가할 것 같다
D2-1. 귀하의 거주지 도보거리에 대형 서점이 출점(영업 개시)하는 경우 귀하의 거주지 주변 중형 서점 이용 및 도서 구매 건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D2-2. 귀하의 거주지 도보 거리에 대형 서점이 폐점(영업 종료)하는 경우 귀하의 거주지 주변 중형 서점 이용 및 도서 구매 건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D4. 귀하께서 평소 오프라인 서점에서 도서(학습 참고서 포함)를 구입하실 때, 가장 선호하는 서점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가장 선호하시는 것부터 순서대로 최대 2개까지 선택해 주세요. [2순위 필수 선택]

\* 온라인 서점은 제외하고 응답해주세요

1순위	
2순위	

- (1) 대형 서점(영풍문고, 교보문고 등)
- (2) 체인 서점(반디앤루니스, 아람북스, 종로서적, 아크앤북 등)
- (3) 중소 서점(지역 서점)
- (4) 독립 서점(동네 책방)
- (5) 중고 서점(알라딘 등)

D5. 귀하께서 연간 서점에서 10권의 도서(학습 참고서 포함)를 구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서점 유형별 도서 구입 권수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과거 2년간('21~'22년)	현재('23년)	2년 후 예상('25년)
대형 오프라인 서점	_____ 권	_____ 권	_____ 권
대형 서점 외 오프라인 서점	_____ 권	_____ 권	_____ 권
온라인 서점	_____ 권	_____ 권	_____ 권
총 합	10권	10권	10권



D6. 귀하께서는 **향후 2년 후 총 도서(학습 참고서 포함) 구입량이 어떻게 변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1) 현재와 향후가 비슷/동일할 것 같다
- (2) 현재보다 향후 도서 구입량이 더 증가할 것 같다(현재보다 \_\_\_% 증가)
- (3) 현재보다 향후 도서 구입량이 더 감소할 것 같다(현재보다 \_\_\_% 감소)

D7. 귀하께서는 생각하시기에 **귀하가 거주하시는 지역에 각 서점 종류별로 각각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 선택]

	전혀 필요하지 않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잘 모름/ 보통 이다	약간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1) 대형 서점(영풍문고, 교보문고 등)	①	②	③	④	⑤
(2) 체인 서점(반디앤루니스, 아람북스, 종로서적, 아르앤북 등)	①	②	③	④	⑤
(3) 중소 서점(지역 서점)	①	②	③	④	⑤
(4) 독립 서점(동네 책방)	①	②	③	④	⑤
(5) 중고 서점(알라딘 등)	①	②	③	④	⑤

**E. 독서 및 도서관 이용 행태**

E1. 귀하께서는 최근 1년(2022.8월~2023.7월) 동안 **교과서, 학습 참고서, 수험서를 제외한 책(전자책 포함)**을 몇 권이나 읽으셨습니까?

최근 1년 동안 독서 권수	_____ 권
----------------	---------

E2. 귀하가 현재 거주하시는 동네에 **도보로 이용 가능한 가까운 도서관**이 있습니까? [1개 선택]

- ① 예
- ② 아니요

E3. 귀하는 **평소 도서관을 얼마나 자주 방문**하십니까? [1개 선택]

\* 아래 보기 중 응답하시기 편한 기준을 선택하여 횟수를 기입하여 주세요

- ① 한 달 기준(직접 기입: \_\_\_\_\_ 회)
- ② 1년 기준(직접 기입: \_\_\_\_\_ 회)
- ③ 거의/전혀 방문하지 않음 (☞ E5로)

E4. 귀하는 평소 도서관에서 책을 몇 권 정도 빌리십니까? [1개 선택]

\* 아래 보기 중 응답하시기 편한 기준을 선택하여 횟수를 기입하여 주세요

- ① 한 달 기준(직접 기입: \_\_\_\_\_ 권)
- ② 1년 기준(직접 기입: \_\_\_\_\_ 권)
- ③ 거의/전혀 빌리지 않음 (☞ E5로)

E5. 아래 문항을 읽고 귀하의 의견과 동의하시는 정도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별 1개 선택]

	매우 감소할 것 같다	약간 감소할 것 같다	영향이 없을 것 같다	약간 증가할 것 같다	매우 증가할 것 같다
E5-1. 귀하의 거주지 도보 거리에 도서관이 생길 경우 귀하의 도서 구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E5-2. 귀하의 거주지 도보 거리에 서점(대형 서점 제외)이 출점하는 경우 귀하의 도서관 이용 및 도서 대출 권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E5-3. 귀하의 거주지 도보 거리에 대형 서점이 출점하는 경우 귀하의 도서관 이용 및 도서 대출 권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 Demo. 인구 통계학적 배경 질문

DQ1. [만 19세 이상에게만 제시] 귀하께서는 결혼을 하셨습니까? [1개 선택]

- ① 결혼 안 함
- ② 결혼함(자녀 없음)
- ③ 결혼함(고등학생 이하 자녀도 있음)
- ④ 결혼함(성인 자녀만 있음)

DQ2.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 ① 관리자
-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③ 사무 종사자
- ④ 서비스 종사자
- ⑤ 판매 종사자
- ⑥ 농림/어업 종사자
- ⑦ 기능원 및 기능 종사자

- ⑧ 단순 노무 종사자
- ⑨ 군인
- ⑩ 학생
- ⑪ 전업 주부
- ⑫ 무직
- ⑬ 기타 ( \_\_\_\_\_ )

DQ3.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개 선택]

\* 중퇴는 졸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① 중학교 졸업 이하
- ② 고등학교 졸업
- ③ 전문대 졸업
- ④ 4년제 대학 졸업
- ⑤ 대학원 졸업 이상

DQ4. 귀하의 가정의 **월 평균 가구 소득**은 대략 얼마 정도 되십니까? [1개 선택]

- ① 150만 원 미만
- ② 150~200만 원 미만
- ③ 200~250만 원 미만
- ④ 250~300만 원 미만
- ⑤ 300~400만 원 미만
- ⑥ 400~500만 원 미만
- ⑦ 500~600만 원 미만
- ⑧ 600~700만 원 미만
- ⑨ 700~800만 원 미만
- ⑩ 800만 원 이상



## 집필 내역

---

### 연구 책임

이용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 위원: 연구 총괄, 제1장, 제4장, 제5장, 제6장

### 공동 연구

이승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제2장, 제3장, 제5장

### 연구 참여

안태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근로 장학생: 서점 지원 정책 정리, 분석 데이터 정리

## 소상공인 서점 지원 정책 효과 분석 -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중심으로 -

---

발행인 김세원

발행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쇄일 2023년 11월 17일

발행일 2023년 11월 17일

인쇄인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 일자리사업장

I S B N 978-89-6035-986-4 93300

DOI <https://doi.org/10.16937/kcti.rep.2023.e16>

이 연구 보고서를 인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  
이용관·이승희(2023), 소상공인 서점 지원 정책 효과 분석-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www.kcti.re.kr](http://www.kcti.re.kr)



아래의 DOI 또는 QR코드를 통해  
이 보고서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doi.org/10.16937/kcti.rep.2023.e16>

